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 차문석 | 김 혁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연구책임자

홍 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차문석(국립통일교육원 교수)

김 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지원

권주현(통일연구원 연구원)

KINU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공간·구술·시각 정보 기반 북한·통일 연구와 데이터 플랫폼 구축(5/5년차)

KINU 연구총서 22-28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저자	홍민, 차문석, 김혁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I S B N	979-11-6589-127-5 93340
가격	7,500원

© 통일연구원, 202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KINU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	9
----	---

Chapter I

조사·분석의 개요	19
-----------	----

Chapter II

전국 공식시장 분포 및 규모	25
-----------------	----

1. 북한 공식시장 지역별 분포	27
2. 공식시장 면적 및 총매대수 추정	38

Chapter III

북한의 시장 관리 체계와 시장사용료(장세) 추정	45
----------------------------	----

1. 시기와 범위	47
2. 시장 관리 체계	50
3. 최근 장세의 동향	57
4. 장세 계산 및 추정	63
5. 시장관리 및 장세 연구의 함의	73

Chapter IV

북한 공식시장의 입지 변화와 물류유통	75
1. 시대별 시장의 입지변화와 특징	77
2. 지역별 변동시장 현황과 특징	94
3. 물류유통 현황과 함의	129

Chapter V

지역별 공식시장 현황	137
1. 평양직할시	139
2. 평안남도	140
3. 평안북도	142
4. 황해남도	144
5. 황해북도	145
6. 함경남도	146
7. 함경북도	148
8. 강원도	150
9. 자강도	151
10. 양강도	152
11. 남포특별시	153
12. 나선특별시	154
13. 개성특별시	154
참고문헌	15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7

〈표 II-1〉 북한 공식시장 전체 집계표	27
〈표 II-2〉 북한 공식시장 도별 집계와 변동 내용	29
〈표 II-3〉 전체 공식시장 이전 성격 구분	30
〈표 II-4〉 북한 도별 공식시장 수	31
〈표 II-5〉 북한 시·군 행정구역별 공식시장 수	35
〈표 II-6〉 북한 28개 도시별 시장 수	36
〈표 II-7〉 북한 도별 공식시장 면적 추계	38
〈표 II-8〉 북한 도시등급별 시·군·지구·구 행정구역 구별	41
〈표 II-9〉 북한 도별 공식시장 매대 수 추정	42
〈표 II-10〉 시장관리소 인력 추정치	43
〈표 III-1〉 분석의 시기 구분	49
〈표 III-2〉 공식시장 매대 수(추정)	62
〈표 III-3〉 장세 계산을 위한 도시 등급 분류	64
〈표 III-4〉 등급별 기준장세 추산치	65
〈표 III-5〉 연도별 1\$ 환율 기준 금액	66
〈표 III-6〉 1일 기준 전국 장세(합계) 추정치	66
〈표 III-7〉 2017~2019년 장세 추정치	67
〈표 III-8〉 2020년~2022년 5월 장세 추정치	68
〈표 III-9〉 2022년 6~8월 장세 추정치	69
〈표 III-10〉 2022년 9~12월 장세 추정치	69
〈표 III-11〉 시·도별 장세 추정치, 1일 기준	71
〈표 III-12〉 시·도별 장세와 비율, 1일 기준	72

〈그림 II-1〉 도별 시장 수위 2016년과 2022년 비교	33
〈그림 IV-1〉 농민시장 일반구조 형태	78
〈그림 IV-2〉 2000년과 2022년 평양시 주요시장 입지 변화 비교	79
〈그림 IV-3〉 2006년 이전과 2022년 청진시 주요시장 입지 변화 비교	79
〈그림 IV-4〉 도심외곽 장마당에서 시장으로의 변화(좌: 평양 평천시장, 우: 청진 수남시장)	80
〈그림 IV-5〉 공장의 시장화(좌: 평성 옥전시장)와 대로의 시장화(우: 원산 신흥시장)	81
〈그림 IV-6〉 대로변 아파트 단지 내 시장입지 모습(좌: 평양 하신시장, 우: 청진 수원시장)	82
〈그림 IV-7〉 도시개발에 따른 평양 통일거리시장, 중구시장, 평천시장 모습	83
〈그림 IV-8〉 도시 재개발에 따른 시장 이전 및 조성 (좌: 남포 해안동시장, 우: 강계 남천시장, 독산시장)	84
〈그림 IV-9〉 북한의 시장변동 현황(2015~2022년)	85
〈그림 IV-10〉 북한 전국 시장변동 분포(2022.12.기준)	86
〈그림 IV-11〉 2006년 수남시장 주변지역 모습(2006.8.30. 위성촬영)	88
〈그림 IV-12〉 수요확산으로 확장된 수남시장 (좌: 2012.5.19.위성촬영, 우: 2016.10.24.위성촬영)	89
〈그림 IV-13〉 수요확산으로 인한 수남시장의 외형적 확산 (좌: 2017.8.27. 촬영, 우: 2022.8.21. 촬영)	90
〈그림 IV-14〉 강계시 외룡시장 주변 시가지 현황(2006.3.23. 촬영)	91
〈그림 IV-15〉 독산지구 개발에 따른 시장조성 모습(좌: 2006.3.23.촬영, 우:2012.10.31.촬영) ...	92
〈그림 IV-16〉 독산지구 개발과 시장조성 모습(좌: 2017.10.8.촬영, 우: 2022.9.26.촬영)	93
〈그림 IV-17〉 2016년 대비 2022년 지역별 시장변동현황	94
〈그림 IV-18〉 시장 규모의 지역별 변화	95
〈그림 IV-19〉 강동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2020.11.10.촬영)	97
〈그림 IV-20〉 신성시장 확장 전(노랑), 후(빨강) 모습(2022.11.13.촬영)	98
〈그림 IV-21〉 광산시장 확장 전(노랑), 후(빨강) 모습(2022.1.30.촬영)	101
〈그림 IV-22〉 연안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2022.10.19.촬영)	106
〈그림 IV-23〉 중화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 모습(2022.6.10.촬영)	110

〈그림 IV-24〉 장진강변에서 중심부로 이전 확장한 장진시장(2021.7.21.촬영)	113
〈그림 IV-25〉 시장확산에 따른 주변부 도시화(2022년 촬영, 주요 변화지역 붉은색 표시)	115
〈그림 IV-26〉 창도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2020.3.8. 촬영)	119
〈그림 IV-27〉 동신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2022.4.촬영)	121
〈그림 IV-28〉 갑산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2021.10.24.촬영)	125
〈그림 IV-29〉 천진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	127
〈그림 IV-30〉 북한 지구별 구분과 산맥지형	130
〈그림 IV-31〉 주요 유통망별 차량임차비 현황(왕복/편도)(단위: 달러)	133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 통일연구원은 2016년 국내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 공식시장의 전국적 분포와 입지 현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을 중심으로』란 이름으로 발간한 바 있다.
- 본 발간물은 2016년에 이어 6년 만에 2022년 시점에서 북한 공식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2016년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 공식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조사는 북한 경제 및 시장 활동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되고 표준화된 지표를 만들어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이터 축적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북한 공식시장 분포와 지역별 특징, 둘째, 북한의 시장관리체계와 장세 수입, 셋째, 북한 공식시장의 입지 변화와 물류 유통 등이다.
- 우선 북한 전체 시장의 전체 수와 지역별·도시별 분포를 확인하고 2016년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시장의 이전·확장·폐쇄와 새로운 신규 시장의 설치 등 외형상의 물리적 변화 등도 확인하였다. 둘째, 공식시장의 입지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 물자 및 상품 유통의 구체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의 변화, 장세 및 각종 시장으로부터 징수되는 수입 체계도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전체 시장의 매대 수와 장세 수입을 추정함으로써 외형적 통계상의 변화와 더불어 관리·행정상의 변화 역시 파악하고자 했다.
- 조사결과 2022년 11월 현재 북한의 공식시장은 총 414개로 집계되었다. 2016년 12월 조사 결과와 대비하면 순증가는 -1로 나타났다. 5년 10개월 사이 총량적으로 1개

감소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식시장 증가는 정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전체 시장의 신규건설, 폐쇄, 이전, 확장, 축소 등의 변동 건수는 총 116건으로 파악됐다. 변동 세부 내역은 신규 7건, 폐쇄 8건, 이전 45건, 확장 38건, 축소 18건 등이다. 신규 설치 및 확장 등 규모 확대 관련 건수는 45건, 폐쇄나 축소 등 규모 감소 관련 건수는 26건으로 전체 시장 수의 순증가는 -1개이지만, 규모 확장은 일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도별 시장 수 순위도시는 평안남도가 68개로 가장 많았고 2016년 대비 큰 폭의 순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도별 평균 시장 수는 31.8개로 2016년 31개와 비교하면 변화는 미미했다. 전체적으로 순증가의 정체로 도별, 시별 시장 수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식시장 1개당 인구수는 61,831개로 2016년 당시 56,265개에 비해 5,56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북한인구추계로 2008~2022년 사이 약 2,248,164명이 증가한 것으로 고려하면, 인구 증가에 비해 시장의 수는 정체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시장이 양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각 시장의 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일정 부분 늘어난 인구수를 소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공식적인 종합시장 이외의 상품의 소비·유통 방식의 다양화가 시장수 증가 압박을 완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전체 시장 면적은 2016년 대비 105,060㎡(31,781평) 증가 추정된다. 전국 공식시장 전체 면적은 한국의 여의도 면적(2.9km²)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1개당 평균 면적은 4,697㎡(1,420평)로 한국의 서울광장(13,207㎡)이나 잠실야구장(13,880㎡)의 1/3 면적에 해당한다. 2016년에 평균 4,630㎡(1,401평)로 사실상 시장 1개당 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북한 전국의 시장 매대수 추정 결과 총 매대 수는 1,153,722개로 집계됐다. 2016년 조사 때 1,092,992개와 비교하면, 60,730개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장 1개당 평균 매대 수는 2,787개로 추계됐다.
- 시장 매대 1개당 종사자 수 1인으로 가정하면, 북한 전체 공식시장 상인 총수는 1,153,722명으로 볼 수 있으며, 매대 상인 이외에 시장관리소 관리 인력을 합하면 북한 공식시장 관련 종사자 수는 약 1,160,312명으로 추계됐다.

- 시장관리체계 및 시장사용료(장세)를 추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변수를 고려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 코로나19가 발생·확산 이전인 2017, 2018, 2019년의 시기
 - 코로나19 발생 후 비상방역시기인 2020~2022년 5월까지의 시기
 -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공표한 2022년 5월 12일~2022년 8월의 시기
 - 2022년 9월에서 현재(2022. 12)에 이르는 시기
- 북한의 시장 관리에서 지시 하달 체계는 중앙당 → 상업성 → 상업성 →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및 상업관리국 → 시장관리소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각 시, 군에 위치한 시장을 관리하는 역할은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 산하 시장관리소가 맡고 있다.
- 조사 결과, 2022년 현재 평양의 구역 내 시장 경우, 통상 시장관리소는 소장, 관리원, 위생실 출입통제원, 짐보관 관리원, 자전거 관리원 등 총 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경북도 나선의 경우, 소장, 관리원, 짐보관 관리원, 자전거 관리원 등 총 23명, 자강도 강계의 경우, 소장, 관리원, 짐보관 관리원, 자전거 관리원 등 총 16명 등으로 지역과 시장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은 2020년 10월 19일에 내각의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시장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지시문은 시장에 대한 당적 관여와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 (1) 해당 지역 시장의 설치와 폐지 등은 해당 도, 시, 군 인민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내각에 보고
 - (2) 매대 판매 상품의 종류와 품목은 각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의 권한
 - (3) ‘시장에 대한 당 조직 개입’을 규정, 이전에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시장을 관리하고 당 조직은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조직부 계선 통해 중앙당으로 동시에 보고하는 체계 가동, 인민 시장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초점
 - (4)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와 당위원회가 함께 논의하여 개·폐장 시간, 판매 상품의 최고·최저 가격, 준법 위반 행위 벌금 부과 결정하는 구조
 - (5) 수입산 물품들의 장세 인상
 - (6) 농산물,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되, 시장의 국산화를 일률화하지 말며 유무상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시문에 언급

(7) 시장의 규모와 도시 인구 분포에 따라 시장사용료나 국가납부금을 재구성해서 예산집행에 포함하도록 지시

- 2021년 1월 당 제8차 대회 이후 내각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돼왔던 시장 시스템을 국가의 계획지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위해 내각 산하의 국가품질감독국과 상업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2021년 모든 상업기관과 생산, 유통, 판매 전 영역에 걸친 통제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통일적 지휘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북한의 장세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굴곡을 보여주었다. 장세의 추이가 일관성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변화하기도 했고, 같은 시기인 데도 지역별로 장세의 인상과 인하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다.
- 1일 기준 전국 장세(한계) 추정치

시기	세부	장세(합계) 추정치		비고
코로나19 이전	2017년	최대	3,098,560,687	
		최소	1,168,740,808	
	2018년	최대	3,590,082,153	
		최소	1,284,065,925	
	2019년	최대	4,172,143,222	
		최소	1,399,391,042	
코로나19 시기	2020년	최대	5,051,117,523	
		최소	1,573,993,173	
	2021년	최대	5,892,259,970	
		최소	1,685,752,538	
	2022년 1-5월	최대	6,019,484,113	
		최소	1,802,831,577	
코로나19 확산 시기	2022년 6-8월	최대	6,919,506,992	2022년도 추정치 최대: 6,322,350,520 최소: 1,836,264,778
		최소	1,903,131,179	
코로나19 통제 시기	2022년 9-12월	최대	6,028,060,456	
		최소	1,802,831,577	

- 북한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삼중고(자연재해,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를 언급할 정도로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2년에

북한 전역에서 1일에 집금되는 장세는 북한 원화로 최대 63억 2,235만 520원, 최소 18억 3,626만 4,778원 정도의 규모로 추산됐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매대를 교차 영업하도록 하였을 경우, 장세 추정치를 1/2로 나누어, 최대 30억 원, 최소 9억 원 정도의 규모의 1일 장세가 전국적으로 집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북한의 ‘장세’는 중앙으로 집금되는 장세의 규모와 액수와 상관없이 북한의 중앙 경제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 시장의 시대별 입지변화 특징은 인구의 밀집정도, 접근가능성, 이용편의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 환경과 주민의 시장 수요에 따라 시장의 입지가 선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장변화의 배경에는 시장화에 대한 통제와 완화라는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로 보인다.

주제어: 종합시장, 공식시장, 장세, 시장관리체계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Hong, Min et al.

- In 2016,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published a research paper titled “North Korea’s Market Information: With a Focus on Official Markets,” the first survey of its kind to map out the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official markets across North Korea.
- Six years after the initial study, this paper examines the state of North Korean official markets in 2022 and analyzes how it has evolved in that time by drawing parallels to a similar study conducted in 2016.
- By developing consistent and standardized indicators that can identify the level of North Korea's economic and market activity, the surveys in 2016 and 2022 provide an essential base for data gathering through time-series comparison and analysis.
-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covering, first, the distribution and regional features of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second, North Korea’s market management system and market rental fee (Jang-se), and third, shifts in North Korean official markets’ location and logistics.
- To begin, we counted all of North Korea’s marketplaces, mapped out where they were located by region and city, and how they had changed since 2016, and then analyzed the data statistically. We also looked at how the markets’ physical layout has changed over time, including market relocations, expansions,

and closures, as well as the addition of new markets. Second, we examined how the location of official markets and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goods and products have evolved over time. Lastly, market revenues of different types, including *Jang-se* (market rental fee), are discussed, as well as recent shifts in the market management system institut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This study demonstrates administrative and management changes, as well as statistical ones, by calculating the total number of market stands and revenues from *Jang-se* (market rental fee).

- As of November of 2022, the official count for North Korea's markets was 414. The net increase was -1 when compared to the survey findings from December 2016. In the time frame of 5 years and 10 months, the total number of markets went down by 1. This appears to be indicative of a prolonged period of stagnation.
- 7 new markets, 8 closures, 45 relocations, 38 expansions, and 18 contractions bring the total number of market changes since 2016 to an estimated 116. There have been 45 occurrences of scale growth, such as new installations or expansions of markets, and 26 cases of scale decline, such as closures or reductions. The scale expansion has continued to advance even though the net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marketplaces is -1 .
- There was no major shift in the market rankings from 2016 to 2022, with South Pyongan Province having the most markets at 68. There was a slight increase from 2016's average of 31 marketplaces across cities and provinces to 2022's average of 31.8. The net expansion of markets across regions and municipalities has slowed so that there has been essentially no net change in the overall number of markets.
- A total of 61,831 people were counted in each official market, up from 56,265 in 2016. Statistics Korea estimates a 2,248,164 increase in North Korea's population between 2008 and 2022; yet, the number of markets has remained relatively same over this time.

- Even though the market has not grown numerically, the expansion of market facilities accommodates the larger population. It is safe to assume that the diversification for consuming and distributing goods outside of general markets has cushioned the pressure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markets prompted by population increase.
- The size of the market is projected to have grown by 105,060 square meters (m²) compared to 2016. Roughly 60% of the size of Yeouido (2.9 km²) is projected to be devoted to official markets across North Korea. Each market, on average, is 4,697 square meters, or about a third the size of Seoul Plaza (13,207 square meters) or Jamsil Baseball Stadium (13,880 square meters). The average market size in 2016 was estimated to be 4,630 square meters, so there was no notable change in the size of market in 2022.
- It was projected that there were a total of 1,153,722 market stands in North Korea's official marketplaces, a 60,730 increase from 1,092,992 in the 2016 survey. The average number of market stands per a market was predicted to be 2,787.
- Assuming that there is one vendor per one market stand, the total number of merchants in North Korea is estimated to be around 1,153,722, while the total number of workers involved in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except for merchants), including those in the market administration office, is estimated to be around 1,160,312.

Keywords: Official Market, General Market, Market Rental Fee(*Jang-se*), Market Management System

I . 조사 · 분석의 개요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조사 · 분석의 개요

■ 조사·분석의 목적

- 통일연구원은 2016년 국내 처음으로 북한 전국 공식시장 현황 조사를 실시
- 이번 조사는 6년 사이 북한 공식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 2016년과 2022년 조사는 북한의 시장 활동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되고 표준화된 지표를 만들어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
- 북한 경제와 사회, 시장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자료 확보 목적
- 특히 북한의 공식시장을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에서 확인하고 정보화하여 축적함으로써 여타 다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정보의 공간정보화’에 기여

■ 조사내용

(1) 북한 공식시장 분포와 지역별 특징

- 공식시장 전체 수
- 공식시장 변동 내용
- 공식시장 도별 분포
- 인구수와 시장 수
- 시별 공식시장 분포
- 시장 면적 추정
- 총 매대 수 추정
- 공식시장 관련 종사자 수 추정

(2) 북한의 시장관리체계와 장세 수입

- 시장 운영 시간 변화
- 시장 관리 체계 및 시장관리소 구조
- 최근 장세 및 짐 보관료 등 동향
- 시·도별 매대 수
- 시기별, 도별 장세 추정치

(3) 북한 공식시장의 입지 변화와 물류 유통

- 시대별 시장의 입지변화와 특징
- 지역별 변동시장 현황 및 특징
- 물류유통 현황

■ 인공위성사진 이미지 기반 피복 조사

- 본 조사는 구글 어스(Google Earth) 프로의 인공위성 이미지를 활용
- 구글 어스는 10~20년 기간 정도의 인공위성 이미지를 주요 시기별로 살펴 볼 수 있어 공간 변화의 시계열적(historical) 분석 가능
- 본 조사는 북한 행정구역 체계상의 28개 시(市), 140개 군(郡), 3지구(地區), 2구(區)에 운영 중인 공식시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공간적 분포 현황을 조사^{1/}
- 2016년 통일연구원 발간 『북한 전국 시장정보: 공식시장으로 중심으로』 조사 당시의 1차 피복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역별 피복 조사 실시
- 이번 피복조사는 인공위성 이미지로 파악한 시장을 2016년 조사 당시와 비교 하여 변화를 분석

■ 외부조사업체 위탁 조사 의뢰

- 현지 통신원을 통한 시장 장세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 취득을 위해 데일리엔케이(Daily NK)에 조사 위탁

1/ 2019년 양강도 삼지연군이 삼지연시로 승격되고, 황해북도 개성시가 개성특별시로 승격되면서 변화한 북한의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함.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행정구역,”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SO302>> (검색일: 2022.10.31.).

- 조사기간: 2022.9.8.~9.20.
- 업체 자체 조사 분석·결과 정리: 2022.9.11.~9.22.
- 결과에 대한 연구진 내부 검토: 2022.10.
- 조사 주요 내용
 - ① 주요 시장 장세 현황
 - ② 짐/자전거 보관료
 - ③ 시장관리소의 종사자 수 및 월급
 - ④ 대형 물류 보관 시장운영 및 개인 운영 창고 사용료
 - ⑤ 지역별 대표 물품 운송 비용
 - ⑥ 시장 현안 조사

■ 연구진 역할

- 연구책임 및 시장 분포 분석: 홍민(통일연구원)
- 장세 조사 및 추계 분석: 차문석(국립통일교육원)
- 위성사진 피복조사 및 입지 변동 분석: 김혁(한국농어촌공사)

II. 전국 공식시장 분포 및 규모



전국 공식시장 분포 및 규모

1. 북한 공식시장 지역별 분포

가. 공식시장 전체수

- 2022년 11월 현재 북한의 공식시장은 총 414개로 집계^{2/}
 - 2016년 조사 때 파악된 404개와 비교하면 총량적으로는 총 10개 증가
 - 집계 세부 내용

표 II-1 북한 공식시장 전체 집계표

구분	2016	2022	2016년 미반영분		2017~2022 변동 내용	
			미확인 반영 ^{3/}	미식별 반영 ^{4/}	신규	폐쇄
합계	404	414	4	7	7	8

출처: 필자 작성

- ①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신규 설치 시장은 총 7개
- ②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기존 시장 중 폐쇄 시장은 총 8개
- ③ 2016년 조사 때 식별하여 시장 목록에는 넣었으나 경계가 불명확하여 집계에서는 제외했던 시장 4개 포함

2/ 남포시 류사동 소재 류사시장이 2022년 12월 발견되었으나, 공식시장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관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개수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V장의 목록에만 추가함.

3/ 미확인 시장은 2016년 조사 당시 시장으로 식별은 했으나, 경계가 불명확하고 크기가 작아 전체 목록에는 포함시키되, 총 시장 개수에서는 제외한 시장 중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경계를 확정할 수 있게 되어 전체 수에 포함된 시장을 의미함.

4/ 미식별 시장은 2016년 조사 당시 저해상도 위성사진 및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확인이 어려워 유보한 시장 중 최근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시장을 의미함.

: 평양직할시 삼석구역시장, 평안북도 벽동군 벽동시장, 자강도 화평군 화평시장, 자강도 동신군 동신시장

④ 2016년 당시 존재했으나 조사시 미식별됐던 시장 7개 포함

: 나선특별시 지경시장, 함경북도 청진시 방진시장, 낙산시장, 함경북도 어랑읍 농민시장,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동시장, 황해북도 상원군 명당시장, 강원도 문천시 고암시장

■ 2022년 11월 현재 2016년 12월 대비 북한 공식시장 순증가는 -1개

- 2016년 당시 미확인(4개), 미식별(7) 시장을 반영하면 2016년 당시 실제 공식시장은 415개
- 2016년 실제 공식시장 수를 415개로 보고 2017년 이후 신설시장(7개) 및 폐쇄시장(8개) 등을 가감하면, 양적 순증가는 -1개로 파악

■ 2016년 조사 이후 현재까지 5년 10개월 사이 총량적으로는 1개 소폭 감소

나. 공식시장 변동 내용

■ 전체 시장 변동의 신규, 폐쇄, 이전, 확장, 축소 등의 총 건수는 116건

- 신규 7건, 폐쇄 8건, 이전 45건, 확장 38건, 축소 18건
- 신규 설치 및 확장 등 규모 확대 관련 건수는 45건
- 폐쇄나 축소 등 규모 감소 관련 건수는 26건
- 전체 시장 수의 순증가는 -1개이지만, 규모 확장은 활발하게 진행

표 II-2 북한 공식시장 도별 집계와 변동 내용

도	도 전체 합계		2016년 미반영분		2017~2022 변동 내용					
	2016	2022	미확인 반영	미식별 반영	신규	폐쇄	이전**	확장	축소	변동총계
평양직할시	30	31	1				4	1	1	6
평안남도	65	68		1	2		3	3	1	9
평안북도	51	50	1			2	7	9	2	20
황해남도	34	34					6	7	1	14
황해북도	29*	33		1	3		2	4	1	10
함경남도	48	48					5	1	4	10
함경북도	46	46		3	1	4	4	1	5	15
강 원 도	29	30		1			3	2	2	7
자 강 도	24	27	2		1		4	5		10
양 강 도	18	18					3	1	1	5
남포특별시	21	21					3	3		6
나선특별시	4	3		1		2				2
개성특별시	5*	5					1	1		2
계	404	414	4	7	7	8	45	38	18	116

* 2016년도 당시 황해북도(개성시 포함) 시장은 총 34개로 집계되었으나, 2022년 개성특별시의 통계를 별도 산출하면서 편의를 위하여 당시 개성시에 입지했던 5개의 시장을 분리하여 표기함.

** 이전은 이전확장, 이전축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및 축소와 중복 집계

출처: 필자 작성

■ ‘이전’ 총 45건 중 확장 이전은 26건, 축소 이전은 15건, 동일규모 이전 4건

- 축소 이전 건수 대비 확장 이전 건수가 약 2배로 확장 중심 이전 진행
- 전체 확장건수 38건 중 동일장소 확장 12건, 이전 확장은 26건으로 이전을 하며 확장하는 사례가 두 배 이상 많다는 것을 확인

표 II-3 전체 공식시장 이전 성격 구분

도	확장이전	축소이전	동일규모 이전	계
평양직할시	1	1	2	4
평안남도	2	1	—	3
평안북도	5	2	—	7
황해남도	5	1	—	6
황해북도	1	1	—	2
함경남도	1	4	—	5
함경북도	1	3	—	4
강원도	2	1	—	3
자강도	4	—	—	4
양강도	1	1	1	3
남포특별시	3	—	—	3
나선특별시	—	—	—	0
개성특별시	—	—	1	1
총계	26	15	4	45

출처: 필자 작성

■ 신규, 폐쇄, 이전, 확장, 축소 등 변동 내용이 가장 많은 도는 평안북도

- 평안북도 20건, 함경북도 15건, 황해남도 14건 순
- 변동 내용이 적은 순은 나선특별시·개성특별시 2건, 양강도 5건, 남포특별시 및 평양직할시 6건 순
- ‘확장’이 가장 많은 도 역시 평안북도(9건), 황해남도(7건)로 이 두 지역이 시장 확장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
- 동서 축으로 본다면, 서해안축은 67건, 동해안축은 34건으로 서해안 축에서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남.

다. 공식시장 도별 분포

■ 시·도별 평균 시장 수는 31.8개로 2016년 31.0개와 비교 시 변화 미미^{5/}

- 평양직할시(30→31)^{6/}, 남포특별시(21→21), 나선특별시(4→3)^{7/}도 변화 미미

표 II-4 북한 도별 공식시장 수

도	시·군	공식시장 수		도 전체 합계	
		2016	2022	2016	2022
평양직할시	평양시	24	25	30	31
	군 (2개)	6	6		
평안남도	평성시 (도소재지)	6	7	65	68
	안주시	3	3		
	개천시	9	10		
	순천시	3	4		
	덕천시	8	8		
	군 (14개)	33	33		
	운곡지구, 특장지구	2	2		
	청남구	1	1		
평안북도	신의주시 (도소재지)	6	6	51	50
	정주시	2	2		
	구성시	3	3		
	군 (22개)	40	39		
황해남도	해주시 (도소재지)	4	4	34	34
	군 (19개)	30	30		
황해북도	사리원시 (도소재지)	4	5	29	33
	송림시	3	3		
	군 (15개)	22	25		
함경남도	함흥시 (도소재지)	11	11	48	48
	단천시	4	4		
	신포시	4	4		
	군 (15개)	25	25		
	금호지구	1	1		
	수동구	3	3		

5/ 2016년 조사 당시에는 개성특별시가 분리되지 않아 도별 평균 시장 개수가 33.7개로 나타났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개성특별시를 분리하여 계산한 수치로 명기

6/ 2016년 조사 당시에도 삼석구역 공식시장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워 제외한 바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경계를 특정하여 면적에 포함.

7/ 나선특별시 선봉지구의 경우 홍수로 인해 이 일대 전체가 피해를 보면서 기존 2개의 시장이 유실

도	시·군	공식시장 수		도 전체 합계	
		2016	2022	2016	2022
함경북도	청진시 (도소재지)	19	22	46	46
	김책시	3	2		
	회령시	2	2		
	군 (12개)	22	20		
강 원 도	원산시 (도소재지)	4	4	29	30
	문천시	3	4		
	군 (15개)	22	22		
자 강 도	강계시 (도소재지)	2	3	24	27
	만포시	3	3		
	회천시	3	3		
	군 (15개)	16	18		
양 강 도	해산시 (도소재지)	5	5	18	18
	삼지연시	1*	1		
	군 (10개)	12	12		
남포특별시	구역	14	14	21	21
	군	7	7		
나선특별시	선봉지구	2	0	4	3
	나선지구	2	3		
개성특별시	동 (3개)	3	3	5	5
	군 (2개)	2	2		
총 개				404	414

* 2016년 당시 삼지연군 입지 시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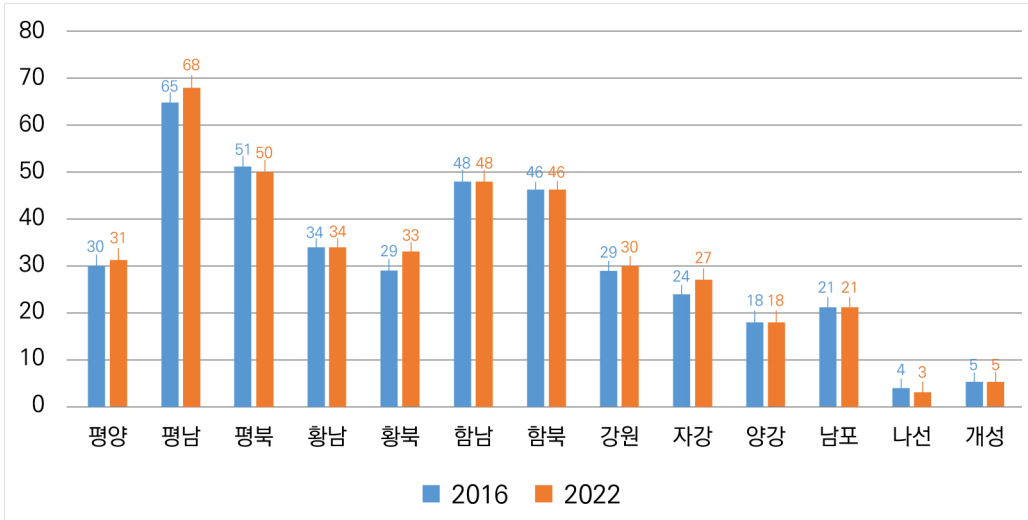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도별 시장 수 순위도시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시장 수 순위도시 순위 변화는 없고 황해북도 4개, 평안남도 3개, 자강도 3개, 평양직할시와 강원도 1개 씩 각각 증가
- 2016년과 동일하게 평안남도가 압도적 수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으며,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를 포함시키면 120개로 전체 시장의 29%가 입지
- 지리적으로 보면, 평안남도와 황해북도에서만 총 7개 증가했고 합치면 총 158개의 시장^{8/}이 입지, 전체 시장의 38%가 위치

^{8/}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 포함

그림 II-1 도별 시장 수위 2016년과 2022년 비교



출처: 필자 작성

■ 도별 공식시장 양적 분포의 의미

① 평안북도(신의주-단둥), 평안남도, 평양직할시,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물자 유출입선을 따라 시장 입지 집중 현상 여전

- 국경을 통한 국내 물자 유통선과 각 도별 시장 분포 사이 밀접한 상관성 재확인

② 도내 행정단위 수와 시장 수는 일정한 상관성

- 시장 분포 상위 5개 도(평남, 평북, 함남, 함북, 황북)는 각각 3~5개의 시(市)를 보유
- 공식시장이 행정단위를 기초로 해당 구역 내 주민의 편의를 명분으로 설치되는 만큼 행정단위 수와 지역 시장 수 사이의 일정한 상관성 확인

③ 인구수와 시장 수의 상관관계, 인구 수위 상위 5개 시·도(道)가 시장 수위 상위 차지

- 2008년도 북한인구조사에 기반하면 인구수는 평안남도, 평양직할시, 함경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황해북도 순^{9/}

9/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북한인구조계,” <<https://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2.10.31.).

- 상위 5개 도는 공장·기업소 노동자 인구가 풍부하고, 시장활동 인구층이 두텁게 형성

④ 서해안축 지역 중심의 시장 분포 현상 지속

- 평안남도(68개), 평안북도(50개), 황해남도(34), 황해북도(33개), 평양직할시(31개), 남포특별시(21개), 개성특별시(5개) 등 서해안축 4개 도 및 3개 특별시에 총 242개 시장 입지, 전체의 58.5%가 분포(2016년 235개)
- 반면, 동해안축 지역^{10/}은 127개로 30.7%로 입지
- 일제강점기 교통선 동서축 발달 초기 조건, 동서축 교통망을 따라 형성된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이동선, 동서해안 주요 항구로의 물자 이동 영향 등

라. 인구수와 시장 수

- 2008년 인구센서스 북한 인구 총계 23,349,859명^{11/}에 2022년 통계청 북한인구 추계 25,598,023명^{12/}을 반영하면 2008~2022년 사이 약 2,248,164명 증가
- 2016년 시장 1개당 인구수는 56,265명, 2022년 61,831명으로 5,566명 증가
 - 2016년 조사 당시 기준이 되었던 2008년 인구일제조사시 총 인구수를 시장 총 수인 415개(미식별 반영분)로 나눌 경우 시장 1개당 56,265명
 - 2022년 이번 조사는 북한인구 추계치인 25,598,023명을 414개로 나누면 시장 1개당 61,831명
 - 이 계산식으로 2016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산술적으로 2022년 현재 시장 1개당 5,566명을 더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2016년 조사 당시 2008년 인구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해 8년 사이의 인구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 1개당 감당하는 인구수는 약 2,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0/ 나선특별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11/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지역의 인구규모별 지역수와 인구수,” <<https://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2.10.31.).

12/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북한인구추계,” <<https://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2.10.31.).

- 전체적으로 두 시기 사이 인구는 추계상 224만 명 정도 증가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1개 감소
- 증가한 인구수만큼 시장이 양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각 시장의 시설규모 확대를 통해 늘어난 인구수를 소화하고 있다고도 해석 가능
- 한편 공식적인 종합시장 이외의 상품 소비·유통 방식의 다양화가 시장 수 증가 압박을 완충했을 가능성도 있음.

마. 시(市)별 공식시장 분포

표 II-5 북한 시·군 행정구역별 공식시장 수

구분	시			군	지구	구
	직할시	특별시	일반시			
행정구역 단위수	1	3	24	140 [144] ^{13/}	3[5] ^{14/}	2
시장개수	31(↑ 1)	29(↑ 4)	123(↑ 3)	223(↑ 2)	3	4
	183(↑ 8)					

주: 괄호는 2016년 대비 증감분

출처: 필자 작성

- 도(道) 이하 행정단위별 시장 증감을 보면, 시(市) 단위에서 8개가 증가하였고 군·지구·구 단위에서는 2개가 증가
 - 총 10개의 시장 증가분 중에 8개가 시에서 증가, 상대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거의 증가하지 않음. → 시 중심의 시장 수 증가 확인
- 북한 전국 28개 시(市)에는 평균 6.53개의 공식시장이 위치, 군(郡)에 평균 1.59개가 입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가량 많음.
 - 2016년 조사 당시 시 평균 6.52개와 유사, 군도 거의 변화 없음.

13/ 전체 군의 수는 144개이지만,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포함된 군 4개는 두 도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외하여 140개로 집계

14/ 전체 지구의 수는 5개이지만, 나선특별시에 속한 선봉지구와 나선지구는 나선특별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외하여 2개로 집계

표 II-6 북한 28개 도시별 시장 수

순위	시	합계	순위	시	합계
1	평양직할시	30 → 31		신포시	4
2	청진시*	19 → 22		순천시	3 → 4
3	남포특별시	21		문천시	3 → 4
4	함흥시*	11	11	만포시	3
5	개천시	9 → 10		희천시	3
6	덕천시	8		안주시	3
7	평성시*	6 → 7		구성시	3
8	신의주시*	6		나선특별시	4 → 3
9	개성시	5		송림시	3
	해산시*	5		강계시*	2 → 3
	사리원시*	4 → 5	12	김책시	3 → 2
10	해주시*	4		정주시	2
	원산시*	4		회령시	2
	단천시	4	13	삼지연시	1

* 도소재지

출처: 필자 작성

■ 시장 수 증가 도시 8개, 감소 도시 2개, 그 중 청진시에서 3개 증가로 최상위 도매시장 지위 확인

- 시장 수가 증가한 도시는 평양직할시, 청진시, 개천시, 평성시, 사리원시, 순천시, 문천시, 강계시 등 8개 도시인 반면, 감소한 도시는 나선특별시, 김책시 등 2개 도시
- 청진시는 3개 신설(미식별 포함)돼 가장 많이 증가, 청진시가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으로서 압도적 위상 강화
- 나선특별시의 경우, 2017년 북부수해 피해에 따라 시장 지대가 침수, 매물로 감소

■ 평양직할시 1개 증가로 압도적 1위 유지, 구역별 시장 입지 강화

- 평양시 행정구역 내 강동군, 강남군 등을 제외하면 도심에만 총 25개의 시장
- 구역이 총 18개¹⁵⁾가 있어 구역별로 시장 분포

- 강동군 강동시장은 인구 밀집에 비해 공간 확장이 제약돼 도심 외곽 하천변에서 도심 중심부로 이전
 - 강동군 상리시장은 중심부 주택지 개발에 따른 축소·이전
- 시장 수 상위 10위권 도시 중 7개 도시가 모두 서해측 해안과 내륙 입지
- 청진시, 함흥시, 혜산시 등 3개 도시를 빼면 7개가 모두가 서쪽 해안과 내륙 입지, 서해안 선을 따라 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패턴 확인
- 도소재지에 상대적으로 다수의 시장 입지, 전국 또는 지역 대표 도매시장 입지
- 시장 수 상위 10위권 17개 도시 중 도소재지 도시가 8개, 특별시와 직할시 포함 10개(전체 도소재지 도시 9개 중 8개가 10위권)
 - 도소재지 대부분이 교통의 요충지, 전통적 공업지역 거점 도시, 도와 시의 중요 정치·행정 기관이 밀집하여 각종 건설·시장·개발 관련 인허가권 발급이 수월
 - 기본적인 소비인구인 노동자 인구를 다수 보유
-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산간일수록 시장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
- 도시의 지리적 조건이 시장의 입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간지대는 △평지가 부족하고, △교통 연결이 용이치 않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규모 도매시장보다는 읍시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해안 인근 도시들은 평탄한 지형을 넓게 보유해 시장 입지와 부지 확장성이 크고 대체로 인구수도 많아 입지한 시장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15/ 낙랑구역, 대동강구역, 대성구역, 동대원구역, 만경대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사동구역, 삼석구역, 서성구역, 선교구역, 순안구역, 역포구역, 용성구역, 은정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형제산구역

2. 공식시장 면적 및 총매대수 추정

가. 시장 면적 추정

■ 전체 시장 면적은 2016년 대비 107,623㎡(32,556평) 증가 추정

- 전국의 시장 전체 면적은 1,944,642㎡(588,254평)으로 2016년 조사 당시 1,839,582㎡(556,474평)보다 105,060㎡(31,781평)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전국 공식시장 전체 면적은 한국의 여의도 면적(2.9km²)의 60%에 해당

표 II-7 북한 도별 공식시장 면적 추계

도	시장 수 (단위: 개)	전체면적(㎡) (2016년)	시장 1개당 평균면적 (단위: ㎡)	최대면적 (단위: ㎡)	최소면적 (단위: ㎡)
평양직할시	31	216,855 (207,202)	6,994(2,115평)	17,870 강동 강동시장	622 강동 상리구시장
평안남도	68	275,218 (240,917)	4,047(1,224평)	13,968 평성 주례시장	380 개천 용진시장
평안북도	50	220,468 (213,112)	4,409(1,334평)	13,828 정주 정주시장	804 삭주 수풍구시장
황해남도	34	224,774 (206,455)	6,611(1,837평)	21,303 해주 양사시장	956 배천 금곡시장
황해북도	33	173,219 (152,740)	5,249(1,590평)	15,568 송림 새마을	519 신계 역전시장
함경남도	48	249,672 (253,218)	5,202(1,596평)	16,721 함흥 평수시장	661 고원 부래산구시장
함경북도	46	215,951 (217,458)	4,694(1,429평)	30,887 청진 수남시장	100 청진 방진시장
강원도	30	100,362 (101,817)	3,345(1,012평)	15,052 원산 갈마시장	255 문천 성문시장
자강도	27	82,268 (63,573)	3,047(922평)	10,484 강계 독산시장	507 만포 문악시장
양강도	18	32,271 (31,499)	1,793(529평)	6,901 혜산 혜산시장	571 보천 보천시장
남포특별시	21	108,509 (103,061)	5,167(1,563평)	17,004 중대동시장	485 중앙구시장
나진특별시	3	21,350 (26,840)	6,710(2,029평)	16,869 신흥시장	1,700 지경시장
개성특별시	5	23,725 (21,691)	4,745(1,437평)	12,417 보선동시장	1,201 고려동시장
전국 합계	414	1,944,642* (588,254평) 1,839,582** (556,474평)	4,697 (1,420평)	[최대평균] 16,067* 15,083**	[최소평균] 674* 718**

* 2022년 수치 **2016년 수치

출처: 필자 작성

- 시장 전체면적 순위는 평안남도(275,218㎡), 함경남도(249,672㎡), 황해남도(224,774㎡) 평안북도(220,468㎡), 평양직할시(216,855㎡) 순으로 추계
 - 2016년에는 함경남도(253,218㎡)가 가장 넓었으며, 다음으로 평안남도(240,917㎡), 함경북도(217,458㎡), 평안북도(213,112㎡) 순
 - 평안남도가 시장 수 뿐만 아니라 시장 면적에서도 최상위 위상 차지
- 시장 1개당 평균 면적은 4,697㎡(1,420평)로 한국의 서울광장(13,207㎡)이나 잠실야구장(13,880㎡)의 1/3 면적
 - 2016년에 평균 4,630㎡(1,401평)로 사실상 시장 1개당 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최대 면적 시장은 청진시 수남시장(30,887㎡), 최소 면적 시장은 청진시방진시장(100㎡)
 - 각 도에 있는 최대 면적 시장들의 평균 면적은 16,067㎡(4,860평), 대지면적만 보면, 한국의 동대문시장(14,437㎡)보다 약간 큰 규모^{16/}
 - 북한 전국에 한국의 동대문시장 대지면적 규모 이상의 시장은 총 13개
 - 2016년 조사 당시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복층 형태의 시장을 전체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수는 늘어날 수 있음.
 - 최대면적 시장인 수남시장은 2016년 23,487㎡에 비해 30% 가량 면적 증가 추정
- 면적 상위 10개 시장
 -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수남시장(30,887㎡)
 - 황해남도 해주시 양사동 양사시장 (21,303㎡)
 - 평양직할시 강동군 강동시장 (17,870㎡)
 -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중대두동시장 (17,004㎡)
 - 나선특별시 신흥동 신흥시장 (16,869㎡)

^{16/} 건물 연면적으로 보면 동대문시장은 59,683㎡로 훨씬 넓으나 공간적 넓이 수준을 쉽게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대지면적으로 비교함.

- 함경남도 함흥시 평수동 평수시장 (16,721m²)
-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천진동시장(16,695m²)
- 황해남도 안악군 안악시장(16,239m²)
- 평양직할시 낙랑구역 통일거리시장(16,032m²)
- 황해북도 송림시 새마을동 새마을시장 (15,568m²)

나. 총 매대 수 추정

■ 전국 시장 매대 수 추정 방법

- 구글 어스 면적 계산
 - ① 평양직할시,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와 9개 도(24개 시, 3개 지구, 2개 구, 140개 군)의 173개 단위의 각 시장 위치를 구글어스 위성 이미지에서 확인
 - ② 173개 단위별(시·군·지구·구), 도별로 시장 수를 집계
 - ③ 구글 어스를 활용해 각 시장의 면적을 시장 울타리 기준으로 측정
 - ④ 매대 1개당 크기는 시장과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것을 모두 반영해 매대 수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⑤ 행정구역상 173개 단위를 임의로 4개 등급으로 분류, 각 등급에 해당하는 매대 평균 면적을 설정
 - ⑥ 시장 매대는 작게는 60cm, 크게는 110cm 정도로, 규모가 큰 도매시장일수록 매대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방 군 읍시장일수록 큰 것으로 조사

■ 각 시장의 규모를 4개 등급기준으로 분류, 매대 기준 사이즈 설정^{17/}

- 본 조사에서는 측정된 시장 면적을 기초로 각 시·군을 4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매대 크기(60cm, 70cm, 80cm)를 차등 적용하여 매대 수를 추산
- 1등급: 전국 단위의 유통망을 갖는 전국 규모의 도매시장, 대부분 도소재지 도시

17/ 분류 기준은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29~30의 기준을 따름.

- 2등급: 도시와 군을 묶는 지역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시장 입지 도시
- 3등급: 일반시로 인구규모에서 저위도시에 위치한 도시
- 4등급: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와 군에 해당하는 도시
- 해당 등급에 속하는 도시의 시장 전체 면적을 등급별 매대 1개 평균면적으로 나눠 총 매대 수 산출^{18/}
- 이렇게 산출된 총 매대 수를 기초로 시장 1개당 1일 장세 총액도 산출

표 II-8 북한 도시등급별 시·군·지구·구 행정구역 구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분류 항목 상세	전국 도매시장	지역 도매시장	일반 도시시장	일반 시·군단위 시장
	전국 단위 유통망	수위도시 대표시장	저위도시 대표시장	저위도시 소규모시장
	도소재지급	도소재지급	일반 도시	일반 도시 및 군
해당 도시	평양직할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정주시
	함경남도 함흥시	평안남도 순천시	평안남도 개천시	자강도 희천시
	함경북도 청진시	황해남도 해주시	개성특별시	함경남도 신포시
	강원도 원산시	나선특별시	자강도 강계시	황해북도 송림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양강도 혜산시	평안남도 안주시	강원도 문천시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남도 덕천시	자강도 만포시
	남포특별시		함경북도 김책시	양강도 삼지연시
			평안북도 구성시	군 (140개)
			함경북도 회령시	지구 (3) ^{19/}
				구 (2)
개수	7개	5개	9개	7 + 145 = 152개
매대 길이(1개)	60cm	70cm	70cm	80cm
매대 면적(1개)	1.4m ²	1.75m ²	1.75m ²	1.9m ²

출처: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 30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18/} 매대 크기에 보다 가까운 매대 지붕 면적을 측정하지 않고 울타리를 기준 면적으로 매대수를 측정하는 이유는 실제로 지붕 아래 매대 이외에도 시장 울타리 안에서 조밀하게 매대 장사가 이뤄지고 있어 지붕 아래 매대만 고려할 경우 실제 상황을 반영 못하게 됨. 한편을 지붕이 매대 라인별로 덮는 방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통으로 덮는 경우 매대별 측정이 불가능한 요인도 있음.

^{19/} 북한 행정구역상 지구는 총 5개로 나선지구, 선봉지구, 운곡지구, 득장지구, 금호지구 등이 있음. 여기에선 나선지구와 선봉지구를 나선특별시로 통합 계산하고 나머지 3개 지구만 독립적으로 계산하였음.

■ 추정 결과 북한 전체 공식시장 총 매대 수는 1,153,722개로 집계

- 2016년 조사 때 1,092,992개와 비교하면, 60,730개가 증가
- 9개 도와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나선특별시, 개성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매대 수는 88,748개로 2016년 91,083개에 비해 2,335개 감소한 것으로 추산^{20/}
- 공식시장 1개가 상대하는 인구 평균은 61,830명, 시장 1개당 평균 매대 수는 2,787개

표 II-9 북한 도별 공식시장 매대 수 추정

도	시장 수 (단위: 개)	전체면적(2016년) (단위: m ²)	시장 1개당 평균면적 (단위: m ²)	도 전체 매대 수 (단위: 개)	시장 1개당 매대 수 (단위: 개)
평양직할시	31	216,855 (207,202)	6,994(2,115평)	154,896	4,997
평안남도	68	275,218 (240,917)	4,047(1,224평)	157,566	2,317
평안북도	50	220,468 (213,112)	4,409(1,334평)	122,133	2,443
황해남도	34	224,774 (206,455)	6,611(1,837평)	120,106	3,533
황해북도	33	173,219 (152,740)	5,249(1,590평)	92,523	2,804
함경남도	48	249,672 (253,218)	5,202(1,596평)	146,949	3,061
함경북도	46	215,951 (217,458)	4,694(1,429평)	134,592	2,926
강원도	30	100,362 (101,817)	3,345(1,012평)	59,797	1,993
자강도	27	82,268 (63,572)	3,047(922평)	44,358	1,643
양강도	18	32,271 (31,499)	1,793(529평)	17,539	974
남포특별시	21	108,509 (103,061)	5,167(1,563평)	77,506	3,691
나선특별시	3	21,350 (26,840)	6,710(2,029평)	12,200	4,067
개성특별시	5	23,725 (21,691)	4,745(1,437평)	13,557	2,711
전국 합계	414	1,944,642* (588,254평)		1,153,722	
평균	31.8*	149,588*	4,697** (1,420평)	88,748*	2,787**

* 도별 평균 ** 개별 평균

출처: 필자 작성

^{20/} 단, 2016년에는 개성특별시가 황해북도에 포함되어있어 단순수치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매대 1개당 종사자 수 1인으로 가정하면, 북한 전체 공식시장 상인 총수는 1,153,722명

- 다만, 매대 당 2교대 형태를 고려하면 추가 요인이 있고, 코로나19 기간 한 칸 띄어 매대를 운영하는 거리두기 시장관리 등을 고려하면 감소 요인도 있음.

다. 공식시장 관련 종사자 추정

■ 매대 상인 이외에 시장관리소 관리 인력을 합하면 북한 공식시장 관련 종사자 수는 약 1,160,312명

- 2016년 조사 때 1,099,052명과 비교하면, 61,260명이 증가한 결과
- 이외에 공식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추정 자체가 힘들어 일단 배제

$$1,153,722\text{명(총 매대수)} + 6,590\text{명(시장관리소 인원)} = 1,160,312\text{명}$$

표 II-10 시장관리소 인력 추정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분류 항목 상세	전국 도매시장	지역 도매시장	일반 도시시장	일반 시·군단위 시장
	전국 단위 유통망	수위도시 대표시장	저위도시 대표시장	저위도시 소규모시장
	도소재지급	도소재지급	일반 도시	일반 도시 및 군
해당 도시	평양직할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정주시
	함경남도 함흥시	평안남도 순천시	평안남도 개천시	자강도 희천시
	함경북도 청진시	황해남도 해주시	개성특별시	함경남도 신포시
	강원도 원산시	나선특별시	자강도 강계시	황해북도 송림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양강도 해산시	평안남도 안주시	강원도 문천시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남도 덕천시	자강도 만포시
	남포특별시		함경북도 김책시	양강도 삼지연시
			평안북도 구성시	군 (140개)
			함경북도 회령시	지구 (3)
				구 (2)
개수	7개	5개	9개	7 + 145 = 152개
매대 길이(1개)	60cm	70cm	70cm	80cm
매대 면적(1개)	1.4m ²	1.75m ²	1.75m ²	1.9m ²
시장관리소 인원수	102(개)×30(명)= 3,060	21(개)×20(명)= 420	40(개)×15(명)= 600	251(개)×10(명)= 2,510
합계	6,590명			

출처: 필자 작성

- 2022년 북한 추계 인구 25,598,023명을 기준으로 보면, 공식시장 종사자 수 1,160,312명은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
 - 공식시장의 매대 장사는 주로 여성이 한다는 점에서 북한 전체 여성 인구(2022년 추계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 8.8%에 해당함.
 - 공식시장 외에 다양한 형식과 유형으로 확장돼 있는 시장활동을 고려하면 공식시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위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됨.
 - 공식시장 매대 상인과 관리소 종사자 외에도 자전거보관소, 짐보관소 등 공식적인 부가 인원 존재

Ⅲ. 북한의 시장 관리 체계와 시장사용료(장세) 추정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시장 관리 체계와 시장사용료(장세) 추정

- 이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
- 첫째, 북한의 전국적인 범위, 지역적인 범위에서의 시장 관리 체계를 분석
 - 현재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운용하는 공식 시장들은 각 시장에 꾸려져 있는 시장관리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용되고 있음.
- 둘째, 북한의 공식 시장에서 당국이 징수하고 있는 시장 사용료(이하에서 장세場稅 혹은 매대세와 병행해서 사용)^{21/}를 추정하여 그 규모를 계산
 - 시장관리소의 장세 담당 관리원이 거둔 장세는 지역 인민위원회를 통해 중앙으로 넘겨짐.^{22/}
 - 본 장에서는 지역별 장세의 규모와 시기별 장세의 추이를 분석하고, 전국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인도되는 장세 규모를 추정

1. 시기와 범위

가. 시기 분류

- 이 장에서 시장 관리 체계와 장세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임.

^{21/} 북한에서 ‘장세’는 공식시장의 ‘매대의 사용료’를 의미한다. 매대(賣臺)는 상인들이 공식시장에서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말한다.

^{22/}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 41.

- 본 연구는 2016년에 연구하여 발간한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에 이어서 진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의 시기를 연구 범위로 설정
 - 2017년에서 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기에, 시기 설정에 좀 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2019~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었고 2020년에 팬데믹 선포 이후 북한의 공식시장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기들을 세분화하여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
- 북한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보이자 2020년 1월에 가장 먼저 북쪽의 국경(북·중~북·러)을 봉쇄하였음.
- 2022년 5월 12일, 북한은 코로나의 국내 발병을 공식적으로 인정^{23/}하였고 각 지방의 도시와 시장을 봉쇄
 -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와 도시 및 시장 봉쇄는 북한의 시장 관리 체제, 시장의 매대 상황, 시장 사용료(장세 혹은 매대세)의 수준과 수거 상황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크게 8개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
- 코로나19가 발생·확산 이전인 2017, 2018, 2019년의 시기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이나 북한에서 확산되지 않은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1~5월의 시기
 -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시기로 공표한 2022년 5월 12일~2022년 8월^{24/}의 시기
 - 2022년 9월에서 현재(2022년 12월)에 이르는 시기

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2.5.12.

24/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2.8.11.

표 III-1 분석의 시기 구분

기준	시기
코로나19 발생·확산 이전 시기	2017~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이나 북한에서 확산되지 않은 시기	2020년 1월~2022년 5월
코로나19가 북한 지역에서 확산된 시기	2022년 6~8월
코로나19가 북한 지역에서 통제된 시기	2022년 9~12월

출처: 필자 작성

나. 시장 운영 시간 변화

- 위에서 분류한 시기에 따라 북한에서 공식 시장의 개장 및 폐장 상황이 달랐음.
 - 북한 당국은 2022년 5월 12일 코로나 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후 지역 봉쇄를 강화하면서 평양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종합시장을 폐쇄
 - 가령, 평양의 용흥시장은 5월 12일 이후 한 달 간 폐장^{25/}
- 2022년 6월에 들어와 북한 당국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통제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정기적으로 시장 운영을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개장을 허용하지 않음.
 - 평양 낙랑구역의 통일거리시장 및 모란봉구역의 안흥시장 등에서는 이틀에 한번 씩 개장^{26/}
 - 평성 옥전시장은 일주일에 3일 가량 시장 개장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임.^{27/}
 - 반면, 북·중 국경 지역에 인접한 도시들의 공식 시장은 개장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양강도 지역의 경우 종합시장은 정기적으로 개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됨.^{28/}

25/ “코로나 종식 선언 후 北 시장 운영시간 확대…민심 관리하나,” 『Daily NK』, 2022.8.19.

26/ “북한, 대도시 공식시장 통제 완화…주민 불만 의식했나?,” 『Daily NK』, 2022.6.7.

27/ 위의 글.

28/ 위의 글.

- 북한의 종합시장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정도 개장되었지만, 2022년 6월 당시 북한 전 지역에서 종합시장 개장 시간은 하루 2~3시간 정도로 통제되었으며, 오후 5~8시 혹은 오후 6~8시에 잠깐 동안 개장한 것으로 알려짐.^{29/}

2. 시장 관리 체계

- 현재 북한에서 작동하는 시장을 분석(북한 시장 정보 전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 구조를 접근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
- 여기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시장 구조, 시장의 작동, 시장의 운용 시스템과 운용 상황 등이 분석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거시적으로 규정하고 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경제 관리 체제 혹은 시장 관리 체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가. 시장 관리의 체계^{30/}

- 북한의 시장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제·관리됨.
- 상업관리국은 시장관리소장, 시장관리원 등의 임명권을 보유^{31/}
-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시장 관리 부서 역시 부재함.
- 그러나 2003년경 공식 시장이 인정되면서, 상업관리국에서 ‘시장관리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 직접 관리하기 시작함.^{32/}

29/ 위의 글.

30/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p. 41~43을 참조하여 작성함.

31/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 41.

32/ 위의 책.

- 북한의 시장관리 체계는 2003년 5월 5일에 내려진 「내각지시 제24호」와 「내각결정 제27호」로 공식화됨. 해당 문서는 시장에 대한 각각의 책임 기관을 규정함.
 - 시장의 명칭은, 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나 리의 지명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
 - 시장의 건설은, 〈시장표준설계〉에 기초하여 건설하도록 하였음.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가건설감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
 - 시장 건설 자금은, 해당 지방의 예산과 군중적 자금원천을 동원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재정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
 - 시장관리소를 조직하는 책임은 재정성,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
 - 시장사용료, 즉 장세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은 상업성, 재정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33/}
- 북한에서 상업관리를 조직적으로 책임지는 국가 최고 상위기관은 상업성. 각 도에는 상업국이 있고, 각 시에는 상업부, 그리고 각 군에는 상업과를 두고 관리가 이루어짐.
 - 상업성에서 상업관리소까지 이어지는 체계는 내각인 상업성 → 인민위원회 → 중앙도매소(총괄 관리), 지구 도매소, 상업관리소 등의 체계로 이루어짐.
 - 상업관리소에 설치된 부서에는 상업과, 계획과, 부기과(재무회계과), 원료과(원료기지과), 운수과, 보수과 등이 있음.
 - 이 중에서 상업과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상업과는 해당 관할 시에 할당된 물품을 받아와서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거나 매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상업과 산하에는 상점, 창고(4호창고, 10주야 창고포함)^{34/} 등이 있음.

33/ 위의 책, pp. 41~42.

34/ 북한에는 각 도, 시, 군에서 관리하는 (전시용) 예비물자 창고가 있음. 2호창고에는 전시용 예비식량, 4호창고에는 전시용 의약품과 생필품, 5호창고에는 재난대비용 식량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0주야창고는 전쟁시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 공급할 생활 물자를 비축해두는 곳.

나. 시장관리소의 구조

- 북한의 시장 관리에서 지시 하달 체계는 중앙당 → 상업성 → 상업성 →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및 상업관리국 → 시장관리소로 구성됨.^{35/}
- 시·군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은 지역 내 시장 및 시장관리소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모두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시장관리소 임원 선출임.
 - 시장관리소 임원 선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초급당위원회의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36/}
- 북한 당국은 2004년 「재정성 지시 제30호」를 통해 “시장관리소 재정관리 세칙”을 발표
 - 공식 시장인 종합시장에서 기관, 기업소가 운영하는 매장과 개인 매장 등에서 시장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장세를 징수하기 시작함.
 - 제1조에 따르면, 이 지시는 시장관리소들에서 재정 관리를 개선하여 기관, 기업소들이 운영하는 매대와 주민들 속에서 이루어진 소득의 일부, 시장사용료를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제2조에는 이 세칙이 전국의 시장관리소들과 시장 안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협동농장, 농장 포함)와 승인된 개별적인 봉사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음.^{37/}
- 「재정성 지시 제30호」에는 흥미롭게도 종합시장의 품목당 장세가 명시되어 있음.
 - 곡물 100원, 채소(남새) 80원, 의복 120원, 해산물 200원, 전자기기 250원, 구두(국산/수입) 200/400원, 고기류 250원 등으로 규정^{38/}

35/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 42.

36/ 위의 책, pp. 42~43.

37/ “[북한읽기]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장세, 무엇이 문제인가?,” 『Daily NK』, 2019.12.6.

38/ 위의 글.

- 이를 2019년 종합시장 장세 현황과 비교해 보면, 금액 차이가 크게 존재. 2019년(평성시장 기준)에는 곡물 3000원, 채소(남새) 2400원, 의복 3600원, 해산물 6000원, 전자기기 7500원, 구두(국산/수입) 6000/12000원, 고기류 7500원 등의 수준^{39/}
- 북한 각 시, 군의 시장 관리는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 산하 시장관리소가 맡고 있음.
 - 「내각결정 제27호」의 제30조에 따르면, “시장 안에서 상품판매와 관련된 단속, 통제 사업은 시장관리소 일꾼들이 하며 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행위들에 대한 단속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의 시장담당 보안원이 한다. 시장 밖에서 장사행위에 대한 단속 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검열단속 통제기관이 한다”고 되어 있음.^{40/}
- 북한 전역의 시장관리소 구성원은 대개 다음과 같음.
 - 시장관리소장: 행정업무 전반을 책임
 - 출납원 혹은 부기원: 부기 혹은 은행거래 담당 및 비서 업무
 - 시장 관리원: 담당 시장과 매장 관리(지역에 따라 장세 관리원 업무도 병행)
 - 장세 관리원: 장세 집금(지역에 따라 시장 관리원 업무도 병행)
 - 자전거 보관원: 시장관리소 내 자전거 보관 업무
 - 창고 보관원: 시장관리소 내 창고의 짐 보관 업무
 - 시장 경비원: 시장 경비
 - 그 밖에도 단속원(시장 내 질서 관리·감독·통제) 및 담당보안원(시장 내 보안 업무)도 존재^{41/}
- 2022년 현재, 평양의 경우, 시장관리소는 소장, 관리원, 위생실 출입통제원, 짐보관 관리원, 자전거 관리원 등 총 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9/ 위의 글.

40/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p. 44.

41/ 위의 글, p. 44.

- 함경북도 나선의 경우, 소장, 관리원, 짐보관 관리원, 자전거 관리원 등 총 23명
- 자강도 강계의 경우, 소장, 관리원, 짐보관 관리원, 자전거 관리원 등 총 16명 등으로 지역과 시장 규모에 따라 다름.^{42/}

다. 시장관리 체계의 현황: 2020년 전후

- 북한은 2020년 10월 19일에 내각의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시장 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이하, 2020년 지시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43/}
 - 2020년 지시문은 시장에 대한 당적 관여와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
 - 전국의 각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와 시장관리소로 지시문이 하달, 도 인민 위원회들에서는 2020년 11월 1일에 해당 지시문을 접수^{44/}
- 2020년 지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45/}
 - 첫째, 해당 지역에서 시장의 설치와 폐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 도, 시, 군 인민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내각에 보고
 - 둘째, 매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또한 상품의 품목을 확대 하는 것도 각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의 권한
 - 셋째, 특이하게도 ‘시장에 당 조직이 개입’하도록 규정함. 이전에는 인민위원회 상업부 만이 시장에 관여하였고 당 조직은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2020년 지시문은 ‘시장에 대한 당적 관리와 당적 통제’를 규정, 조직부 선을 통해 중앙당으로 동시에 보고하는 체계를 세우도록 하였고, ‘당 중앙의 영도 체계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인민 시장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42/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43/ “새로운 시장관리운영 규정 내려와....‘당이 시장경제 장악·통제,’” 『Daily NK』, 2020.11.3.

44/ 위의 글.

45/ 본 문단의 내용은 “새로운 시장관리운영 규정 내려와....‘당이 시장경제 장악·통제,’” 『Daily NK』, 2020.11.3.에 보도된 [새로운 시장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를 토대로 작성

- 넷째,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와 당위원회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
 - 먼저, 양자가 논의하여 시장의 개장 및 폐장 시간을 지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개장 및 폐장 시간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 도, 시, 군의 특성과 시기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양자가 합의하여 시장 상품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설정하라고 지시함. 특히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범위를 벗어나 제멋대로 가격을 올려 물품을 유통하는 이들에게 준법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할 것을 지시함.
 - 다섯째, 국산품이 아닌 수입산 물품들의 장세 인상
 - 여섯째, 농민시장으로서의 본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농산물, 식료품,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되, 시장의 국산화를 일률화하지 말며 유무상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시문에 언급
 - 일곱째, 시장의 규모와 도시 인구 분포에 따라 시장사용료나 국가납부금을 재구성해서 예산집행에 포함하도록 지시
- 북한 당국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내각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돼왔던 시장 시스템을 국가의 계획지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이를 위해 내각 산하의 국가품질감독국과 상업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음.^{46/}
- 국가품질감독국의 관할 대상을 국영기업소에서 개인 사업체와 봉사 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모든 상업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기존에는 국가 품질감독국 하위기관인 품질감독소가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품질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인이 만든 수공업 제품까지 관리·통제할 수 있게 하였음.^{47/}
 - 시장을 통한 조세 수입을 확대하고, 시장 운영 체계를 내각의 관리 감독 하에 두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핵심 목적은 내각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임.^{48/}

46/ “코로나 사태 후 1년 넘게 장세 변동 無…북한, 상인 불만 의식?,” 『Daily NK』, 2021.8.16.

47/ “北 시장 금지?… “NO! 관리·감독 강화로 재정 확충 노린다,” 『Daily NK』, 2021.3.11.

48/ 위의 글.

- 또한 시장과 관련하여 특이한 시도들도 나타남.
 - 대표적인 것이 2021년에 종합 시장과 전문 시장을 구분하려는 시도였음. 이는 시장 및 상업 활동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 중의 하나임.^{49/}
 - 2021년 5월 중순에 국가계획위원회가 전문 시장화 추진을 발의하여, 현재의 종합 시장을 농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으로 세분화 시키고자 함.^{50/}
 - 이는 종합 시장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고, 거래 품목을 세분화하여 시장에서 이뤄지는 상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전반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51/}
 - 전문 시장화는 아직 실현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장세 차등화는 시행되는 것으로 보임. 종합 시장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장세를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국산품 중에서도 개인 수공업자 생산품과 기업소 생산품에 장세를 차등화하여 부과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차등화는 당연히 당국으로 징수 되는 장세의 확대로 연결됨.^{52/}
- 2021년 모든 상업기관과 생산, 유통, 판매 전 영역에 걸친 통제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통일적 지휘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임.^{53/}
 - 『로동신문』은 내각의 국가품질감독국이 품질 감독 체계 정비 보강에 나섰음을 보도
 - “모든 상업, 급양 봉사 기관들이 해당 지역 품질감독 기관의 감독 통제 하에서 활동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문제도 포함되어있다”며, “제품의 설계와 생산, 검사와 판매에 걸치는 품질관리의 전 공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드세게 짜고 들어야 한다”고 언급^{54/}

49/ “북한, 전문시장 전환 논의했지만 결국 백지화…장세는 확대될 듯,” 『Daily NK』, 2021.6.7.

50/ 위의 글.

51/ 위의 글.

52/ 위의 글. 2021년 3월 현재, 시장관리소는 조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평양, 신의주 등 대도시에 위치한 주요 시장에서 화장실 이용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화장실 사용 비용은 1회에 북한 돈 5원인데, 버스표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음. “北 시장 금지?... “NO! 관리·감독 강화로 재정 확충 노린다”, 『Daily NK』, 2021.3.11.

53/ “품질감독사업을 혁신해나갈 새로운 결의 안고,” 『로동신문』, 2021.2.1.

54/ 위의 글.

- 또한 내각의 상업성 중심의 통일적 지휘 체계를 강화하여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및 국가 재정 확충을 동시에 추진^{55/}
- 시장관리소의 통제 항목 및 장세의 세분화와 확장을 통하여 준조세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 수립^{56/}
- 내각 상업성에서 도 상업국, 시·군 상업과, 각 지역 시장관리소로 이어지는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57/}

3. 최근 장세의 동향

- 북한의 장세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굴곡을 보여주었음. 장세의 추이가 일관성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변화 하기도 했고, 같은 시기인데도 지역별로 장세의 인상과 인하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음.

가. 매대 가격 동향

- 현재 북한 공식 시장의 매대는 판매 대상
 - 시장관리소는 매대를 상인들에게 판매하는데, 그 가격은 시기, 지역, 취급 상품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매대를 구매하는 것과 장세를 내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매대를 구매한 상인은 따로 매일 시장관리원에게 장세를 내야 함.
 - 한 탈북자는 “국가에서 매대를 사 장사했다 … 나라에 낸 돈과는 별개로 매일 오후 5시경에 시장관리원에게 자릿세를 또 내야 한다”고 언급^{58/}

55/ “北 시장 금지?... “NO! 관리·감독 강화로 재정 확충 노린다,” 『Daily NK』, 2021.3.11.

56/ 위의 글.

57/ 위의 글.

58/ “김정은 시대의 '시장화'...” 국가에서 매대 사거나 집 마당에서 장사,” 『오마이뉴스』, 2020.2.14.

- 공식시장의 매대는 엄연히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인들끼리 사고파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대는 상인들 사이에 거래되는 금액의 상품 중 하나임.
 - 2014년 함경북도 셋별군의 매대는 약 1,000위안,^{59/} 2015년 양강도 혜산시장의 매대는 1,800위안에서 4,500위안 정도(이는 당시 북한돈으로 235만원에서 590만원에 이르는 금액), 2.5m 정도의 공업품 매대는 4,500위안, 1.5m 정도의 수산물 및 잡화 매대는 1,800위안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60/}
- 2021년 함경북도 청진시의 공식 시장에서는 시장관리소로부터 매대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이 약 3만 위안, 한화로는 약 510만 원 정도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봉쇄되자 상인들이 매대를 15,000원 정도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음.^{61/}
- 한편, 북한 당국은 2022년에 들어와 상인별 매대 개수 조사를 실시
 - 2022년 9월 말부터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상인별 매대 개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시장관리소가 아니라 도 인민위원회 상업국에서 매대 개수를 조사, 매대 2개를 소유하고 있는 상인은 매대 1개를 무조건 내놓도록 하였음.
 - 도 인민위원회가 직접 나선 이유는 도 당위원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매대를 무상으로 나누어줄 것을 결정했기 때문임.^{62/}

59/ “北, 국경지역 장마당에 가보니...”매대 1,000위안에 거래,” 『CBS노컷뉴스』, 2014.5.10., 재인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월 국내매체 보도 동향,” < <http://www.krei.re.kr/krei/downloadBbsFile.do?atchmnfNo=40773> > (검색일: 2022.11.30.).

60/ “北시장관리소, 매대 양도 허용...1800~4500위안 거래,” 『Daily NK』, 2015.5.12.

61/ “코로나 여파에 매대 팔기 나선 北 시장 상인들...품목 바꾸기도,” 『Daily NK』, 2021.1.13.

62/ “혜산시 장마당서 상인별 매대 개수 조사...2개 이상이면 몰수,” 『Daily NK』, 2022.10.4.

나. 장세의 동향

(1) 2019년의 장세 동향

-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기 이전인 2019년 5월, 북한은 전국 공식 시장의 장세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 2019년 초까지 전국 장세 평균은 대략 전자제품과 고기 매대는 1,500~2,000원, 공업품(옷) 매대는 1,000~1,500원, 음식·남새 매대는 500~1,000원을 징수^{63/}
 - 2019년 5월 경, 1,000~2,000원의 곡물 매대 장세가 3,000원으로 약 2배 인상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였음.^{64/}
 - 당시 북한 당국은 대북 제재로 인하여 상품 수입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를 취급하는 상인들의 수도 다소 감소하자 시장으로부터의 세액을 보전하기 위해 장세를 인상한 것으로 보임.^{65/}
- 2019년 7월, 양강도 지역 일부 종합시장에서는 오히려 장세를 인하하기도 하였음.
 - 보천군, 신파군, 김형직군 등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 시장에서 장세를 인하하였는데, 원래 이 지역들은 장세가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편이었음.
 - 공업품은 1,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500원으로, 음식 매대와 아이스크림 매대의 장세는 500원에서 각각 300원, 200원으로 인하^{66/}
- 2019년 8월에는 시장관리소들이 당의 방침을 집행한다면서 관리원을 동원, 시장 밖에서 장사 활동을 하는 장사꾼에게도 장세를 받기 시작^{67/}

63/ “북한 일부 시장 장세 인하 조치…보천군 의류 매대 50% 인하,” 『Daily NK』, 2019.7.23.

64/ “코로나 사태 후 1년 넘게 장세 변동 無…북한, 상인 불만 의식?,” 『Daily NK』, 2021.8.16.

65/ 위의 글.

66/ “북한 일부 시장 장세 인하 조치…보천군 의류 매대 50% 인하,” 『Daily NK』, 2019.7.23.

67/ “[북한읽기]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장세, 무엇이 문제인가?,” 『Daily NK』, 2019.12.6.

(2) 2020~21년의 장세 동향

- 북한 당국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시장 시스템을 국가의 계획지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도
 - 그 내용은 ‘내각 산하의 국가품질감독국과 상업성의 역할을 강화해 모든 상업 기관을 국가 통제하면서 동시에 시장관리소의 감독 항목을 세분화해 다양한 명목의 장세를 확대’한다는 것
 - 하지만 이러한 장세 확대 계획은 시행이 어려워졌음.
 - 왜냐하면, 시장에 나와도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 매출이 없는데 장세까지 올리니 불만이 높았고, 별이가 낮아진 만큼 오히려 국가에서 장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반발이 존재했기 때문임.^{68/}
- 특히 2020년 1월 ‘국경 봉쇄’ 이후 수입품 유통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중국산 공산품을 취급하던 상인들이 품목을 변경해 근근이 장사를 이어오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이 시기에는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장세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상인들이 국산 잡화나 식료품으로 품목을 변경했을 경우 시장관리소가 거둬들이는 세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리하여 2021년에 북한 당국은 다시 장세 인상을 시도했으나 극심한 경제난과 주민들의 생활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69/}
- 코로나19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시장의 매대를 팔려는 상인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존재함.
 - 김정은 위원장이 삼중고(코로나19, 자연재해, 대북 제재)를 토로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 공식시장과 상인들 또한 이 시기에 상당한 난항을 겪음.

68/ “코로나 사태 후 1년 넘게 장세 변동 無…북한, 상인 불만 의식?,” 『Daily NK』, 2021.8.16.

69/ 위의 글.

- 특히 매대 상인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시내뿐 아니라 시장이 봉쇄되면서 장사를 못하게 되자 매대를 파는 경우도 늘어났음.
-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시기를 전후에 청진시에서는 매대 상인들이 매대를 팔려고 내놓은 사례가 나오고 있음.^{70/}

다. 짐 보관료 등의 동향

- 북한 당국은 전국의 시장관리소에서 짐 보관 비용(짐 보관세)을 별도로 징수
 - 자강도 강계 시장의 경우, 짐 보관 비용을 당일권, 일주일권, 한달권 등으로 나누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71/}
 - 당일권은 짐의 부피와 개수에 따라 5만 원부터 시작, 부피가 크고 값이 비싼 공업품은 상인들이 매일 들고 다닐 수 없어 한 달 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며 고액결제를 하는 경우 일부 할인을 적용해 주기도 함.^{72/}
- 2022년 평양시의 경우, 짐 보관료는 1일 기준으로 일반 군대 배낭(15kg) 기준 4,500원이며, 자전거 보관료는 1시간 기준으로 2,000원(1시간 경과 시 시간당 500원의 추가 요금 부과)이며 후불로 징수^{73/}
 - 모든 비용을 월 단위로 한 번에 납부 가능하며, 외화로도 납부 가능함. 이 경우 당일 날의 환율(시장 환율)에 따름.^{74/}

라. 매대의 간격 변화

- 코로나19 이후 장세 동향에서 중요한 특징은 매대 간격의 조정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의 매대 간격을 넓히는 조치를 취하였음.^{75/}

70/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시장의 매대 구입 가격과 매대 판매 가격이 노출되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코로나 여파에 매대 팔기 나선 北 시장 상인들…품목 바꾸기도,” 『Daily NK』, 2021.1.13.

71/ “코로나로 시장 통제 잦아지자 최근 1년새 장세 2배로 인상,” 『Daily NK』, 2022.9.5.

72/ 위의 글.

73/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74/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75/ “북 주민, 장마당 매대 격일제이용조치에 반발,” 『RFA』, 2021.4.27.

- 2021년 4월 19일부터 평안남도 성천군에서는 장마당 매대들을 1m 간격이 유지되도록 매대 자리를 재배치함. 장마당이 코로나 방역에 취약하다는 방역 당국의 지적에 따라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임..
- 당초 매대를 공사할 때 장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하여 매대 사이 간격을 0.5m로 비좁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0.5m에서 1m로 매대 간격을 넓히면서 매대에서 상인이 쫓겨나는 결과가 초래됨.
- 결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시장관리소에서는 0.5m 간격으로 앉아 있던 상인들을 한 사람 건너 한 명씩 쫓아내고 매대 간격을 1m로 보장하는 대신 한 매대를 두 명이 이틀에 한 번씩 번갈아 이용하도록 조치함.^{76/}
- 한편, 평안북도 신의주 종합시장들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1m 간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규찰대’가 단속을 하며 이 단속에 걸리면 벌금(북한돈 5,000원)을 물어야 하는 등 통제를 강화함.
- 신의주에서도 매대 하나를 두 명의 상인이 번갈아 격일제로 이용하도록하는 조치가 취해짐.^{77/}

마. 시·도별 매대 수와 전국 매대 수

- 2022년 현재 북한에서 운용되는 공식시장의 매대 수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측

표 Ⅲ-2 공식시장 매대 수(추정)

(단위: 개, %)

지역	매대수	비율
평양직할시	154,896	13.4
평안남도	157,566	13.7
평안북도	122,133	10.6
황해남도	120,106	10.4
황해북도	92,523	8.0

^{76/} 위의 글.

^{77/} 위의 글.

지역	매대수	비율
함경남도	146,949	12.7
함경북도	134,592	11.7
강원도	59,797	5.2
자강도	44,358	3.8
양강도	17,539	1.5
남포특별시	77,506	6.7
나선특별시	12,200	1.1
개성특별시	13,557	1.2
전국 매대수	1,153,722	100

출처: 필자 작성

- 북한 전역의 공식시장에서 운용되는 매대의 수를 합한 수치는 대략 115만 3,722개 정도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 평안남도가 15만 7,566개로 가장 많은 수의 매대(13.7%) 차지.
- 양강도가 1만 7,539개로 가장 적은 수의 매대(1.5%) 차지.
- 도시별로는 평양직할시가 15만 4,896개로 도와 시를 합하여 2위(13.4%)를 차지하여 다른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대 수가 많음.
- 평양직할시, 평안남도, 남포특별시, 평안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4%로 북한 전역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장세 계산 및 추정

- 시장 사용료, 장세 혹은 매대세에 대한 규정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됨.
- [내각지시 제24호]에서는 “상업성, 재정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시장 사용료를 매대 면적과 위치를 고려하여 정하고 매일 시장관리소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규정함.^{78/}
- “시장 사용료는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가 발급한 전표를 통해서 징금”함.^{79/}

^{78/}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 49.

^{79/} 위의 책, p. 49.

-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 「재정성 지시 제30호」의 “시장관리소 재정관리 세칙”에서 시장사용료라는 명목의 장세를 규정하였음.^{80/}

가. 장세의 계산 방법

■ 첫째, 도시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

표 III-3 장세 계산을 위한 도시 등급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단위 매대 길이 (면적)	60cm (1.4m ²)	70cm (1.75m ²)	70cm (1.75m ²)	80cm (1.9m ²)
해당 도시	평양직할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정주시
	함경남도 함흥시	평안남도 순천시	평안남도 개천시	자강도 희천시
	함경북도 청진시	황해남도 해주시	황해북도 개성시	함경남도 신포시
	강원도 원산시	나선특별시	자강도 강계시	황해북도 송림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양강도 해산시	평안남도 안주시	강원도 문천시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남도 덕천시	자강도 만포시
	남포특별시		함경북도 김책시	양강도 삼지연시
			평안북도 구성시	군(140개) 지구(3) 구(2)
			함경북도 회령시	
도시 수	7개	5개	9개	7+145 =152개

※ 평양, 남포, 나선, 개성에 소속된 군은 해당 도시의 등급으로 계산

출처: 필자 작성

■ 둘째, 도시 등급에 따라 단위 매대 길이를 달리하여 결정

- 1등급 도시의 시장 매대의 평균 길이 = 60cm, 면적 1.4m²으로 결정
- 2등급 도시의 시장 매대의 평균 길이 = 70cm, 면적 1.75m²으로 결정
- 3등급 도시의 시장 매대의 평균 길이 = 70cm, 면적 1.75m²으로 결정
- 4등급 도시(군, 지구, 구 포함)의 시장 매대의 평균 길이 = 80cm, 면적 1.9m²으로 결정

■ 셋째, 각 시장의 매대 수를 계산

- 구글어스(Google Earth)에서 해당 지역의 시장 면적을 측정

^{80/} 세부 내용은 본 보고서의 p. 52~53 참조.

- 측정된 시장 면적 ÷ 해당 도시의 등급에 따른 단위 매대 면적 = 매대 수

■ 넷째, 기준 장세를 계산

- 각 시장의 총 장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 장세’를 결정
- 기준 장세는 4개 등급의 도시 등급을 구분하여 계산
 - 1등급 도시는 [평양직할시시 중구시장]을 기준
 - 2등급 도시는 [나선특별시 신흥시장]을 기준
 - 3등급 도시는 [자강도 강계시장]을 기준
 - 4등급 도시는 [평안북도 정주시장]을 기준
- 기준 장세는 8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계산.
 - 코로나19 이전: 2017, 2018, 2019년
 - 코로나19 이후: 2020, 2021, 2022년 1~5월
 - 코로나19 확산 시기: 2022년 6~8월
 - 코로나19 통제 시기: 2022년 9월 이후

표 III-4 등급별 기준장세 추산치

		1등급 도시	2등급 도시	3등급 도시	4등급 도시
		평양시 중구시장	나선시 신흥시장	자강도 강계시장	평안북도 정주시장
코로나19 이전	2017	최대 3,000원 최소 1,100원	최대 3,000원 최소 1,000원	최대 2,800원 최소 1,000원	최대 2,600원 최소 1,000원
	2018	최대 3,500원 최소 1,200원	최대 4,000원 최소 1,100원	최대 3,200원 최소 1,000원	최대 3,000원 최소 1,100원
	2019	최대 4,000원 최소 1,300원	최대 4,500원 최소 1,200원	최대 4,000원 최소 1,200원	최대 3,500원 최소 1,200원
코로나19 이후	2020	최대 5,000원 최소 1,600원	최대 5,000원 최소 1,500원	최대 5,000원 최소 1,500원	최대 4,200원 최소 1,300원
	2021	최대 5,500원 최소 1,700원	최대 5,200원 최소 1,600원	최대 5,500원 최소 1,500원	최대 5,000원 최소 1,400원
	2022 1~5월	최대 6,000원 최소 1,800원	최대 5,500원 최소 1,700원	최대 6,000원 최소 1,600원	최대 5,000원 최소 1,500원
코로나19 확산 시기	2022 6~8월	최대 6,000원 최소 1,800원	최대 6,000원 최소 2,000원	최대 6,500원 최소 2,000원	최대 6,000원 최소 1,600원
코로나19 통제 시기	2022 9~12월	최대 6,000원 최소 1,800원	최대 6,500원 최소 1,700원	최대 5,800원 최소 1,600원	최대 5,000원 최소 1,500원

출처: 필자 작성

■ 다섯째, 시장 환율에 따른 장세를 계산^{81/}

- 시장 환율은 평양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

표 III-5 연도별 1\$ 환율 기준 금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5월 중순	2022년 6~8월	2022년 9~12월
8,089원	8,253원	8,236원	8,400원	6,000원	6,500원	7,350원*	8,150원**

* 6월(6,500원)과 8월(8,150원)의 평균치

** 9월(8,200원)과 10월(8,100원)의 평균치

출처: 필자 작성

나. 장세 추정치 계산

(1) 전국 장세(합계) 추정치, 1일 기준

표 III-6 1일 기준 전국 장세(합계) 추정치

(단위: 북한 원)

시기	세부	장세(합계) 추정치		비고
코로나19 이전	2017년	최대	3,098,560,687	
		최소	1,168,740,808	
	2018년	최대	3,590,082,153	
		최소	1,284,065,925	
	2019년	최대	4,172,143,222	
		최소	1,399,391,042	
코로나19 이후	2020년	최대	5,051,117,523	
		최소	1,573,993,173	
	2021년	최대	5,892,259,970	
		최소	1,685,752,538	
	2022년 1~5월	최대	6,019,484,113	
		최소	1,802,831,577	
코로나19 확산 시기	2022년 6~8월	최대	6,919,506,992	2022년도 추정치 최대: 6,322,350,520 최소: 1,836,264,778
		최소	1,903,131,179	
코로나19 통제 시기	2022년 9~12월	최대	6,028,060,456	
		최소	1,802,831,577	

출처: 필자 작성

81/ 2017~19년의 북한 시장환율은 최지영,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KINU Insight, 2021, No. 3, p. 4,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beeba32d-b8df-4af2-84e3-1c753d73d797>> (검색일: 2022.10.31.)을 참조. 2020~21년의 북한 시장환율은 정승호, “2021년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의 추세와 특징,”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월호, p. 12를 참조. 2022년의 북한 시장환율은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https://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 (검색일: 2022.12.12.)를 참조.

■ 2017~2019년 장세

- 2017년
 - 1일 최대: 3,098,560,687원 (30억 9,856만 687원)
 - 1일 최소: 1,168,740,808원 (11억 6,874만 808원)
- 2018년
 - 1일 최대: 3,590,082,153원 (35억 9,008만 2,153원)
 - 1일 최소: 1,284,065,925원 (12억 8,406만 5,925원)
- 2019년
 - 1일 최대: 4,172,143,222원 (41억 7214만 3,222원)
 - 1일 최소: 1,399,391,042원 (13억 9939만 1,042원)

표 III-7 2017~2019년 장세 추정치

연도	기준	추정치		시장환율 (평양기준)
2017년	1일 장세	최대	38만 3,058 \$	1\$ = 8,089원
		최소	14만 4,485 \$	
	1개월 장세 ^{82/} (최대추정치)	995만 9,508 \$		
	1년 장세 (최대추정치)	1억 1,951만 4,096 \$		
2018년	1일 장세	최대	43만 5,003 \$	1\$ = 8,253원
		최소	15만 5,587 \$	
	1개월 장세 (최대추정치)	1,132만 3,078 \$		
	1년 장세 (최대추정치)	1억 3,587만 6,936 \$		
2019년	1일 장세	최대	50만 6,573 \$	1\$ = 8,236원
		최소	16만 9,911 \$	
	1개월 장세 (최대추정치)	1,317만 923 \$		
	1년 장세 (최대추정치)	1억 5,805만 1,079 \$		

출처: 필자 작성

^{82/} 1개월 장세 추정치를 계산할 때, 1일 장세 × 26으로 계산함. 일주일에 한 번 시장이 휴장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이하도 동일하게 계산함.

■ 2020년~2022년 5월 장세

- 2020년
 - 1일 최대: 5,051,117,523원 (50억 5,111만 7,523원)
 - 1일 최소: 1,573,993,173원 (15억 7,399만 3,173원)
- 2021년
 - 1일 최대: 5,892,259,970원 (58억 9,225만 9,970원)
 - 1일 최소: 1,685,752,538원 (16억 8,575만 2,538원)
- 2022년 1~5월
 - 1일 최대: 6,019,484,113원 (60억 1,948만 4,113원)
 - 1일 최소: 1,802,831,577원 (18억 283만 1,577원)

표 III-8 2020년~2022년 5월 장세 추정치

연도	기준	추정치		시장환율 (평양기준)
2020년	1일 장세	최대	60만 1,323 \$	1\$ = 8,400
		최소	18만 7,380 \$	
	1개월 장세 ^{83/} (최대추정치)	1,563만 4,411 \$		
	1년 장세 (최대추정치)	1억 8,761만 2,936 \$		
2021년	1일 장세	최대	98만 2,043 \$	1\$ = 6,000원
		최소	28만 958 \$	
	1개월 장세 (최대추정치)	2,553만 3,216 \$		
	1년 장세 (최대추정치)	3억 639만 7,518 \$		
2022년 1~5월	1일 장세	최대	92만 6,074 \$	1\$ = 6,500원
		최소	27만 7,358 \$	
	1개월 장세 (최대추정치)	2,407만 7,936 \$		
	5개월 장세 ^{84/} (최대추정치)	1억 2,038만 9,680 \$		

※ 2020년 1월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한 내부의 공식시장으로부터의 장세 집금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정확한 통계상의 반영이 불확실. 북중 무역은 대폭 감소(전년대비 77.7% 감소)하였고, 4/4분기에는 사실상 수출입이 중단되었음

출처: 필자 작성

^{83/} 1개월 장세 추정치를 계산할 때, 1일 장세 × 26으로 계산함. 일주일에 한 번 시장이 휴장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이하도 동일하게 계산함.

^{84/} 2022년 1~5월 장세는 5개월치의 장세를 계산.

■ 2022년 6~8월 장세

- 1일 최대: 6,919,506,992원 (69억 1,950만 6,992원)
- 1일 최소: 1,903,131,179원 (19억 313만 1,179원)

표 III-9 2022년 6~8월 장세 추정치

기준	운영방식	추정치		시장환율 (평양기준)
1일 장세	정상운영	최대	94만 1,429 \$	2022년 6월 1\$ = 6,500원
		최소	25만 8,929 \$	
	교대운영*	최대	47만 714 \$	2022년 8월 1\$ = 8,150원
		최소	12만 9,464 \$	
1개월 장세 (최대추정치)	정상운영	2,447만 7,154 \$		3개월 평균 환율 1\$ = 7,350원
	교대운영	1,223만 8,577 \$		
3개월 장세 (최대추정치)	정상운영	7,343만 1,462 \$		
	교대운영	3,671만 5,731 \$		

* 주: 2022년의 경우, 4~5월부터 매대 간격을 넓혀서 2인의 상인이 1일 교대로 매대를 사용하여 장사를 했다면, 장세는 1/2로 감소하게 됨.

출처: 필자 작성

■ 2022년 9~12월 장세

- 1일 최대: 6,028,060,456원 (60억 2,806만 456원)
- 1일 최소: 1,802,831,577원 (18억 283만 1,577원)

표 III-10 2022년 9~12월 장세 추정치

기준	운영방식	추정치		시장환율 (평양기준)
1일 장세	정상운영	최대	73만 9,639 \$	2022년 9월 1\$ = 8,200원
		최소	22만 1,206 \$	
	교대운영*	최대	36만 9,819 \$	2022년 10월 1\$ = 8,100원
		최소	11만 603 \$	
1개월 장세 (최대추정치)	정상운영	1,923만 614 \$		평균 환율 1\$ = 8,150원
	교대운영	961만 5,307 \$		
4개월 장세 (최대추정치)	정상운영	7,692만 2,456 \$		
	교대운영	3,846만 1,228 \$		

* 주: 2022년의 경우, 4~5월부터 매대 간격을 넓혀서 2인의 상인이 1일 교대로 매대를 사용하여 장사를 했다면, 장세는 1/2로 감소하게 됨.

출처: 필자 작성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세(최대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1~5월(5개월치 장세): 1억 2,038만 9,680 \$
 - 2022년 6~8월(3개월치 장세): 7,343만 1,462 \$
 - 2022년 9~12월(4개월치 장세): 7,692만 2,456 \$
 - 그리하여 2022년 장세 예상액은 2억 7,074만 3,598 \$

- 2022년에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지대책으로 인해, 매대를 1/2씩 사용했다는 가정 아래 장세(최대추정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2022년 1~5월: 6,019만 4,840 \$
 - 2022년 6~8월: 3,671만 5,731 \$
 - 2022년 9~12월: 3,846만 1,228 \$
 - 그리하여 2022년 장세 예상액은 1억 3,537만 1,799 \$

(2) 도별 장세 추정치, 1일 기준

표 III-11 시·도별 장세 추정치, 1일 기준

(단위: 북한 원)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평양	464,689,286	170,386,071	542,137,500	185,875,714	619,585,714	201,365,357	774,482,143	247,834,286
평안남도	409,672,695	157,566,421	472,699,263	173,323,063	551,482,474	189,079,705	661,778,968	204,836,347
평안북도	317,545,663	122,132,947	366,398,842	134,346,242	427,465,316	146,559,537	512,958,379	158,772,832
황해북도	240,558,725	92,522,586	277,567,759	101,774,845	323,829,053	111,027,104	388,594,863	120,279,362
황해남도	312,274,740	120,105,669	360,317,008	132,116,236	420,369,842	144,126,803	504,443,811	156,137,370
함경북도	383,209,283	134,592,383	444,457,593	148,051,622	517,189,271	161,510,860	639,073,496	200,827,827
함경남도	382,068,260	146,949,331	440,847,992	161,644,264	514,322,658	176,339,197	617,187,189	191,034,130
강원도	155,472,474	59,797,105	179,391,316	65,776,816	209,289,868	71,756,526	251,147,842	77,736,237
자강도	114,102,310	43,885,504	131,656,511	48,274,054	153,599,263	52,662,605	184,319,116	57,051,155
양강도	45,601,967	17,539,218	52,617,654	19,293,140	61,387,263	21,047,062	73,664,716	22,800,983
개성	35,248,571	13,557,143	40,671,429	14,912,857	47,450,000	16,268,571	56,940,000	17,624,286
나선	36,600,000	12,200,000	48,800,000	13,420,000	54,900,000	14,640,000	61,000,000	18,300,000
남포	201,516,714	77,506,429	232,519,286	85,257,071	271,272,500	93,007,714	325,527,000	100,758,357
전국장세	3,098,560,688	1,168,740,807	3,590,082,153	1,284,065,924	4,172,143,222	1,399,391,041	5,051,117,523	1,573,993,172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확산 시기		코로나19 통제 시기	
	2021년		2022년 1~5월		2022년 6~8월		2022년 9~12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평양	851,930,357	263,323,929	929,378,571	278,813,571	929,378,571	278,813,571	929,378,571	278,813,571
평안남도	787,832,105	220,592,989	787,832,105	236,349,632	945,398,526	252,106,274	787,832,105	236,349,632
평안북도	610,664,737	170,986,126	610,664,737	183,199,421	732,797,684	195,412,716	610,664,737	183,199,421
황해북도	462,612,932	129,531,621	462,612,932	138,783,880	555,135,519	148,036,138	462,612,932	138,783,880
황해남도	600,528,346	168,147,937	600,528,346	180,158,504	720,634,015	192,169,071	600,528,346	180,158,504
함경북도	719,077,846	212,475,237	765,193,774	225,934,475	807,554,301	237,417,842	761,570,117	225,934,475
함경남도	734,746,654	205,729,063	734,746,654	220,423,996	881,695,985	235,118,929	734,746,654	220,423,996
강원도	298,985,526	83,715,947	298,985,526	89,695,658	358,782,632	95,675,368	298,985,526	89,695,658
자강도	219,427,519	61,439,705	219,427,519	65,828,256	263,313,023	70,216,806	219,427,519	65,828,256
양강도	87,696,090	22,800,983	87,696,090	26,308,827	105,235,308	28,062,749	87,696,090	26,308,827
개성	67,785,714	18,980,000	67,785,714	20,335,714	81,342,857	21,691,429	67,785,714	20,335,714
나선	63,440,000	19,520,000	67,100,000	20,740,000	73,200,000	24,400,000	79,300,000	20,740,000
남포	387,532,143	108,509,000	387,532,143	116,259,643	465,038,571	124,010,286	387,532,143	116,259,643
전국장세	5,892,259,969	1,685,752,537	6,019,484,111	1,802,831,577	6,919,506,992	1,903,131,179	6,028,060,454	1,802,831,577

출처: 필자 작성

표 Ⅲ-12 시·도별 장세와 비율, 1일 기준

(단위: 북한 원, %)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장세	비율	장세	비율	장세	비율	장세	비율
평양	464,689,286	15.0	542,137,500	15.1	619,585,714	14.9	774,482,143	15.3
평안남도	409,672,695	13.2	472,699,263	13.2	551,482,474	13.2	661,778,968	13.1
평안북도	317,545,663	10.2	366,398,842	10.2	427,465,316	10.2	512,958,379	10.2
황해북도	240,558,725	7.8	277,567,759	7.7	323,829,053	7.8	388,594,863	7.7
황해남도	312,274,740	10.1	360,317,008	10.0	420,369,842	10.1	504,443,811	10.0
함경북도	383,209,283	12.4	444,457,593	12.4	517,189,271	12.4	639,073,496	12.7
함경남도	382,068,260	12.3	440,847,992	12.3	514,322,658	12.3	617,187,189	12.2
강원도	155,472,474	5.0	179,391,316	5.0	209,289,868	5.0	251,147,842	5.0
자강도	114,102,310	3.7	131,656,511	3.7	153,599,263	3.7	184,319,116	3.6
양강도	45,601,967	1.5	52,617,654	1.5	61,387,263	1.5	73,664,716	1.5
개성	35,248,571	1.1	40,671,429	1.1	47,450,000	1.1	56,940,000	1.1
나선	36,600,000	1.2	48,800,000	1.4	54,900,000	1.3	61,000,000	1.2
남포	201,516,714	6.5	232,519,286	6.5	271,272,500	6.5	325,527,000	6.4
전국장세	3,098,560,688	100	3,590,082,153	100	4,172,143,222	100	5,051,117,523	100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확산 시기		코로나19 통제 시기	
	2021년		2022년 1~5월		2022년 6~8월		2022년 9~12월	
	장세	비율	장세	비율	장세	비율	장세	비율
평양	851,930,357	14.5	929,378,571	15.4	929,378,571	13.4	929,378,571	15.4
평안남도	787,832,105	13.4	787,832,105	13.1	945,398,526	13.7	787,832,105	13.1
평안북도	610,664,737	10.3	610,664,737	10.1	732,797,684	10.6	610,664,737	10.1
황해북도	462,612,932	7.9	462,612,932	7.7	555,135,519	8.0	462,612,932	7.7
황해남도	600,528,346	10.2	600,528,346	10.0	720,634,015	10.4	600,528,346	10.0
함경북도	719,077,846	12.2	765,193,774	12.7	807,554,301	11.7	761,570,117	12.6
함경남도	734,746,654	12.5	734,746,654	12.2	881,695,985	12.7	734,746,654	12.2
강원도	298,985,526	5.1	298,985,526	5.0	358,782,632	5.2	298,985,526	5.0
자강도	219,427,519	3.7	219,427,519	3.6	263,313,023	3.8	219,427,519	3.6
양강도	87,696,090	1.5	87,696,090	1.5	105,235,308	1.5	87,696,090	1.5
개성	67,785,714	1.2	67,785,714	1.1	81,342,857	1.2	67,785,714	1.1
나선	63,440,000	1.1	67,100,000	1.1	73,200,000	1.1	79,300,000	1.3
남포	387,532,143	6.6	387,532,143	6.4	465,038,571	6.7	387,532,143	6.4
전국장세	5,892,259,969	100	6,019,484,111	100	6,919,506,992	100	6,028,060,454	100

※ 시/도의 장세는 해당 시기의 최대치를 반영하였고, 비율은 전국 장세(최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필자 작성

- 전국에서 1일 장세가 가장 많은 곳은 평양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개성
 - 평양은 전국 장세의 약 13.4~15.4% 가량을 차지
 - 개성은 전국 장세의 약 1.1~1.3% 가량을 차지

5. 시장관리 및 장세 연구의 함의

- 본 장에서는 북한의 공식시장의 관리체계와 시장사용료(장세)를 분석
 - 분석의 시기는 2016년에 발간한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에 이어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포함함.
 - 2019~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었고, 2020년에 팬데믹으로 진행되었음. 이는 북한의 공식시장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북한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삼중고(자연재해,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를 언급할 정도로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2년에 북한 전역에서 1일에 집금되는 장세는 북한 원화로 최대 63억 2,235만 520원, 최소 18억 3,626만 4,778원 정도의 규모로 추산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매대를 교차 영업하도록 하였을 경우, 장세 추정치를 1/2로 나누어, 최대 30억 원, 최소 9억 원 정도의 규모의 1일 장세가 전국적으로 집금되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의 ‘장세’는 중앙으로 집금되는 장세의 규모와 액수와 상관없이 북한의 중앙 경제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에 틀림없음.
 - 공식시장의 장세의 추이와 동학(動學)은 북한의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강도(強度)와 심도(深度)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장세 연구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와 경제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됨.
- 본 연구에서 장세를 다루었지만 장세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자전거 보관료’와 ‘짐 보관료’ 등의 기타 세금들이며, 이 또한 적지 않은 규모로 추정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적과 분석이 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장세와 함께 현재 북한에서는 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집금이 중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IV. 북한 공식시장의 입지 변화와 물류유통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 공식시장의 입지 변화와 물류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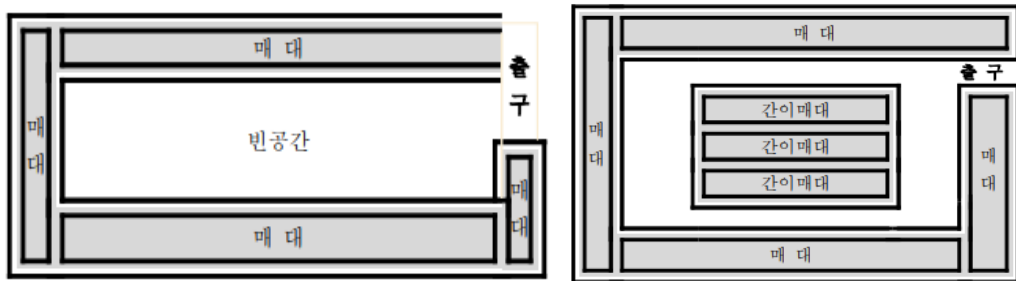
1. 시대별 시장의 입지변화와 특징

가. 시대별 입지변화 구분

- 북한 시장의 입지변화는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1960년대부터 시작된 농민시장화 시기
 - 둘째,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한 갈등과정에서 형성된 장마당 시기
 - 셋째, 2000년대 초 시장의 공식적 허용에 따른 시장화 시기
 - 넷째, 2000년대 후반의 시장현대화 시기
- 북한 시장의 입지변화 주요 특징
 - 시대별 시장의 입지변화 특징은 인구의 밀집정도, 접근가능성, 이용편의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지역 환경과 주민의 시장 수요에 따라 시장의 입지가 선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시장변화의 배경에는 시장화에 대한 통제와 완화라는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임.
- 1기: 농민시장의 폐쇄성과 한계
 - 1960년대 추진된 농민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적 기능보다는 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간단한 잉여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 장소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해 왔음.

- 즉, 임시적이고 정서적이며, 관례적 차원에서 허용된 농민시장은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사라지는 대상으로 인식함.
- 따라서 농민시장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 성장가능성, 시장이용의 편의성 등이 배제된, 폐쇄적이면서도 낮은 접근성, 불편한 공간배치 등 불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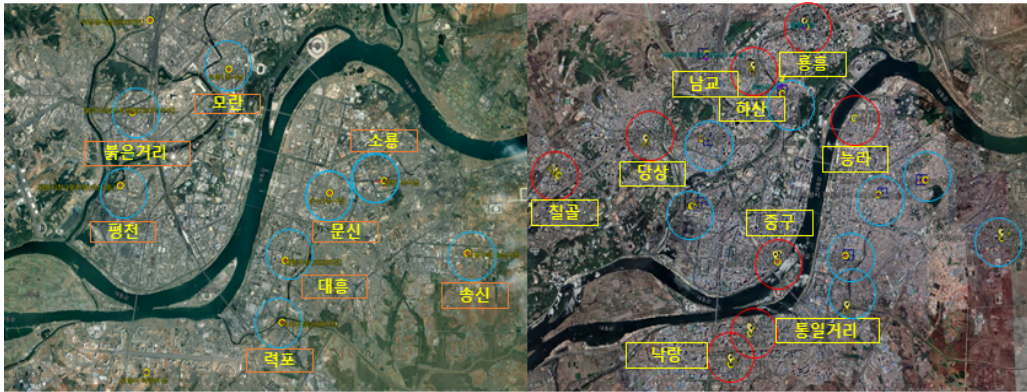
그림 IV-1 농민시장 일반구조 형태



출처: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97~98.

- 농민시장의 기본구조는 바른 사각형의 형태로 한 면에만 한 개의 입구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이동이 불편하도록 조성되어 있음.
- 특히 입구에는 주재원(시장질서 단속)이 배치되어 농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단속을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 또한 시장의 운영시간을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개폐장하도록 했으며, 10일장을 운영해 시장이용 가능성도 극도로 억제해왔음.
- 여기에 상인은 노인, 이용 대상은 가두여성(부양여성)과 노인층으로 한정하는 등 시장의 이용대상도 통제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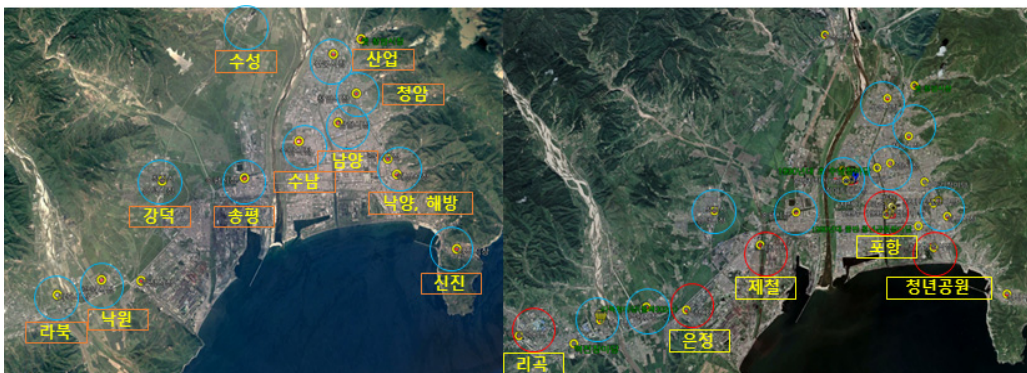
그림 IV-2 2000년과 2022년 평양시 주요시장 입지 변화 비교



출처 :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농민시장의 입지조건은 도시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하천주변이나, 중앙로에서 떨어져 있는 소규모 농촌형 아파트 단지 뒤편에 조성함으로써 외부인으로부터의 노출을 극단적으로 통제해왔음.
-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농민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시장 수요도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이같은 폐쇄적인 도시의 농민시장과 달리 군(郡)의 읍 단위, 노동자구의 농민 시장은 도심 중앙은 아니지만, 도심의 중심부 즉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해 있는 것이 일반적임.

그림 IV-3 2006년 이전과 2022년 청진시 주요시장 입지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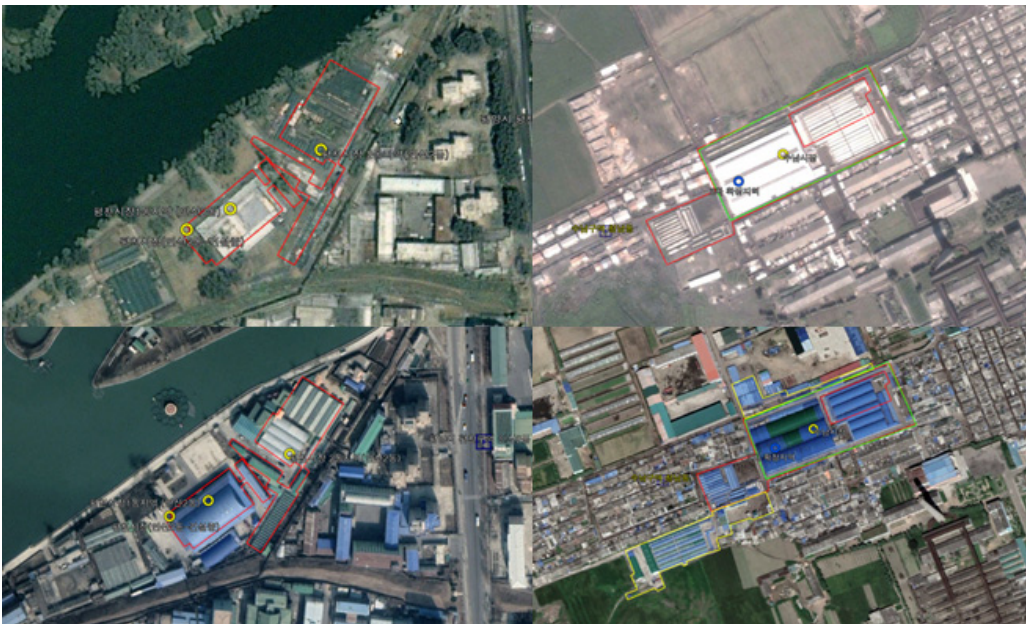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2기: 장마당의 형성과 확산시기

- 장마당의 형성과 확산시기인 1990년대는 북한의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이동형 시장이 형성됨.
- 장마당에 대한 지역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문제는 장마당의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수식어를 낳았음.
- 예컨대 역전장, 골목장, 메뚜기장으로 불리는 장마당은 농민시장과 달리 불법적인 상업 활동으로 경찰통제의 대상인 동시에 불안정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음.

그림 IV-4 도심외곽 장마당에서 시장으로의 변화(좌: 평양 평천시장, 우: 청진 수남시장)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장마당은 불법적으로 모인 상인들의 집합체로 장세를 내지 않고 안전부 단속 및 물수의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짐.
- 다만, 주민들 사이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 △기차시간, 주로 여행객들의 대상으로 한 저녁시간 기차역 수요(음식, 여행용품), △중앙대로와 떨어진 단층형 주거 밀집지역(단속을 피하는데 유리한 조건, 음식, 식량, 생필품 등), △도심

외곽 또는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천변(안전원 단속이 적은 지역), △그밖에 임시로 지방당국이 허용한 대상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특징임.

그림 IV-5 공장의 시장화(좌: 평성 옥전시장)와 대로의 시장화(우: 원산 신흥시장)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장마당의 입지는 수요가 있을 만한 대상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앙로에 근접할수록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해당 입지는 피해서 들어섬.
-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주민들 사이 장마당 정보 교류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짐.
- 이러한 장마당은 경제위기가 가시화되던 1993년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에 확산되었으며, 점차 수요를 따라 공설시장화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시장의 입지에 영향을 미쳤음.

■ 3기: 장마당에서 종합시장화

- 2002년 7.1 조치 이후, 2003년부터 종합시장화가 중앙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역당국의 권한으로 이전되면서 공식시장의 입지선정이 도심외곽에서 도심 중심으로 확대됨.

- 먼저, 종합시장화의 입지선정은 기존의 장마당, 특히 지역당국이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해오던 공간, 즉 주민수요가 집중되어왔던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
- 오늘날 북한 최대의 종합시장으로 알려진 수남시장과 평성시장은 과거 장마당에서 지역당국에 의해 암묵적으로 허용된 대표적인 사례임,
- 해당 사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주변으로의 확장이 용이하거나, 외곽에 위치하더라도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그림 IV-6 대로변 아파트 단지 내 시장입지 모습(좌: 평양 하신시장, 우: 청진 수원시장)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둘째는 기존의 장마당과 달리 대로변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주거지역의 높은 시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장마당의 시장 전환임.
- 물론 △평양시의 경우 역포시장, 대흥시장, 냉천시장, 붉은기시장 등 이미 2000년 이전부터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함흥시의 삼일시장, 사포시장, △신의주시의 신천동시장, △청진시의 포항시장, 청년공원시장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시장이 2000년대에 우후죽순으로 건설되었음
- 셋째는 시장의 산업적 성격과 공간의 계층적 특성에 따라 입지가 다양하게 조성됨. 수산업 주변에는 수산물시장, 어구시장, 경공업 주변에는 산업시장, 전자재시장, 공업품시장 등이 들어섬.

- 물론 이 같은 시장입지는 해당 도시의 산업적 특성과 도시인구 규모가 반영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공간의 계층적 특성에 따른 시장의 입지는 도시 내에서도 나타나는 지역 간 정치적, 계층적 격차에 따라 고급시장(고가제품), 공업품 시장(고급의류 등), 종합시장, 소매시장 등으로 나타나기도 함.

■ 4기: 종합시장의 현대화

- 2000년대 중반 평양을 중심으로 시장의 현대화(건물형, 지붕도색 등)가 시작되어, 2000년대 후반에는 다른 주요 도시의 대표시장들로 확산됨.
- 또한 이 시기부터 급증하는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입지나 규모가 크게 변화함. 물론, 전국적으로는 많지 않으나, 주요 시장들에서 건물 외형의 변화와 함께 중심부에서 외곽,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전하는 현상들이 나타남.
- 특히 2010년대에는 외국자본의 투자, 시장자본의 결합, 지역당국의 장세수입 확보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이전, 확장, 현대화, 축소 등 시장의 입지변화 과정에서 확인됨.

그림 IV-7 도시개발에 따른 평양 통일거리시장, 중구시장, 평천시장 모습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예컨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평양시의 시장조성 열풍에 따라 조성되기 시작한 통일거리시장, 평천시장, 중구시장 등의 외형이 새로운 유형으로 조성됨에 따라 새로운 외형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임.

- 평양시의 낙랑구역 통일거리시장은 2000년대 중반 처음 통일거리 중앙부에 반원통형 지붕을 설치하고 현대적으로 조성했던 반면, 통일거리 맞은편에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낙락시장은 전통적인 외형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IV-8 도시 재개발에 따른 시장 이전 및 조성(좌: 남포 해안동시장, 우: 강계 남천시장, 독산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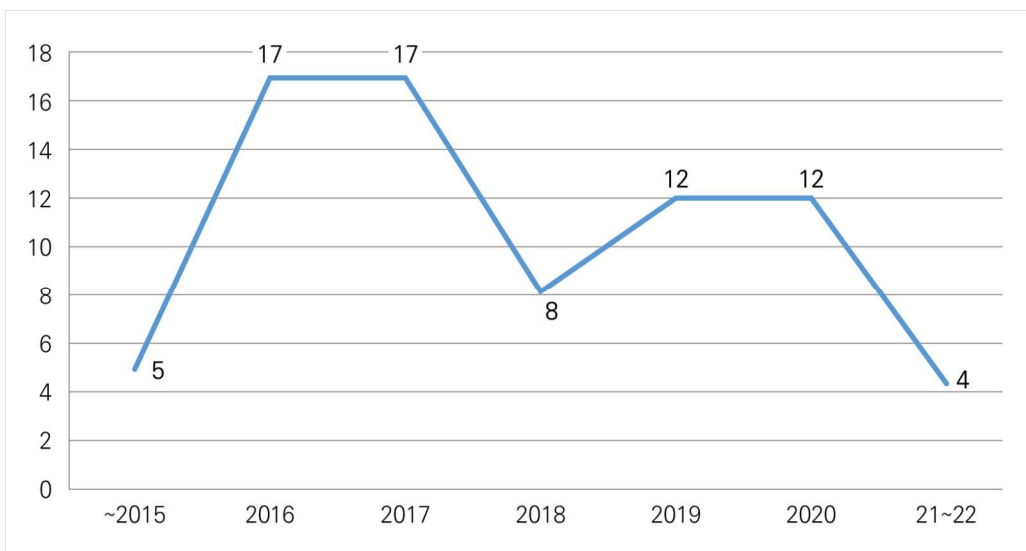
출처 :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2010년대 중반 이후 시장의 변화

- 시장입지의 변화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남. △수해에 따른 축소 및 폐쇄,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확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 △아파트, 사업소 건설로 인한 시장이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장위치에서 주변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거나, 주변의 주택건설로 인한 이전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으며, 시장의 현대화나, 시장의 확장은 지방당국의 재정확충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I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404개의 시장에서 2022년 전체 414개소로 단순수치로 보면 시장의 개소수가 10개소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면적에서는 2016년 기준 전체 시장면적 1,839,582m²에서 2022년 1,944,642m²로 약 105,060m²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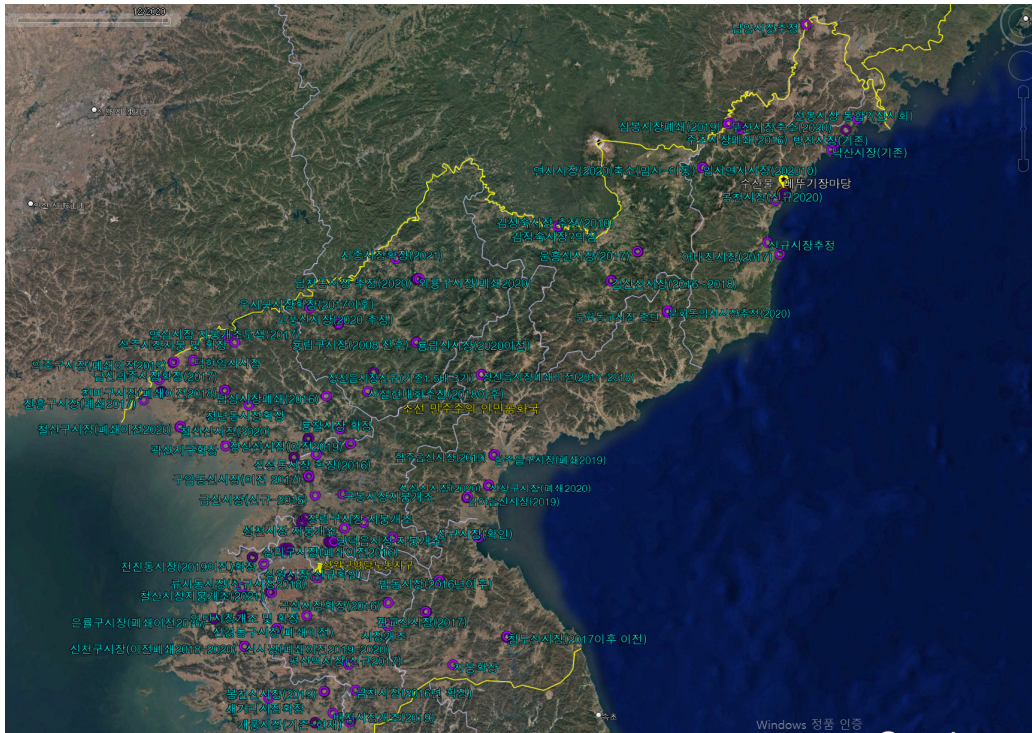
그림 IV-9 북한의 시장변동 현황(2015~2022년)



출처: 필자 작성

- 북한 시장변동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2016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중국이 대북제재 동참하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반면, 2021년부터 시장의 입지변화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는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력하게 추진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그림 IV-10 북한 전국 시장변동 분포(2022.12.기준)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2016년 이후 북한 시장의 전체 변동현황

- 2016년 이후 북한 시장의 변동현황은 86건으로 기존 404개 시장 대비 21% 비율로 나타남.
- 해당 변화 중 규모확장은 38건으로 장소이전에 따른 확장은 26건, 단순 부지 확대는 1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2016년(233,165㎡) 대비 75,923㎡가 증가해 확장규모는 309,088㎡로 나타남
- 규모축소는 18건으로 장소이전에 따른 축소 15건, 단순 부지축소는 3건으로 2016년 96,186㎡에서 74,590㎡로 21,596㎡ 축소됨.
- 전국 시장의 증가는 총 7건으로 규모는 25,426㎡가 증가했으며, 기존의 위성영상 판독불가로 확인되지 않았던 미확인된 공간을 대상으로 재확인한 결과 최신 위성사진을 통해 11건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규모는 16,127㎡로 나타남.

- 2016년 이후 폐쇄된 시장은 전국에서 8곳으로 규모는 11,931㎡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4곳이 함경북도 지역에서 나타남
- 그 이유는 2016년 이후 함경도 지역의 수해와 나선시 인구수에 비례한 시장 축소 및 통합인 것으로 확인됨.
- 그 결과 북한의 전체 시장변동 현황에서 확장 38개소, 축소 18개소, 신규시장 7개소, 폐쇄시장 8개소, 2020년 이후 고해상도 위성사진에 의해 새롭게 확인된 시장 11곳으로 변동된 시장규모는 2016년(341,282㎡) 대비 20% 증가한 425,231㎡로 나타남.
- 이 같은 시장변동 결과는 시장의 폐쇄 또는 축소보다는 수요에 따른 유동성이 증가하고 시장의 규모가 주민수요에 맞게 확장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나. 입지변화의 주요특징

■ 시장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특징

- 2016년 이후 북한 시장의 변화는 시장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에 따른 변화와 도시개발에 따른 시장의 형성과 변화라는 특징을 보여줌.
- 먼저 시장변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시장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화되고 밀집되면서 시장 확장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확장하는 공급과정이 뒤따르고, 시장주변의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증가해 또 다시 시장을 확장하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선순환적인 시장변화가 나타남.

■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구조의 대표적인 사례: 청진시 수남시장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적 구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장은 청진시 수남시장으로 북한의 시장통제정책에 따라 1990년대 불법적인 공간으로 시작해 지역당국의 묵인 하에 확산된 사례임.
- 주민들의 생존권문제와 직결되어 주변 지역으로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장마당들을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지역당국이 당시 그 공간에서만 장사를 허용한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 같은 시장화는 상인과 주민들의 공급과 수요가 집중되는 공간으로 초기 임시적인 성격에서 점차 체계화된 시장공간으로 변화하고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림 IV-11 2006년 수남시장 주변지역 모습(2006.8.30. 위성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초기의 수남시장은 해안방향으로 위치한 화학섬유공장 슬래그부지(산업폐기물 부지)에 임시로 조성됨. 1990년대 초부터 주민들은 출입제한으로 통제된 농민 시장보다 이용이 편리한 불법장마당에 집중되었는데, 해당 장소는 불법장마당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당국이 선정한 곳임.
- 주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불법장마당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당국이 장마당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 불법장마당 수요를 한곳으로 집중 시킨 결과가 오늘날 수남시장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임.

그림 IV-12 수요확산으로 확장된 수남시장(좌: 2012.5.19.위성촬영, 우: 2016.10.24.위성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이렇게 자리잡은 수남시장에 주민들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공급부족현상이 확산되었음.
- 1990년대 초 지정된 수남시장 1차 부지는 소규모(<그림 IV-12> 파랑테두리 범위)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 시장에 대한 시·군의 관리권한과 도 행정기관(도 인민위원회)의 시장개설 등 결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수남시장은 2006년 당시 2, 3차까지 확장됨.
-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2, 3차 지역이 확장된 이후 시장 북부지역 농경지(농장밭)에 시장과 연계된 건재업, 물류업, 외화벌이 사업소들이 급증함.
- 2016년에는 2차 확장지역(공업품매대), 3차 확장지역(농수산물도매)이 개건되는 등 시장의 현대화 모습도 나타남.
- 2017년 11월 2차 지역 개건화 완성 이후, 2018년 초 1차 지역과 3차 지역의 개건사업이 완료됨.
- 한편 주변산업의 증가, 주변 주택건설 확산으로 시장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화학섬유공장 부지로 4차 확장이 2017년 12월 이루어졌으며, 2018년 10월에는 북쪽지역에 5차 확장이 이루어짐.

그림 IV-13 수요확산으로 인한 수남시장의 외형적 확산(좌: 2017.8.27. 촬영, 우: 2022.8.21. 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이 같은 현상은 수남시장으로 전국의 시장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종합도매시장으로 확장되고 그에 따른 외화벌이사업, 물류사업, 건재사업, 합병·합작 사업들이 활발해지면서 또 다시 시장을 확장하는 선순환구조의 시장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7년 이미 수남시장과 연계된 산업단지들이 다수 들어서고, 2022년 현재는 일부 소규모 과수밭과 온실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류산업이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수남시장은 1990년대 이후 시장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장의 확장과 연계되어 약 9만4천평(31ha)의 농경지가 시장화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수요 확장형 특징을 보여줌.
- 지구개발에 따른 시장형성 및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 강계시 독산지구
- 시장변화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지구개발에 따른 시장형성과 변화임. 평양을 제외한 시, 군 지역에서는 눈에 띄는 활발한 지구개발을 찾기는 어렵지만, 도소재지들의 경우 일부 지구개발에 따른 시장조성 및 재배치 현상들이 나타남.
 -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시가지 확장개발 계획에 시장조성이 포함되는 것임.

그림 IV-14 강계시 외룡시장 주변 시가지 현황(2006.3.23. 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2016년 이후 지구개발에 따른 대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대상은 자강도 강계시 독산지구
- 자강도 강계시는 도소재지인 동시에 북한의 대표적인 중공업지대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장자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있음.
- 동쪽으로 주요 도 행정기관들과 중공업이 분포하여 도시화가 동쪽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서쪽은 일부 제조업과 철도산업이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을 뿐 독산동지구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그림 IV-15 독산지구 개발에 따른 시장조성 모습(좌: 2006.3.23.촬영, 우:2012.10.31.촬영)



출처: 필자 작성

- 2000년대 들어 서남쪽 외곽의 독산동지구 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도로와 아파트 단지, 일부 행정기관들이 조성됨.
- 지구개발은 2006년부터 추진되어 2012년에는 독산동 대로변 지역과 독산동 북동부 지구가 우선적으로 개발된 모습이 나타나는 등 독산지구 36ha규모의 개발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2017년부터 독산동 서남부 지구에 10층 규모 3개동, 8층 규모 3개동을 비롯해 1,500가구 규모의 고층형 아파트들이 빠른 속도로 완공되었음.
- 독산지구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2019년까지 시장을 조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22년 위성영상을 확인한 결과 마을단지 사이에 새롭게 독산시장을 조성하는 모습이 확인됨.
- 2022년 독산지구에 시장이 나타난 이유는 당시 독산동과 접해 있는 외룡동에 입지한 강계시를 대표하는 외룡시장이 폐쇄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당시 외룡시장은 장자강 너머 남천동 상인과 일반주민이 남문역과 강계역 사이 장자강철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2019년 6월 김정은 위원장이 강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장자강 철교를 위태롭게 걷는 주민들을 보고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면서 외룡시장을 폐쇄하고 증가한 시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외룡시장을 남천동으로 이전하고 일부는 개발 중인 독산에 새롭게 시장을 조성한 결과임.^{85/}

^{85/}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그림 IV-16 독산지구 개발과 시장조성 모습(좌: 2017.10.8.촬영, 우: 2022.9.26.촬영)



출처 : 필자 작성

- 독산지구 개발과정에서 도시화에 따른 수요와 폐쇄된 외룡시장 수요의 일부를 철교로부터 2km 떨어진 독산시장(2개동: 본동과 2층짜리 건물 한 동)으로 흡수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
- 독산시장이 현대적으로 조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발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계층구성과도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보임.
- 새롭게 조성된 현대적인 아파트는 도, 시의 주요 당, 행정, 군, 교육 관련 간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개발지구 시장화와 도시화에 도시 지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86/}
- 물론 북한의 시장변동이 두 가지 주요 특징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수요 증가와 지역 개발이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분명함.
- 이 같은 현상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장축소나 정치적 이유에 따른 외곽으로의 이전 및 축소를 제외한다면 시장의 입지변화나 동향은 수요와 공급이 연계된 도시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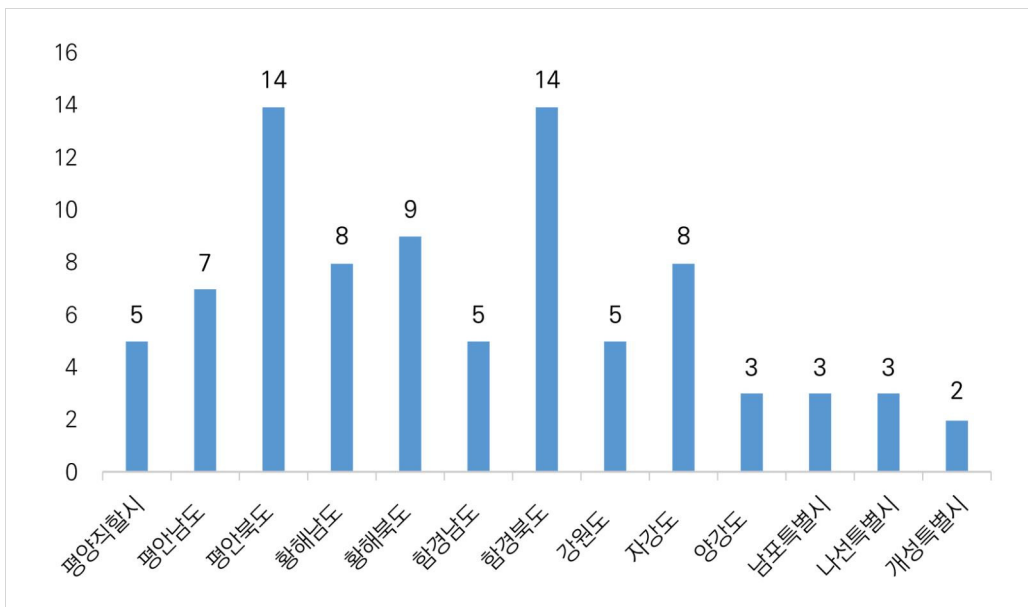
^{86/}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2. 지역별 변동시장 현황과 특징

■ 지역별 시장변화의 총괄

- 북한의 전체 시장변동 현황을 보면 전국단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를 행정구역상으로 구분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임
- 함경북도의 변동시장 개수는 총 1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시에 폐쇄 시장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소에 달함.
- 평안북도의 변동시장 개수 역시 총 14개소로 이 중 확장이 9건에 달해 전국에서 확장된 변동개소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황해북도 변동시장 개수는 총 9개소에 그치는 반면 전국에서 신규시장이 3개소로 전국에서 신규시장 설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시장변동 개수가 가장 적은 3개 지역은 도시를 제외하면 강원도, 함경남도, 양강도 순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IV-17 2016년 대비 2022년 지역별 시장변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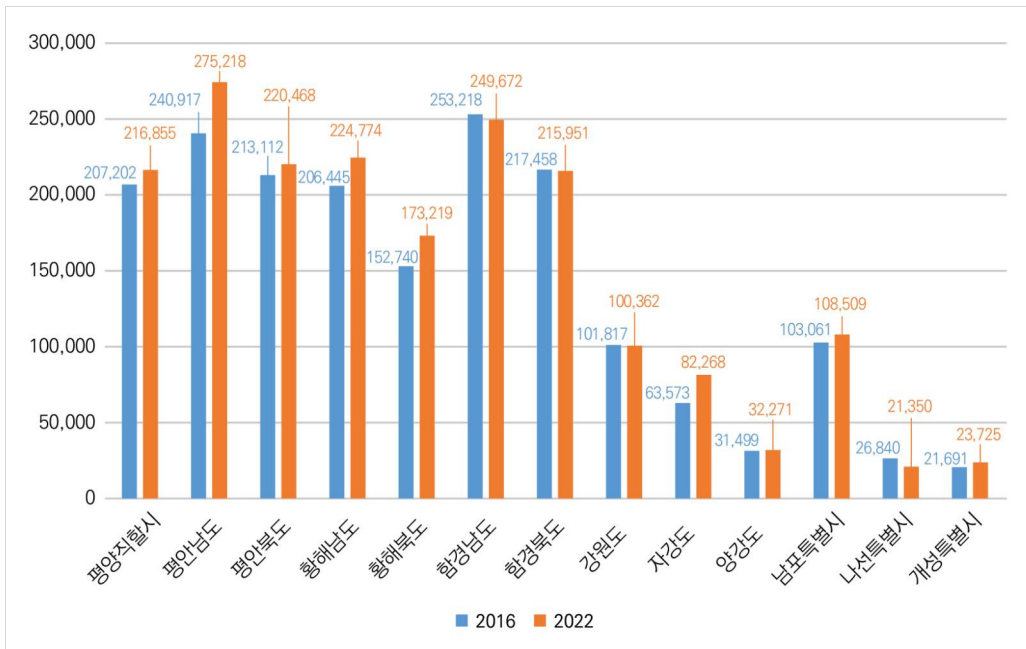


* 미식별, 미확인 포함

출처: 필자 작성

- 위의 세 지역은 전반적인 도시개발이 정체되거나 도시의 주거개발이 시장과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시장 수요의 정체에 따른 낮은 변동시장 개수를 보이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갈마지구 관광개발, 원산지구 일부 개발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주거개발지역이 떨어져 있고 문천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 대부분이 정체되어 변동시장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함경남도의 경우 시장변동 개수가 도 규모에도 불구하고 적게 나타난 이유는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함흥시 주거개발이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변동시장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지구개발이 활발한 평양시의 경우는 송신, 송화지구 1만 세대 건설 완료 이후 아직 특정 지을 수 있는 시장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그림 IV-18 시장 규모의 지역별 변화



출처: 필자 작성

- 시장규모의 지역별 변화를 보면 가장 크게 확대된 지역은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자강도로 확인되며, 축소된 지역은 나선시, 함경북도, 함경남도가 대표적임.
- 특징적인 것은 시장변동개수가 적게 나타난 평안남도가 변동규모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황해남도, 자강도도 변동시장 개수 대비 전체 시장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시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6년 이전까지 평양과 연계된 평안남도와 함경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2016년 전후로 정체되는 반면 기존에 정체된 황해도, 자강도 지역이 수요에 따라 시장규모를 확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2016년 이후 북한시장의 이전, 확장, 축소, 폐쇄라는 변화는 지자체의 시장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시장운영과 관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도 인민위원회)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수요, 개발)을 고려한 지자체의 시장변경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장 이전, 확대, 축소, 폐쇄 등의 계획이 도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침범할 수 없는 경작지(논, 밭)에까지 시장을 조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의 시장운영 권한 크기가 얼마만큼 확장되었는지도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임.
- 이러한 현상은 2016년 이전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으로 2017년부터 대북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을 통한 지자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추진된 결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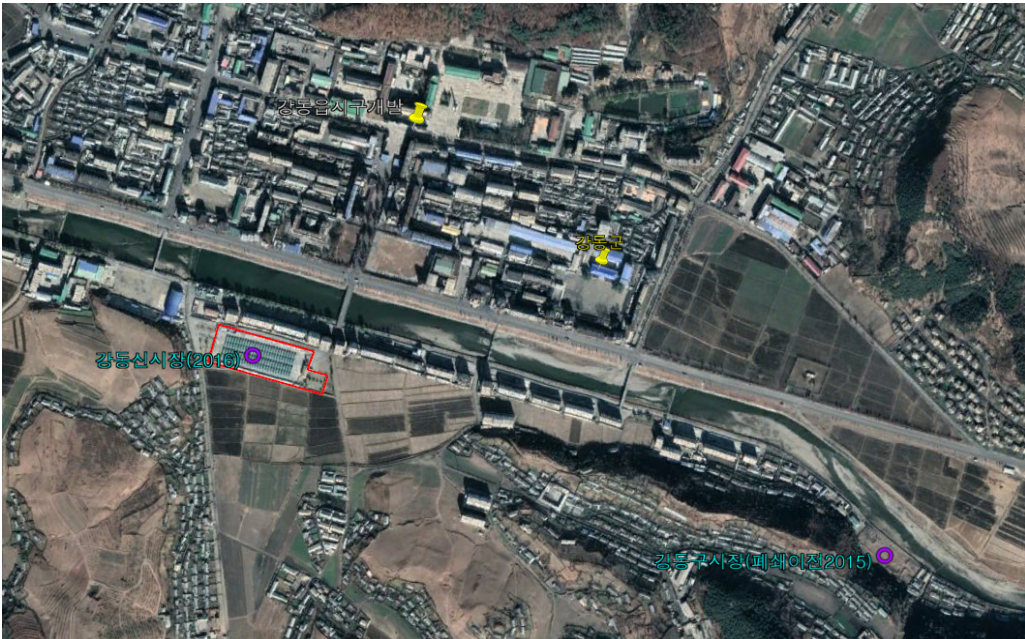
가. 평양시 주요 변동 시장

■ 강동군 강동시장: 이전확장(2016)

- 강동시장은 강동군 동쪽 외곽의 하천 옆에 위치하였으나 2015년경 폐쇄되고, 2016년 서쪽으로 1km 떨어진 중심부 근접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기존 11,545㎡에서 17,870㎡로 규모도 크게 확장되었음.

- 주요 특징으로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반면 시장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기존 시장 주변으로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 시장이 외판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을 이전 및 확장한 것으로 판단됨.
-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19 강동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2020.11.10. 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강동군 상리구시장: 이전축소(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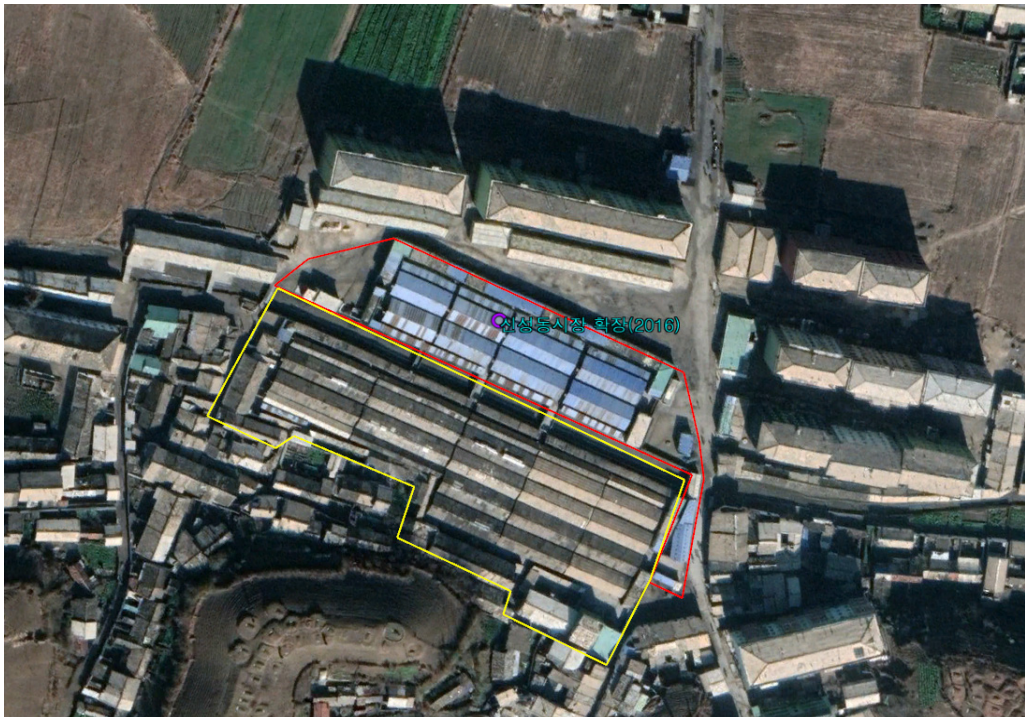
- 강동군 상리구시장은 2016년 철거되고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소규모 마을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기존 1,059㎡에서 622㎡로 크게 축소되었음.
- 상리구시장이 노동자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축소 이전된 이유는 시장이 상리구 중심에 정확히 위치하면서 구의 개발부지가 부족해 아파트 단지도 촘촘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 있음.
- 즉, 주거개발에 따른 시장의 이전 및 축소로 판단됨. 상리시장 서쪽에 위치한 강동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쪽 지역 주민의 수요만을 보장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전 축소한 것으로 분석됨.

나. 평안남도 주요 변동 시장

■ 개천시 신성동시장: 확장(2016)

- 시장의 배수로 건너편 북쪽위치 경작지(밭)까지 확장되었으며, 확장규모는 4,700㎡로 기존 7,870㎡를 포함하면 전체 12,570㎡ 규모임.
- 개천시장의 주요 확장요인은 시장과 접해있는 경작지를 건축부지로 전환하여 2016년부터 소형, 중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시장주변의 도시화로 판단됨.
- 도심 개발이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으며, 중앙 동상주변에 현대적인 고층아파트들이 재건축되는 등 도시개발이 활발함.
- 즉, 도시개발 변화에 따라 주민의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천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졌으며, 개천시 남부에 위치한 남천동에는 2021년 남천시장이 추가로 건설됨.

그림 IV-20 신성시장 확장 전(노랑), 후(빨강) 모습(2022.11.13.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덕천시 장상동시장: 이전확장(2019)

- 장상동시장은 작은 건물 뒤편 개울가에 위치하다가 2019년 경 기존시장과 접해있는 공터에 새롭게 조성되었으며, 기존 814㎡에서 1,135㎡의 규모로 이전 확장됨.
- 장상동시장의 이전과 소규모 확장은 장상동 일대의 탄광산업의 활동성이 지속되는 반면 마을규모자체가 소규모로 산간골짜기에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개천시 각암동시장(*기존 용암동시장): 이전확장(2017)

- 기존 용암동시장으로 식별된 시장은 바로 위에 위치한 각암동시장으로 확인되었음. 개천시 북쪽에 위치한 각암시장은 기존의 동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1km 거리의 외곽지역으로 2017년에 이전했으며, 2,484㎡에서 5,300㎡로 2배 이상의 규모로 확장되었음.
- 평안남도 개천군 각암동 일대가 2014년 이후부터 주거, 서비스 관련 건물개발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던 각암시장을 북부 외곽으로 이전했으며, 기존 시장부지는 주거단지 운동장을 조성함.
- 즉, 도시개발에 따른 시장의 이전 및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안주시 독산동시장: 이전축소(2016)

- 독산동시장은 기존시장에서 남쪽으로 220m 떨어진 도시 중심지로 이전했으며, 기존 9,152㎡에서 7,550㎡로 축소 조성되었음.
- 주요 특징은 도시 중심부로 이전함에 따라 주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건물이 현대적으로 건설된 것임.
- 반면 부지면적이 축소된 이유는 새롭게 이전한 시장부지에 확장 가능한 유희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기존의 시장부지에는 5층 규모의 소형아파트 2개동과 단층 주택, 소규모 주택들이 들어섬.
- 독산동 지구 주변은 2015년부터 주거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소형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독산지구 주요 산업(청천강화력발전소, 남흥청년연합기업소)의 높은 활동성이 도시화로 이어지는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성개선이 시장의 접근성과 현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개천시 남천동 남천동시장: 신규(2021)

- 남천동시장은 개천시 남부 남천동 경작지(밭)에 2021년 새롭게 조성되었으며, 시장규모는 4,981m² 수준임.
- 남천동시장이 조성된 이유는 남천동 동남쪽 철로 건너편 지대가 2017년을 전후로 주거단지들이 새롭게 조성되기 시작하고 2021년 현재 상당부분의 주거단지(소형아파트), 사업소 개발이 추진되면서 시장 수요가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북쪽의 신성동시장은 현 신규 시장으로부터 1.8km, 북동쪽 약수동시장은 1.5km 떨어져 남천동 지역 주민들이 시장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음.
- 따라서 시장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남천동시장을 새롭게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순천시 금산동 금산동시장: 신규(2015.10.)

- 순천시 금산동시장은 2015년 초까지 없었으나, 2016년 당시 조사가 완료된 2015년 10월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시장규모는 1,540m² 수준임.
- 도시 남부에 위치한 순천시장과 북부 강포시장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북부와 남부사이 시장 수요의 완충역할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됨.
- 남부 순천시장과는 1.6km, 북부 강포시장과는 1.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금산동시장이 조성되기 전인 2015년 까지만 하더라도 순천과 강포는 직진거리로 2.9km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금산동주민들이 최소 왕복 3km를 걸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요의 완충 지대로 금산동시장을 신규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됨.

■ 평성시 평성동시장: 미식별

- 평성동에 위치한 작은 소규모 시장으로 두무동과 마주하고 있으며, 평성시 도문화회관 옆 아파트 단지사이에 위치해 확인이 어려웠음.
- 해당지역은 아파트 창고 사이에 위치해 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대상으로 평성경험자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680m² 규모로 조성되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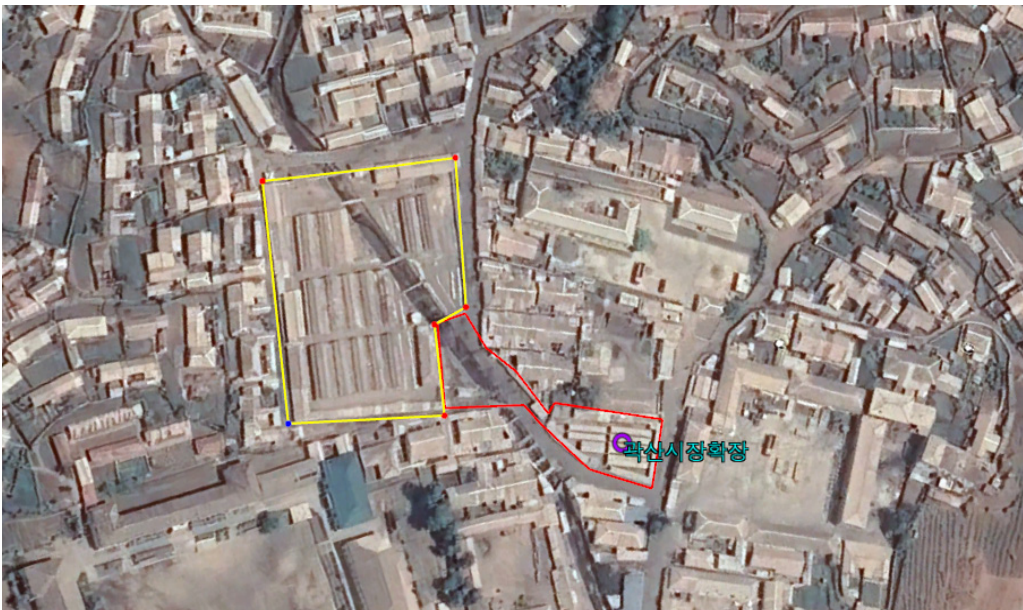
- 시장 주변 주민들의 생필품 수요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며, 해당 지역 주거 조성, 주변 사업소 개발 등의 영향으로 향후 철거할 가능성이 있음.

다. 평안북도 주요 변동 시장

■ 꺾산군 꺾산시장: 확장(2019)

- 꺾산시장은 2019년 남쪽과 이어지는 공터(유희부지) 2,000㎡를 시장부지로 확보해 기존 7,371㎡에서 9,371㎡ 규모로 확장함.
- 꺾산을 중앙부 대로변을 따라 농촌형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고 주요 서비스시설 건설과 건물개선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화의 영향이 시장 확장의 요인으로 판단됨.
- 꺾산시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향후 도시화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위치가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하거나, 보다 현대적인 건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림 IV-21 꺾산시장 확장 전(노랑), 후(빨강) 모습(2022.1.30.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운산군 운산시장: 이전축소(추정, 2022)**

- 운산시장은 2016년까지 읍의 서쪽 경작지 옆에 위치해 있었으나, 2022년 현재 해당 시장이 폐쇄되고 1km 떨어진 남부에 새롭게 현대적으로 건설되었음.
- 2016년과 2022년 사이 위성영상이 없어 정확한 이전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시장의 규모는 과거 11,810m²에서 10,284m²로 부지는 축소된 반면 건물은 큰 사각형 규모의 현대적 건물로 조성됨.
- 기존 시장부지는 약 3~4개의 사업소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며, 신규시장 부지는 기존의 소규모 밭과 8가구의 주택을 제거해 건설되었음.
- 또한 해당 지역은 운산군 읍내 북-남쪽대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 접근성이 편리하고 시장을 찾기가 쉬움.
- 바로 옆에는 운산메기공장이 준공되고 북쪽으로 200m 거리에 평균 4층으로 추정되는 도시형 아파트 12개 동이 들어서는 등 주변의 도심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운산시장의 이전축소는 수장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변화로 판단됨.

■ **구장군 용철노동자구 용철구시장: 확장(2017)**

- 용철구시장은 2017년 하천옆 시장의 공터를 시장으로 확대한 것으로 681m²에서 약 3배에 가까운 2,000m²로 확장함.
- 시장의 부지증가뿐만 아니라 지붕이 있는 2개동을 추가로 건설(기존 포함 총 3개동)하고 지붕이 없는 야외시장 2개 구역을 확장했음.
- 도시화와 관련한 변화가 아닌, 석탄자원과 모래자원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화와 중심가 위쪽에 군수공장으로 추정되는 큰 규모의 산업체가 조성되어 지역경제의 영향을 미친 결과 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짐.

■ **영변군 영변시장: 이전확장(2017~2019)**

- 영변시장은 기존의 읍 서쪽편 중심부에서 800m 가량 떨어진 동부 끝자락으로 이전하였으며, 기존의 4,067m²에서 4,500m² 규모로 시장을 확장함

- 기존 시장자리는 유희부지로 방치되고 주거, 산업의 영향에 따른 이전 동향은 나타나지 않으며, 현 시장은 기존의 농산작업반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가운데 공터에 매대건물을 추가로 설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영변시장의 이전 및 확장은 주거나, 산업 영향에 따른 이전 또는 주민의 시장 수요를 고려한 이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영변군의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한 외곽지역으로의 강제이전으로 판단됨.
- 특히 영변군이 가지는 특수성(원자로)으로 현지지도를 위한 특각이 조성되었고, 특각에서 내려다보이는 정면에 시장이 위치해 군의 동쪽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됨.

■ 구성시 청년동 청년동시장: 확장(2017)

- 청년동시장은 구성시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시장으로 주변의 유희부지 650m²를 추가로 조성해 시장이 8,534m²에서 9,184m² 규모로 확장되었음
- 변화 원인은 주변부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 그로 인한 시장 수요 확대로 판단됨.
- 다만 아파트 신축이 소규모에 그친다는 점과 도시화 활동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 주변의 유희부지가 많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규모 확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천마군 천마시장: 이전축소(2018)

- 천마시장은 기존의 도시 북부의 외곽지역에서 약 200m 떨어진 동부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으며, 3,112m²에서 2,430m² 규모로 소폭 축소되었음.
- 주요 특징은 기존시장부지에 소규모 주거지가 조성되고 주변의 광산(동, 금 추정)의 활동성이 일부 나타남에도 도시화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과 도심 중심부로 이동하기보다는 기존보다 외곽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임. 이를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시장 수요가 고려되지 않은 이전으로 판단됨.

■ **철산군 철산시장: 이전확장(2020)**

- 철산시장은 기존의 읍 북부지역에서 중심부 남쪽 1km 거리로 이전하였으며, 기존시장 4,409㎡에서 791㎡가 확장된 4,520㎡로 건설되었음.
- 읍을 가로지르는 중앙대로변에 기존의 단층집들을 철거하고 4~5층형 아파트 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등 도시화 관련 활동성이 나타남에 따라 주민수요가 시장 확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철산시장은 과거 북부지역에서 중앙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민의 시장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전확장이 결정된 것으로 보임.

■ **삭주군 삭주시장: 확장(2018)**

- 삭주시장은 기존시장 동쪽 옆 유희부지 590㎡를 자전거 보관소로 새롭게 추가 조성한 것으로 확인됨.
- 자전거 보관소가 크게 확장된 이유는 일부 주거지역의 확대, 기존에 없었던 체육관 건설, 야외경기장 추정 시설 공사 증으로 삭주군 위상변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시장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고, 시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의주군 의주시장: 이전확장(2019)**

- 의주시장은 의주 중심부 동쪽에서 남쪽으로 1.3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으며, 규모는 기존의 4,504㎡에서 6,080㎡로 확장되었음.
- 주요 특징은 기존시장이 높은 접근성을 갖추고 있었고, 도시 중심부에서 일부 소형아파트가 나타나는 도시화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에 조성하였다는 것임.
- 따라서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대한 반발을 달래기 위해 시장을 확장한 것으로 보임.
- 의주군은 의주비행장(현재 물류창고를 조성)과 근접하고 1호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도시 중심부 동쪽에 시장이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신의주시 남신의주시장: 이전확장(2017)

- 남신의주시장은 기존의 6,553㎡ 규모에서 추가로 2,000㎡를 건설해 전체 8,553㎡로 확장됨.
- 남신의주시장의 확장은 남신의주 주변 지역의 건설동향이 활발하고 신의주 화장품공장, 축정계기공장의 산업적 활동과 공공시설 건설이 활발해 시장 수요 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용천군 용천시장: 이전확장(2019)

- 용천시장은 기존의 읍 북부지역 외곽인 논밭에서 남쪽으로 750m 이전했으며, 기존시장 9,436㎡에서 9,760㎡ 규모로 소폭 확장 조성함.
- 기존의 시장보다 중심부와 근접하게 이전한 것이 특징인데, 용천폭발사건 이후 도시구획에 따른 재건축 과정에서의 토지이용률과 주민 이동성이 좋아짐에 따라 주민의 시장 수요를 고려해 이전한 것으로 판단됨.

■ 운산군 답상리시장: 폐쇄(2016)

- 답상리에 위치한 답상리시장은 2016년을 기점으로 폐쇄되고, 해당 자리에는 건설용 건재(모래) 관련 사업소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됨.

■ 용천군 진흥구시장: 폐쇄(2017)

- 용천군 진흥노동자구에 위치한 소규모의 진흥시장이 2017년 폐쇄되었으며, 해당자리는 현재 유흥지로 남아 있음.

라. 황해남도 주요 변동 시장

■ 연안군 연안시장: 이전확장(2017)

- 연안시장은 기존시장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북부로 420m 떨어진 곳에 기존 5,735㎡에서 15,527㎡ 규모로 3배 가까이 이전확장함.
- 기존 시장 위치에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이 들어섰으며, 일부 건물개축 동향은 나타나지만, 크지 않아 도시 개발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시장이 과거보다 접근성이 낮은 곳으로 확장한 이유는 읍의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주민들의 시장 수요는 높은 반면, 시장규모가 작고 주변으로 확대할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현 위치로 시장을 이전확장했을 가능성이 높음.

그림 IV-22 연안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2022.10.19.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은천군 은천시장: 이전축소(2017)

- 기존에는 은천읍 남서쪽에 위치하였으나, 남동쪽으로 600m 거리의 어린이교통 안전교육관 옆으로 이전하였으며, 기존 5,606㎡에서 3,582㎡로 크게 축소됨.

- 중심지역 접근성은 기존시장보다 떨어졌으며, 기존 시장부지에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주거지 건설에 따른 시장의 이전으로 판단됨.

■ 은률군 은률시장: 이전확장(2016)

- 은률읍 중심부 동쪽에서 북동쪽으로 800m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으며, 6,784m²에서 7,820m² 규모로 확장되었음.
- 기존 시장과 달리 읍 중심부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시장부지와 지붕 등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잘 정돈되어 매대공급을 늘린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시장부지는 단층형 주거단지가 조성되었으며, 현 시장은 경작지(밭)에 조성됨.

■ 신천군 신천시장: 이전확장(2018~2020, 2020~2021)^{87/}

- 신천시장은 기존 시장에서 남동쪽 읍 중심부로 연결되는 남북대로변으로 2018년에 이전했으나 2020년 다시 기존 시장위치로 복귀했음.
- 당시 대로변 시장의 규모는 기존 시장의 1.3배(8,000m²)에 달했으나 최초 시장위치로 복귀하면서 시장규모는 6,808m²로 축소되었음.
- 신천군의 정치 사상적 위상을 고려한 이전으로 추정됨.
- 신천읍 동쪽에 위치한 남북대로는 6.25전쟁 당시 민간피해를 기록한 신천박물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방문^{88/}이 잦은 곳임.
- 따라서 시장이 대로변에 있다는 것은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천군에서 2년간 운영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복귀했을 것으로 판단됨.

■ 신원군 신원시장: 이전확장(2014)

- 신원시장은 기존의 읍 동쪽 외곽지역에서 서쪽의 읍 중심부 1.45km 거리로 이전하였으며, 규모는 4,756m²에서 8,270m²로 확장됨.

^{87/} 본 보고서는 북한의 시장변동성에 주목하므로 이전확장으로 분류

^{8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15.7.23.

- 2014년까지 구시장에서 시장활동이 포착되는 반면 이전한 현 시장은 설치 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6년 이후 시장이 전면 철거된 모습이 확인됨.
-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거단지가 대거 밀집한 중앙지역 공터에 시장이 큰 규모로 확장되었다는데 있으며, 시장주변의 건설업과 건재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어 향후 시장 수요 증가를 대비한 이전으로 추정됨.
- 또한 신원읍 남쪽 외곽에는 신원석회석광산과 시멘트공장 가동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건재를 활용한 남부지역 아파트 공사가 2021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될 시장 수요를 고려한 이전 확장으로 보임.

■ 해주시 새거리시장: 확장(2018)

- 해주시 동쪽에 위치하는 해주 최대시장인 새거리시장은 시장 옆 도로 일부를 2,000m²를 추가 확장하여 11,560m²로 확대됨.
- 시장 동쪽 지역의 개발이 2014년 이후부터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시장 도로 구간, 사거리, 주변 철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철로 근접지역 남쪽 일부를 줄이고 동쪽 수원지 옆 도로 쪽을 줄이는 대신 서쪽의 대로변으로 시장을 크게 확대함.
- 다만, 주목되는 부분은 시장이 위치한 자리가 도심개발의 중심지라는 점으로 향후 이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

■ 봉천군 봉천시장: 이전확장(2019)

- 봉천시장은 기존의 동쪽 외곽에서 서남쪽 도심과 근접한 65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으며, 기존의 5,068m²에서 6,800m² 규모로 확장되었음.
- 도심에 주거형 건물이 들어서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건설되는 등 도시개발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시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접근성이 높은 중심부로 이전해 확장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시장위치는 소규모 2개 사업소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시장 위치는 기존의 경작지(밭)에 조성되었음.

■ 배천군 배천시장: 개축확장(2019)

- 배천시장은 기존의 시장의 남동쪽 지역 2/3를 철거하고 대신 북동쪽으로 확장했으며, 기존의 9,949㎡에서 11,263㎡규모로 개건 확장되었음.
- 주요 특징은 경작지(밭)를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철거한 기존 부지를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과 접해있는 동쪽 지역에 고층건물을 건설 중임.
- 도시 중심부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2015년 이후 서쪽지역 대로변을 중심으로 일부 주거형 건물(소형아파트)들이 다수 들어서고 같은 시기 남쪽 경작지대에 기존에 설치된 양어장보다 큰 규모의 양어장이 조성되는 등 건설동향이 일부 파악되어 도시화의 영향과 공간배치의 효율성이 개축 확장의 원인으로 보임.

마. 황해북도 주요 변동 시장

■ 중화군 중화시장: 이전확장(2015)

- 중화시장은 2015년 이후 2017년 위성사진만 존재해 명확한 이전 시기를 추정할 수 없으나, 2015년 1월 기존시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2014년 당시 이전 장소에 일부 조성중인 모습이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이전은 2016년 이후로 추정됨.
- 특히 2015년 이후 옮겨간 시장의 위성사진이 시기별로 겹쳐지는 지점으로 시장 활동을 온전히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 중화시장은 기존의 중심대로변에서 500m 거리 서남쪽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으며, 규모도 기존 6,770㎡에서 12,410㎡로 확장되었음.
- 중화군 자체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 수요가 기본적으로 높고 해당 지역 중심부를 기점으로 도시개발(주거지, 생활문화 편의시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장의 이전확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새롭게 조성된 시장은 도심 중심부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존 시장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고, 현재 시장 위치는 2013년 당시 논으로 확인된 곳임.
- 논이 부족한 북한에서 경작지 중 밭을 시장으로 조성하는 경우는 자주 나타나지만 논을 시장으로 조성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임.

그림 IV-23 중화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 모습(2022.6.10.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곡산군 곡산시장: 확장(2016)

- 곡산군은 2016년부터 곡산시장 지붕의 도색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서쪽의 유흥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약 906㎡ 규모로 시장을 확장함.
- 도시개발이나, 산업의 활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단순히 기존의 부족한 수요를 충족하는 선에서 시장이 확장된 것으로 판단됨.

■ 사리원시 선경시장: 이전축소(2020)

- 선경시장은 기존의 선경동 중심부에서 남쪽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으며, 기존 2,827㎡와 유사한 규모인 2,325㎡로 조성되었음.
- 주요 특징은 기존 시장부지 내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신규 조성된 시장부지는 기존에 소규모 사업소 자리를 개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 다만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이유가 불확실한 반면, 기존 시장위치는 단층집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어 시장의 외연적 확장이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과 이전된 부지 외에 중심부의 유희부지가 없다는 점, 남쪽 외곽지역은 모두 논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 소규모 사업소를 이전하고 해당 자리에 시장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됨.

■ 연탄군 연탄시장: 확장(2016)

- 연탄시장은 남쪽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소 부지 전체를 통합하고 새롭게 조성된 부지에 시장 매대를 마련함.
- 기존의 시장을 정비해 2021년 12월 기준, 기존 시장부지에도 매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4,367㎡ 시장에 남쪽으로 3,157㎡의 부지를 확대해 전체 7,524㎡ 규모의 시장으로 확장함.
- 지역에 일부 소형 아파트 2개동이 새로 조성되고 석회석광산과 접해 있는 시멘트공장이 가동된다는 점 외에는 시장이 2배 가까이 확장된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단지 읍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소형아파트들이 건설되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어 그에 따른 시장 수요가 시장의 확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금천군 금천시장: 확장(2016)

- 금천시장은 기존 시장 부지의 북쪽 공터에 2016년 확장했으며, 기존의 3,670㎡에서 1,137㎡ 추가 확장해 전체 시장규모는 4,807㎡임.
- 시장이 읍 중앙부에 위치하고 기차역과 불과 2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주민들의 접근성과 유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 서북쪽 지역에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건설동향이 파악되는 점 등 시장 수요가 확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예성강 상류를 가로지르는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와 철로가 금천읍을 지나가고, 이와 관련된 건설 동향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장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사리원시 원주동 원주시장: 신규(2019)

- 사리원시 원주시장은 철산동 북쪽의 원주동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시장 규모는 3,171m²로 작은 시장에 속함.
- 지역 인구밀집도가 높고 다른 동 시장과의 접근성(거리)이 낮아 새롭게 2019년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원주동과 가장 근접한 선경시장과는 1.3km, 대성시장, 구천시장은 각각 1.6km, 산업시장은 3km 거리에 있어 시장 수요 대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신규로 원주시장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됨.

■ 평산군 역전시장: 신규(2017)

- 평산역에서 북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규모는 1,930m² 수준의 작은 시장이며, 2017년 기존의 소규모 사업소 부지에 조성되었음.
- 평산을 중심부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역전과 400m 거리에 위치해 유통망과의 연계성이 높아졌으며, 역전지역의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시장 수요를 해소하고 남동쪽에 위치한 평산시장 주민들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역할로 시장이 조성된 것으로 보임.

■ 평산군 평화시장: 신규(2019)

- 평산군 평화노동자구에 위치한 평화시장은 평산시장으로부터 남동쪽 850m 떨어져 있는 노동자구 시장으로 규모는 3,000m² 수준임.
-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조성되고 시장 옆에는 고압전력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핵심 산업인 평화우라늄광산과 남천화학연합기업소가 가동되는 등 경제 산업적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위한 인구수요가 시장 수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황해북도 상원군 명당노동자구 명당시장: 미식별

- 2016년 해당 지구 조사 당시 위성사진의 질이 낮아 아파트 창고로 판단해 시장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2017년 위성영상에서는 시장지붕을 도색하면서 아파트 창고지붕과 구분되어 시장의 존재를 확인함.

- 해당지구의 주요 특징은 도시개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석회석 노천 광산이 위치해 있으며, 북한 주요 시멘트 공장 중 하나인 상원시멘트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건재 생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임.
- 따라서 주민의 시장 수요가 시장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해당 노동자구의 인구가 기본적으로 적고 국가적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바. 함경남도 주요 변동 시장

■ 장진군 장진시장: 이전확장(2017~2018)

- 장진읍 시장은 장진강 강변에서 500m 거리의 서쪽지역으로 이전했으며, 기존시장 2,239㎡ 에서 3,300㎡ 규모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확인됨.
- 주요 특징은 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대로변에 주거지 현대화사업(소형 농촌형 아파트 조성)이 추진됨에 따라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전 및 확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24 장진강변에서 중심부로 이전 확장한 장진시장(2021.7.21.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단천시 문화시장: 축소 및 임시이전(2020)

- 단천시 검덕지구에 위치한 문화시장이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500m 가량 떨어진 북부지역에 임시시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됨.
- 문화동 임시시장은 기존의 5,716㎡에서 5,116㎡로 크게 축소 설치되었으며, 주변 유희부지를 임시로 확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현재, 2021년 6월 이후 위성사진이 확인되지 않아 신규시장 조성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함주군 함주읍시장: 이전축소(2019)

- 함주읍시장은 기존의 읍 남서부 지역 함주관개 변두리에서 600m 가량 떨어진 읍내 중심부로 이동했으며, 시장규모는 6,230㎡에서 5,447㎡로 크게 줄어듦.
- 그러나 기존시장부지의 유희지(입구 마당)를 제외한다면, 실제 시장으로 조성된 건물규모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기존 시장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4층, 7층 고층아파트들이 다수 건설되는 등 주거지역 확장사업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전한 시장지역 주변이 대부분 단층, 저층형 아파트 대단지라는 점에서 시장 수요를 고려해 이전한 것으로 판단됨.

■ 정평군 신상구시장: 이전축소(2020)

- 정평군 신상구시장은 기존의 노동자구 외곽(산간지역)에서 남쪽으로 700m 내려 온 도심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규모는 4,923㎡에서 3,432㎡로 축소되었음.
- 주요 특징은 다른 시장들의 도시화, 산업화 변화에 따른 유동성과 달리 기존 지역 주민들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신상역(200m 거리)을 이용한 유동성(물류)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야군 금야시장: 이전축소(2019)

- 금야시장은 기존의 읍 남쪽 외곽(주택가)에서 북쪽으로 900m 떨어진 읍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규모는 기존의 6,583㎡에서 4,850㎡로 크게 축소 조성됨.
- 주요 특징으로는 외곽지역 주택가에서 도심 중심부로 위치하게 되면서 도심 주민의 시장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으며, 기존 시장 지역에는 (단층형) 주택가와 소규모 기업소가 함께 조성되었음.

- 즉 시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전통식 시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수용능력을 키운 것으로 파악됨.

사. 함경북도 주요 변동 시장

■ 청진시 수남구역 수남시장: 현대화, 규모 확장(2017, 2018년)

- 수남시장은 2016년 이후 크게 두 차례에 걸쳐 현대화와 규모 확장 사업이 추진됨.
- 2017년 12월 수남시장 남서쪽 화학섬유공장 부지에 6,400㎡ 규모의 시장을 확장했으며, 2018년 10월에는 시장 북쪽입구에 1,000㎡ 시장건물을 추가 조성함.
- 수남시장은 수산물, 육류, 야채(남새) 등 도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반원통형 지붕을 새로 설치하고 지붕도색을 통일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

그림 IV-25 시장확산에 따른 주변부 도시화(2022년 촬영, 주요 변화지역 붉은색 표시)



출처 : 필자 작성

- 주요 특징으로는 시장의 변화가 주변의 산업화, 도시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확산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다시 시장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수남시장의 확산으로 귀결됨.
- 시장 북쪽 지역 남아있던 일부 농장부지도 시장과 관련된 무역유통기업(대부분 대형트럭을 운영)들이 들어서고 주변 1km 이내에는 12~15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6개동과 3개동 규모의 사업소 건물, 주변 유통기업 건물 다수가 완공되는 등 도시화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여기에 추가로 2개동 고층아파트가 2022년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시화에 따른 시장 수요가 수남시장의 확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변화는 수남시장을 통해 얻는 장세효과가 지자체의 재원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역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어랑군 어대진시장: 이전축소(2017년)

-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노동자구 남쪽 변두리에 위치하던 어대진시장이 2017년 해변에 근접한 하천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함.
- 규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서부지역, 북부해안지역, 어대진수산물사업소 지구와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어시장의 기능이 높아짐.

■ 경성군 경성시장: 축소(2020)

- 함경북도 경성군 경성시장은 2020년 9월 태풍으로 인해 온포천이 범람하면서 시장의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2020년 말 제방개보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유실지역에 대한 개보수사업과 시장보수사업이 동시에 진행됨.
- 경성시장의 유실규모는 약 640㎡로 유실된 지역을 제외하고 온포천 하천제방 재건하여 현재 시장규모는 6,084㎡임.
- 경성시장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19년 12월에 완공한 중평남새온실농장으로 이곳에 생산된 채소가 청진시 남새상점을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짐.^{89/}

89/ "중평땅의 남새바다", 『조선중앙TV』, 2021.12.1.

■ 청진시 수원시장: 지붕, 매대 현대화(2019)

- 2019년 수원시장은 지붕, 매대 전체를 개선하는 작업을 5월부터 7월 사이에 완료했으며, 개선규모는 소규모 반원형식 지붕과 폭 4.8m 규모의 매대 조성임.
- 2010년대 청진시를 해양관광도시로 추진하면서 도심지역(포항구역)의 주거, 관광분야 건설투자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2019년 수원시장 주변 반경 500m내에 12~22층의 16개동 고급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수원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남양시장: 이전축소(2017)

-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남양시장은 2016년 두만강 홍수로 남양시장과 주변 마을이 폐쇄되었으며, 2017년 이후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시장의 동쪽 100m거리에 소규모의 시장을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수해지역에 5층 이하의 농촌형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섬에 따라 기존 남양시장은 폐쇄하고 유사한 규모의 약 520㎡의 시장을 동쪽 마을 유희부지에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확인됨.

■ 무산군 읍 무산시장: 축소(2016, 2020)

- 무산군은 2016년 대규모 수해로 인해 마을뿐만 아니라 무산시장의 절반이 붕괴되었다가 2017년 다시 재건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2020년 또 다시 수해가 일어나면서 기존시장의 2/3 수준으로 축소 재건됨.
- 현재 무산시장의 규모는 5,000㎡로 기존 8,600㎡ 대비 대폭 축소된 규모로 재건되었으며, 이는 자연재해에 따른 축소유형에 속하고 주변의 제방공사 완료에 따라 향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확장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연사군 읍 연사시장: 축소 및 임시이전(2020)

- 2020년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연사군 읍에 위치한 연사시장이 1/3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도심 중심지역에 임시로 가건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 가건물로 형성된 임시 연사시장 규모는 2,500㎡로 기존 시장보다 작은 규모이며, 2020년 현재 유실된 지역의 제방보강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재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임.

- 그럼에도 해당 지역은 수해가 잦은 지역인 동시에 수해복구로 소형아파트가 대거 건설된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수요 확산 가능성은 주목해야 할 부분임.

■ 김책시 업역시장: 폐쇄(2020)

- 김책시 북부외곽 업역동에 위치한 업역시장은 2020년 수해로 인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남.
- 시장의 60% 이상이 옆 하천의 범람으로 유실되었으며, 2022년 현재 복구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폐쇄한 것으로 추정됨.
- 해당 지역은 300여 가구의 주민거주지로 사실상 한 개의 리단위 규모에 불과해 시장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재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 무산군 삼봉시장: 폐쇄(2019)

- 무산군 삼봉노동자구 남쪽에 위치해 있던 삼봉시장이 남단의 주거지 확장으로 2019년 폐쇄 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지역 주변에는 수해로 인해 140여 가구의 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시장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폐쇄된 시장의 이전이나, 재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 기존 무산시장으로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무산군 철송시장, 주초시장: 폐쇄(2016)

- 2016년 무산군 주초노동자구, 철송노동자구에 있던 주초시장과 철송시장이 수해로 인해 폐쇄되었으며, 해당 공간에는 주택가가 조성되었음.
- 2016년 당시 무산군, 연사군 일대의 수해로 인해 해당 지역들에 새로운 농촌 살림집을 건설해 주민들에게 공급했으며,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장은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임.

■ 기존 미확인 시장

- 어랑군 어랑읍 농민시장은 어랑읍 북부에 300m²의 소규모 농민시장 추정
- 청진시 청암구역 낙산시장은 낙산동 마을외곽에 560m²의 소규모 농민시장 추정
-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시장은 방진동 입구지역에 100m²의 소규모 농민시장 추정

■ 청진시 봉천시장: 신설(2020)

- 기존의 장마당에서 새롭게 시장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주변 환경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해당 시장은 1990년대부터 작은 골목장마당 수준으로 이용되었다가 2020년 320㎡규모의 시장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됨.

아. 강원도 주요 변동 시장

■ 창도군 창도시장: 이전확장(2017)

- 창도시장은 기존의 읍 남쪽 외곽에서 1km 거리의 읍 중심 건너편 하천변으로 이전하였으며, 규모는 3,265㎡에서 4,182㎡로 크게 확장되었음.
- 지역을 가로지르는 하천정비가 나타나고 도심 중심에는 문화회관, 북부지역에는 공원조성 움직임도 활발하나, 위성사진에 읍 인근 산 곳곳에 금광으로 추정되는 채굴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천에 사금채취 흔적들이 다수 보이는 등 창도군 금채취사업이 시장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IV-26 창도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2020.3.8. 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원산시 율동시장: 축소(2017~2018)

- 13,581m²에서 3,000m²가 줄어들어 10,581m² 규모로 축소되었음.
- 율동시장은 기존의 유희부지까지 시장으로 활용해왔으나, 2017년에는 밭, 2018년에는 약 50가구의 주택(하모니카식)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시장이 활용하던 유희부지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율동시장을 중심으로 서쪽의 관풍동, 신평동, 북쪽의 와우동, 덕성동, 평화동 지역에 큰 규모의 주거단지가 접해있어 시장 수요가 상당히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부지이용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 법동군 법동시장: 이전확장(2016)

- 법동시장은 기존의 북서쪽 지역에서 300m 거리의 법동을 남쪽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시장의 규모는 기존 465m²에서 500m²로 확장되었음.
- 기존 시장 자리는 밭으로 조성되었으며, 새롭게 이전한 자리는 기존의 작은 기업소 부지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됨.
- 2015년부터 추진되던 김일성연구실, 문화회관이 건설되는 등 문화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도시화, 산업화, 접근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단순한 이전 확장으로 판단됨.

■ 판교군 판교시장: 이전축소(2017)

- 판교시장은 읍의 동쪽 외곽 임진강변에서 800m 거리에 위치한 읍 도심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1,712m²에서 850m²로 이전축소 되었음.
- 기존 입지 주변에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으나, 이전한 위치는 기존의 밭을 제거 하고 시장이 들어섰으며, 과거 시장과 달리 지붕을 모두 설치해 매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변부에 신규주택(1동2세대)들이 들어서고 있어 주민들의 시장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수요를 고려한 이전으로 분석됨.

■ 문천시 고암동시장: 미식별

- 2016년 이전에도 존재 했으나, 2016년 조사 당시 위성사진 판독의 어려움으로 제외되었던 대상이었음.
- 고암시장은 소규모($1,200\text{m}^2$)로 문천시 중심부의 주요 시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고암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인 것으로 판단됨.
- 고암동 해안지역이 수산사업소들이 대거 들어서고 부두정비 개선사업과 농촌 아파트형 주거단지들이 들어서는 등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전 및 확장 가능성이 있음.

자. 자강도 주요 변동 시장

■ 동신군 동신시장: 미확인

- 2016년 당시 기존연구에서 위성영상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던 동신시장이 2018년 읍의 중심부로 이전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시장규모 또한 과거 500m^2 의 7배인 $3,500\text{m}^2$ 규모로 확장되었음

그림 IV-27 동신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2022.4.촬영)



출처: 필자 작성.

- 2010년 당시 도심사진에는 없었던 마을 단지가 맞은편에 조성되었으며, 문화회관과 양로원, 체육경기장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확장되는 등 읍내 도시화가 시장의 이전과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 다만 시장의 건물은 6개동에 그치고 유희부지를 유지해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활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됨.

■ 우시군 우시시장: 확장(2017)

- 읍 중심부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017년 4,411㎡ 규모에서 6,542㎡로 1.5배 가까이 확장되었음.
- 2016년을 전후로 도심지역 활동성(지붕, 주거지 변화)이 나타나기 시작해 2020년 남서부지역에 농촌형 소형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도심의 주거지역 재건축과 시장인근에 단층형 주택, 아파트가 확장되는 등 도시화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가 시장 확장의 요인으로 판단됨.
- 우시군의 급격한 도시화는 산업적 발달의 영향으로 과수업(배, 사과)이 발달하고 충만강 소수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전력공급이 용이하며, 발은노동자구에 위치한 발은광산(금광산)이 합작, 합영기업의 투자로 2016년 전후로 활기를 띄면서 나타난 현상임.
- 따라서 우시군 도시화가 시장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시시장을 확장한 것으로 분석됨.

■ 시중군 시중군시장: 이전확장(2021)

- 읍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 1,500㎡에서 2021년 600㎡가 추가되어 전체 2,100㎡ 규모로 확장되었음.
- 시중시장 변화의 요인은 시중읍 북서부지역에서 주거단지들이 조성됨에 따라 시장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용림군 용림시장: 이전확장(2020)

- 용림시장은 용림군 읍의 북쪽에서 500m 거리의 독로강 변두리로 이전했으며, 기존 규모(459㎡)의 약 2배인 893㎡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폐쇄적인 지형문제에도 불구하고 읍내 마을이 2015년부터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고, 새롭게 현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로 볼 수 있음.

■ 고평군 고평시장: 이전확장(2020)

- 기존 읍 남쪽 외곽지역에서 약 1.2km 떨어진 읍 중심부와 근접한 지역으로 2018년 이전했으며, 기존 1,317㎡에서 2,000㎡로 규모도 크게 확장됨.
- 위성영상 분석결과 고평읍 산간지역에 석회석 광산의 활동성이 높게 나타나 석회석광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장 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됨.
- 즉 지역 광업의 활성화가 시장의 접근성과 확장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강계시 외룡시장: 폐쇄(2020)

- 기존에는 남천동에 시장이 없어 남천동 상인과 주민들이 외룡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외룡동과 연결된 철교를 건너야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폐쇄된 것으로 확인됨.

■ 강계시 남천동시장: 외룡시장의 이전확장(2020)

- 강계시 외룡동에 위치하던 외룡시장이 2020년 폐쇄되고 동쪽으로 1km 거리의 남천동 산업지역으로 새롭게 조성됨.
- 규모는 기존 10,177㎡와 유사한 10,360㎡로 반원형 건물 1동과 전통시장 3개동, 유희부지로 나누어 현대적으로 조성되었음.
- 남천동시장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장자강 자락에 위치한 저층형 주거 단지가 고층형으로 재건축 중에 있어 시장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 외룡시장을 폐쇄하면서 외룡동과 접해있는 독산동 지구에 새로운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외룡동 시장 수요를 독산시장으로 흡수한 것으로 파악됨.

■ 강계시 독산시장: 신규(2020)

- 2020년 외룡시장이 폐쇄되고 장자강 건너편 남천동에 새롭게 남천시장을 조성해 흡수하는 한편, 외룡동 옆에 위치한 독산동에 신규시장을 조성해 외룡시장과 맞먹는 두 개의 신규시장이 조성되었음.
- 남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남천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외룡동과 독산동의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독산동에 2개 동의 시장을 조성한 것임.
- 독산시장은 크게 2개 동(본동, 보조동)과 전통적 양식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10,920㎡임.
- 본동은 2층으로 조성되었는데 1층은 2,874개, 2층은 2,516개의 매대로 총 5,390개 매대가 설치되었으며, 2층 매대가 1층보다 적은 이유는 중앙에 1층과 2층을 뚫어 놓았기 때문임.
- 보조동은 2층으로 건설 중이며, 본동의 절반수준 규모로 본동과 보조동 주변에 전통양식의 시장매대가 추가 설치되는 등 시장건설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시장 건설이 활발한 원인으로 독산동 시장 주변이 독산개발지구로 건설이 활발하며, 현대적인 주거지역 거주자 상당수가 당, 행정, 군, 교육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음.^{90/}
- 외룡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룡시장을 폐쇄하고 동시에 유사한 규모의 현대적인 시장 2개를 동시에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배경에도 지역 관료들의 정치적 영향이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차. 양강도 주요 변동 시장^{91/}

■ 갑산군 갑산시장: 이전확장(2016~2018)

- 갑산군 북부마을 외곽지역에 위치하던 갑산시장이 2016~2018년 사이 읍내 남서쪽 지역 허천강 변으로 이전함.

^{90/}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91/} 2019년 삼지연군이 삼지연시로 전환된 이후 시장 변화 가능성 높으나, 2022년 위성영상 기준, 시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설은 나타나지 않음. 또한, 혜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혜산시장의 변화는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가장 제한적으로만 변동사항이 나타나 양강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한계점이 시장의 정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기존 2,549㎡ 규모에서 3,400㎡ 로 확장되었으며, 기존 시장지역은 다세대 주거지역으로 개발됨.
-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갑산군 노동자구, 읍 주변지역에 동광이 매장되어 있어 투자기업들의 활동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광업에 필요한 허천강 소수력 발전소가 읍 남부에 조성되면서 시장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그림 IV-28 갑산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2021.10.24.촬영)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운흥군 운흥시장: 이전축소(2017)

- 운흥군 동쪽 하천변에 위치해 있던 운흥시장이 2017년 읍내 중심부로 이전함.
- 규모는 동일하지만 지역 주민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차역 바로 앞쪽에 위치해 물품유통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함.

■ 김정숙군 김정숙시장: 이전

- 지난 2016년 연구에서 김정숙시장의 위치는 도심 서쪽 김일성연구실 옆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성영상 업데이트에 따라 재확인한 결과 도심 동쪽 끝 압록강 변두리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북한시장의 특징은 어떤 시장이든 사상적 상징물, 사상적 교양건물 옆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는 점으로, 지난 위성사진의 화질 등의 문제로 2016년 식별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재확인된 김정숙시장 규모는 1,420m² 규모의 전통적인 시장형태를 가지고 있음.

카. 남포특별시 주요 변동 시장

■ 남포시 천리마구역 천진동시장: 이전확장(2019)

- 천진동시장은 2019년 북쪽의 150m 거리의 경작지(밭)와 12월 화력발전소 옆으로 이전 확장했으며, 기존의 13,235m²에서 16,695m² 규모로 크게 확장됨.
- 시장주변 지역의 주거단지 확장, 서비스 산업 확장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 원정시장과 2km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지구개발에 따른 이전확장으로 판단됨.
- 시장시설도 반원형 지붕으로 십 여 동이 조성되는 등 평양의 현대적인 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되었음.
- 특히 기존의 천진시장 지역은 2021년 9월 현재 개발되지 않고 방치상태로 있으며, 옆에 위치한 12월 화력발전소 역시 가동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일부 시설이 철거(배수시설)되고 주변에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등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요인도 천진시장의 이전과 확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그림 IV-29 천진시장 이전 위치와 현재의 모습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동시장: 이전확장, 개축중(2021)

- 덕흥동 서부지역에 위치하던 덕흥시장이 개축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지에서 북쪽으로 180m 거리에 임시시장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남.
- 덕흥시장의 규모 2,345㎡ 대비 임시시장의 규모는 3,171㎡로, 해당 부지는 농장작업반 부지로 임시 매대를 설치하여 장날에만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남포시 항구구역 중대두동시장: 이전확장(2016)

- 2016년 항구구역 남쪽 1.3km 거리에 위치한 해안동으로 이전되었으며, 규모는 기존 15,842㎡에서 17,004㎡로 현대적 건물로 확장되었음.
- 주요 특징은 기존 시장부지에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주변에도 주거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시장 수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임.

- 또한 이전한 시장부지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철거된 남포제련소의 폐수처리장으로 폐수장을 메우고 아파트단지와 항만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개발과 산업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으로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요인이 시장의 이전과 현대적인 확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중대동시장의 입지 또한 아파트건설과 주변 산업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지구라는 점에서 시장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의 시장이 추가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까지 새로운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신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타. 나선특별시 주요 변동 시장

■ 나선시 중현시장: 폐쇄(2018)

- 나선시 선봉구역 중현동에 위치한 중현시장은 2019년 경 폐쇄되었음. 작은 골목으로 이전하여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특정 활동이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완전 폐쇄가 된 것으로 추정됨.

■ 나선시 선봉시장: 폐쇄(2018)

- 하현동에 위치한 선봉(하현)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됨.

■ 나선시 지경시장: 미확인 시장

- 신흥 서쪽지구 1,700m²의 시장으로 추정되는 건물 확인됨. 2016년 당시에는 위성사진에서는 식별 불가하였으나, 최근 확인됨에 따라 시장으로 분류함.

파. 개성특별시 주요 변동 시장

■ 개성특별시 개풍군(현 개풍구역) 개풍시장: 이전

- 2015년 당시 1회성으로 활용된 개풍시장이 유일한 시장으로 판독되어, 그 아래에 위치한 현 개풍시장을 공장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시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 현재 확인된 개풍시장은 위치나, 시장의 건물 특성상 시장보다는 특정 사업소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소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과거 소규모 사업소 자리를 시장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시장과 접해 있는 사업소로 들어가는 입구와 시장 입구가 다르게 존재하고,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매대가 구성되어 있고, 자전거 보관소가 확인되는 등 시장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 개성특별시 보선동시장: 확장(2016)

- 2016년 후반부터 외연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해 2021년 5월 현재 기존 10,383㎡에서 12,417㎡로 크게 확장되었음.
- 그동안 운악동, 보선동을 비롯한 일대 지역 인구밀집도 대비 시장의 규모가 작았다는 점, 주변의 건설동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타 지역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확장으로 추정됨.
- 보선동시장과 가장 가까운 남문시장은 1km, 고려시장은 1.6km 떨어져 있어 보선동과 운악동 주민들의 수요가 보선동시장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선동시장이 확장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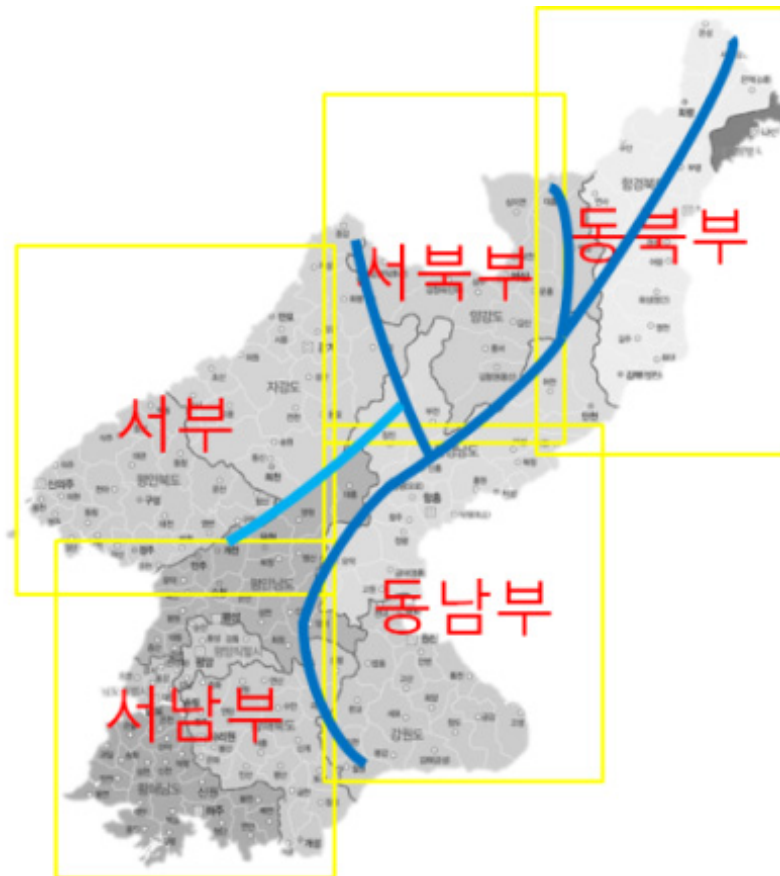
3. 물류유통 현황과 합의

■ 물류유통의 확산

-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김정일 체제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더불어 시장관리 및 권한이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북한의 시장화가 가속화됨.
- 사실상 유통능력이나, 수요·공급기능 없었던 농민시장이 장마당과 연결되고 대규모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한 물류유통사업이 본격화됨.
- 그럼에도 물류유통에 필요한 요인, 특히 운송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시장경제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물류유통의 변화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관리책임을 강조하는 책임경영제도를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지자체로까지 확대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외국자본의 유입과 합작, 합영에 의한 유통망, 운송수단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시장의 확장에 영향을 미쳤음.
- 즉, 김정은 체제 이후 소매상에서 도매상으로의 변화가 활성화되면서, 그 영향이 물주, 돈주, 유통업까지 확대된 것임.

그림 IV-30 북한 지구별 구분과 산맥지형



출처: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 134.

■ 물류흐름의 구분과 주요 수단

- 유통업은 크게 청진을 중심으로 한 동북부지역, 혜산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함흥-원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과 서남부지역으로 성장

- 이러한 구분은 근본적으로 함경산맥을 시작으로 백두대간, 낭림산맥, 강원산맥으로 이어지는 지형의 한계로 인해 지역 간 유통망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음.^{92/}
- 김정은 체제 이후 시장이 확산됨에 따라 불확실한 철도에 의존하기보다는 화물차량을 이용한 물류운송이 활성화되고 운송방법도 다변화됨.
- 화물열차, 10톤 트럭, 컨테이너트럭, 냉동탑차, 서비차, 벌이버스, 유개화물차, 승용차까지 다양한 운송수단들이 등장
- 운송수단의 발달은 북한전국 시장의 물가 안정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유통업의 발달을 가져옴.

■ 종합도매시장 중심의 체제 형성

- 물류운송은 먼저 대규모 종합도매시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북부의 수남시장을 중심으로 한 청진지구와 남부의 중심부의 종합도매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평성시장을 중심으로 한 평성지구로 구분됨.
- 두 번째는 수요가 높은 주요 도시 즉 도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물류유통이 이루어지는데 청진시, 함흥시, 혜산시, 원산시, 강계시, 평성시, 신의주시, 송림시, 사리원시가 대표적임.
- 수남시장은 북한 최대의 종합도매시장으로 청진시의 주요 시장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북부지역으로는 온성군, 회령시, 나선시, 무산군으로 연결되고 남부지역은 길주군, 경성군, 김책시 등 도내지역으로 연결됨.
- 도외지역은 기본적으로 함흥시, 혜산시, 원산시, 신의주시, 평성시로 이어짐. 평성시장은 북부 지역으로 신의주시, 개천시, 강계시, 동부지역으로 원산시, 함흥시, 혜산시, 청진시로 이어지며, 남부지역으로 평양시, 남포시, 송림시, 사리원시, 개성시로 연결되어 있음.

■ 물류운송비의 변화

- 2016년 이후 북한의 시장변화에도 불구하고 물류유통의 흐름은 크게 변화하

^{92/}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 133.

지 않았으나, 교통비, 임차비, 운송비 등에서 과거보다 물가가 비교적 오른 것으로 확인됨.

- 2017년 6차 핵실험 등의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강화가 물가 상승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유엔에서 채택됨에 따라 연간 원유공급량 400만톤, 정제유 50만 톤으로 제한되었으며, 여기에 합영, 합작 투자 및 투자기업에 대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유통업과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음.^{93/}
- 대북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 내 연료가격은 급격하게 폭등하는 현상을 보임. 2017년 이후 휘발유 가격은 8천원에서 최대 14,000원까지 상승했으며, 디젤유 가격은 5천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상승해 물자수송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음.^{94/}
- 이후 시장을 중심으로 연료가격은 일정정도 안정세를 되찾았으며 2019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장통제가 강화되면서 연료가격은 오히려 크게 하락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상승으로 북한 내 연료가격이 크게 재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됨에 따라 휘발유 1kg 당 가격은 1월초 7,500원대에서 3월 12,000원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물류유통에 필요한 디젤유 가격은 4,500원 대에서 8,200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95/}
- 특히 물류수송에 필요한 유가상승 문제는 전국 물류유통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됨.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시장통제를 통한 국가산업 유통망으로의 유도정책은 시장의 유통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인 10톤 화물차, 컨테이너 차량, 벌이버스(서비버스), 서비차의 주요 임차비(차량임대)는 2016년 당시 회령-청진구간 200~250달러, 나선-청진구간 400~500달러, 청진-평양(평성)사이 운임료는 1,000달러 수준이었음.^{96/}

93/ “북한 기름값, 환율, 쌀값 오름세,” 『VOA』, 2022.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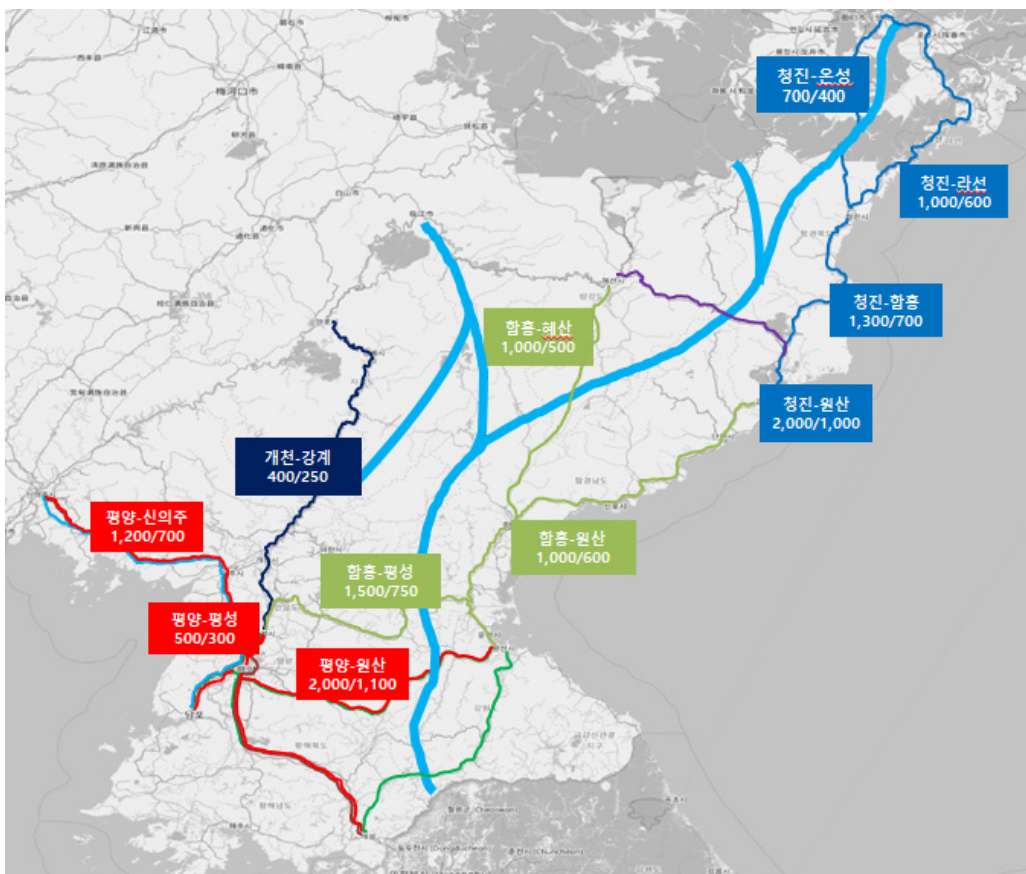
94/ 정보제공자의 요청으로 출처 미기입; DAILY NK, “북한 시장 동향,” <<https://www.dailynk.com/%E5%8C%97%EC%9E%A5%EB%A7%88%EB%8B%B9-%EB%8F%99%ED%96%A5/>> (검색일: 2022.10.31.).

95/ “북한 기름값, 환율, 쌀값 오름세,” 『VOA』, 2022.3.18.

96/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137.

- 하지만 2022년 현재 차량 임차비는 나선-청진구간이 1,000달러, 청진-원산 2,000달러, 원산-평양 2,000달러(냉동탑차)에 달해 나선-청진은 2배, 청진-원산-평양 구간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97/}
- 여기에 구간별 소요되는 연료비는 짧은 구간(평성-평양) 50달러, 중장거리는 300달러(청진-원산, 원산-평양, 평양-함흥 구간 등)에 달해 실질적인 임차비 위에 연료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유통비가 소요됨.^{98/}

그림 IV-31 주요 유통망별 차량임차비 현황(왕복/편도)(단위: 달러)



출처: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기반하여 필자 작성.

97/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98/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 대규모 물류를 운송하는 상인과 달리 일반주민이나,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은 서비차 또는 벌이버스로 물품을 보내면 대방 측에서 지정한 버스 정차지역으로 집적 받으러 가는 일명 ‘이관비’ 방식으로 운영됨.
- 이관비는 일반적으로 지역과 지역사이 정기운행하는 서비차, 벌이버스 편에 소량의 물건을 보내는 작업으로 물품의 가격, 부피, 무게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당시 곡물 100kg 당 청진-김책-함흥 노선은 5~6만원, 온성-청진 노선은 3만원, 나선-청진노선은 3만원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동일한 이관비로는 50kg밖에 보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99/}
- 또한 물품의 종류에 따른 편차는 공업품의 경우는 청진-함흥 간 1m³ 당 600 위안(50만원), 청진-원산 간 1m³ 당 40달러(33만6천원), 전자기기 중 고가에 속하는 액정TV는 나선-청진 간 100달러(84만원)에 달해 발달된 물류유통체계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됨.^{100/}
- 물류유통 기간은 도로상황, 초소유무, 이동거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경유비용이 포함됨.
- 즉 도로노면의 상태나, 도로경사로 문제, 지역과 지역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어 있는 군 검문소(초소)의 유무에 따라 이동시간이 결정됨.
- 특히 국경지역과 평양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검문은 간소화된 반면 내륙에서 국경이나, 평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검문시간이 소요됨.
- 지역별 물류운송 거리와 시간을 보면 평양에서 평성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평양중심에서 30km 이내로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인데, 이 시간 중 검문소 5곳을 통과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됨.^{101/}
- 반면, 함흥에서 출발해 국경지역인 혜산으로 가는 거리는 약 250km로 함경 산맥을 가로질러 가야해 화물운송시간은 15시간 소요되는데 운송시간 중 검문소 1개를 통과하는 시간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됨.^{102/}

99/ 2016년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의 북한이탈주민 면담내용을 토대로 작성

100/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101/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 또한, 물류유통비의 증가는 지역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예컨대 시장곡물가격의 경우 2016년 3분기 평균 평양 쌀가격은 5,315원, 청진 5,500원 수준으로 농업대단위지역과 북부산간지역 사이 활발한 곡물 수송으로 편차가 크지 않았음.^{103/}
- 그러나 2022년 3분기 평균 쌀 가격은 평양 5,917원, 청진 6,400원으로 농업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쌀가격 편차가 2016년 대비 1.5~2배 가까이 올랐음.^{104/}
- 즉 곡물수송이 활발하던 2016년 시점과 현재 물가상승의 큰 편차는 곡물 운송비의 상승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102/} 통일연구원의 위탁으로 DAILY NK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름.

^{103/} DAILY NK, “북한 시장 동향,” <<https://www.dailynk.com/%E5%8C%97%EC%9E%A5%EB%A7%88%EB%8B%B9-%EB%8F%99%ED%96%A5/>> (검색일: 2022.10.31.).

^{104/} 위의 자료.

V. 지역별 공식시장 현황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지역별 공식시장 현황

1. 평양직할시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평양시	이전확장	강동군	강동읍	강동시장	11,545	17,870	
	이전축소	강동군	상리노동자구	상리구시장	1,059	622	
	이전		서성구역 남교동→하당2동	남교동시장	8,027	8,027	
			대동강구역 소룡1동→랭천1동	소룡1동시장	7,372	7,372	
	미확인		삼석구역(읍) 문영동	삼석시장	0	3,765	
	유지		사동구역 송신동	송신시장	12,971	12,971	
			대성구역 능라2동	능라2동시장	8,180	8,180	
			대성구역 용흥동	용흥시장	7,551	7,551	
			역포구역 장진동	역포시장	12,151	12,151	
			평천구역 안산2동	평천시장	10,593	10,593	
			만경대구역 당상동	당상시장	7,654	7,654	
			만경대구역 칠골동	칠골시장	11,184	11,184	
			모란봉구역 인흥1동	인흥시장	3,673	3,673	
			서성구역 중신동	하신시장	11,094	11,094	
			중구역 오탄동	중구시장	4,745	4,745	
			낙랑구역 관문동	낙랑시장	8,344	8,344	
			낙랑구역 원암동	원암동시장	1,492	1,492	
			낙랑구역 통일거리동	통일거리시장	16,032	16,032	
			보통강구역 붉은거리2동	붉은거리2동시장	3,049	3,049	
			용성구역 용궁2동	용궁2동시장	6,149	6,149	
			형제산구역 신간2동	신간2동시장	3,539	3,539	
			형제산구역 서포2동	서포2동시장	8,073	8,073	
			선교구역 대흥동	대흥동시장	7,428	7,428	
			동대원구역 문신1동	문신1동시장	7,575	7,575	
			순안구역 석박동	석박동시장	3,873	3,873	
			은정구역 배산동	배산동시장	2,094	2,094	
			은정구역 과학1동	과학동시장	2,389	2,389	
			강남군	강남읍	강남시장	4,772	4,772
			강동군	대리노동자구	대리구시장	6,559	6,559
				고비노동자구	고비구시장	1,531	1,531
				송가리노동자구	송가리구시장	6,504	6,504
합계				31	207,202	216,855	

2. 평안남도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평안남도	확장	개천시	신성동	신성동시장	7,870	12,570
	이전확장	덕천시	장상동	장상동시장	814	1,135
		개천시	용암동 → 각암동	용암동시장 → 각암동시장	2,484	5,300
	이전축소	안주시	독산동	독산동시장	9,152	7,550
	신규	개천시	남천동	남천동시장	0	4,981
		순천시	금산동	금산동시장	0	1,540
	미식별	평성시	평성동	평성동시장	0	680
	유지	덕천시	제남동	제남동시장	1,979	1,979
			남덕동	남덕동시장	2,040	2,040
			오산동	오산동시장	1,007	1,007
			은덕동	덕천시장	13,623	13,623
			역전동	역전동시장	3,269	3,269
			청신동	청신동시장	686	686
			상덕동	상덕동시장	1,865	1,865
		안주시	칠성동	안주시장	7,855	7,855
			역전동	신안주시장	4,326	4,326
		개천시	조양동	조양동시장	1,240	1,240
			약수동	약수동시장	5,986	5,986
			용진동	용진동시장	380	380
			봉천동	봉천동시장	1,710	1,710
			자작동	자작동시장	2,303	2,303
			람전동	람전동시장	2,589	2,589
			목방동	목방동시장	1,941	1,941
		순천시	강포동	강포시장	6,053	6,053
			연포동	연포시장	2,846	2,846
			역전동	순천시장	11,980	11,980
		평성시	주례동	옥전시장	12,804	12,804
			오리동	문화시장	1,123	1,123
			역전동	역전시장	—	6,897
			주례동	주례시장	—	13,968
			두무동	두무시장	1,568	1,568
			구월동	구월시장	4,982	4,982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평안남도	유지	영원군	정산리	정산리시장	1,184	1,184
		대흥군	대흥읍	대흥시장	1,600	1,600
		맹산군	맹산읍	맹산시장	2,497	2,497
		북창군	봉창리	봉창리시장	1,267	1,267
			보업노동자구	보업구시장	586	586
			인포노동자구	인포구시장	794	794
			북창노동자구	북창구시장	2,627	2,627
			관하노동자구	관하구시장	1,249	1,249
			북창읍	북창시장	4,698	4,698
		신양군	인평노동자구	인평구시장	1,056	1,056
			신양읍	신양시장	2,563	2,563
		양덕군	양덕읍	양덕시장	2,606	2,606
		회창군	백령노동자구	백령구시장	1,177	1,177
			회창읍	회창시장	5,257	5,257
		대동군	대동읍	대동시장	4,343	4,343
			시정노동자구	시정구시장	3,937	3,937
		평원군	평원읍	평원시장	5,406	5,406
			한천노동자구	한천구시장	3,405	3,405
			어파노동자구	어파구시장	2,090	2,090
		숙천군	숙천읍	숙천시장	6,479	6,479
			용덕리	용덕시장	1,924	1,924
			남양노동자구	남양구시장	1,664	1,664
		성천군	장림노동자구	장림구시장	3,631	3,631
			신성천노동자구	신성천구시장	3,442	3,442
			덕암리	덕암리시장	1,999	1,999
			성천읍	성천시장	9,777	9,777
		문덕군	문덕읍	문덕시장	4,667	4,667
		증산군	증산읍	증산시장	5,240	5,240
		은산군	재동노동자구	재동구시장	3,741	3,741
			구봉노동자구	구봉구시장	3,995	3,995
			천성노동자구	천성구시장	4,424	4,424
			학산노동자구	학산구시장	1,503	1,503
			은산읍	은산시장	11,138	11,138
		청남구	새거리동	새거리동시장	11,433	11,433
		운곡지구	운곡읍	운곡시장	923	923
		득장지구	득장읍	득장시장	2,120	2,120
		합계		68	240,917	275,218

3. 평안북도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평안북도	확장	구성시	청년동	청년동시장	8,534	9,184
		구장군	용철노동자구	용철구시장	681	2,000
		곽산군	곽산읍	곽산시장	7,371	9,371
		삭주군	삭주읍	삭주시장	5,919	6,300
	이전확장	신의주시	풍서2동	남신의주시장	6,553	8,553
		영변군	영변읍	영변시장	4,067	4,500
		철산군	철산읍	철산시장	4,409	4,520
		용천군	용천읍	용천시장	9,436	9,760
		의주군	의주읍	의주시장	4,504	6,080
	이전축소	천마군	천마읍	천마시장	3,112	2,430
		운산군	운산읍	운산시장	11,810	10,284
	폐쇄	운산군	답상리	답상리시장	593	0
		용천군	진흥노동자구	진흥구시장	239	0
	미확인	벽동군	벽동읍	벽동시장	0	1,602
	유지	신의주시	락원1동	락원1동시장	1,443	1,443
			신포동	신포동시장	2,711	2,711
			친선1동	친선1동시장	3,507	3,507
			남중동	남중동시장	11,797	11,797
			연하동	연하동시장	865	865
		정주시	오산동	오산동시장	3,584	3,584
			달천동	정주시장	13,828	13,828
		구성시	백운동	백운동시장	2,653	2,653
			방현동	방현동시장	3,000	3,000
		운전군	운전읍	운전시장	6,567	6,567
		박천군	박천읍	박천시장	5,857	5,857
			맹종리	맹종리시장	3,442	3,442
		구장군	구장읍	구장시장	7,513	7,513
			용등노동자구	용등구시장	1,790	1,790
			용문노동자구	용문구시장	854	854
		영변군	팔원노동자구	팔원구시장	1,112	1,112
		태천군	태천읍	태천시장	7,641	7,641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m ²)	
					2016	2022
평안북도	유지	향산군	향산읍	향산시장	5,284	5,284
		운산군	북진노동자구	북진구시장	3,877	3,877
		동창군	동창읍	동창시장	2,002	2,002
		대관군	대관읍	대관시장	4,506	4,506
			수원리	수원리시장	1,479	1,479
		선천군	선천읍	선천시장	6,944	6,944
		동림군	동림읍	동림시장	7,687	7,687
		창성군	창성읍	창성시장	1,513	1,513
		염주군	염주읍	염주시장	5,898	5,898
			다사노동자구	다사구시장	2,184	2,184
		피현군	피현읍	피현시장	5,078	5,078
			양책노동자구	양책구시장	1,063	1,063
			백마노동자구	백마구시장	5,000	5,000
		용천군	북중노동자구	북중구시장	4,454	4,454
			용암포노동자구	용암포구시장	3,096	3,096
		의주군	덕현노동자구	덕현구시장	1,441	1,441
			덕룡노동자구	덕룡구시장	1,045	1,045
		삭주군	연삼리	연삼리시장	1,366	1,366
			수풍노동자구	수풍구시장	804	804
			청수노동자구	청수구시장	1,246	1,246
		천마군	금골리	금골리시장	1,753	1,753
		신도군	-	-	-	-
		합계		50	213,112	220,468

4. 황해남도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황해남도	확장	해주시	새거리동	새거리시장	9,790	11,560
		배천군	배천읍	배천시장	9,949	11,263
	이전확장	연안군	연안읍	연안시장	5,735	15,527
		신천군	신천읍	신천시장	6,808	8,000
		봉천군	봉천읍	봉천시장	5,068	6,800
		은률군	은률읍	은률시장	6,784	7,820
		신원군	신원읍	신원시장	4,756	8,270
	이전축소	은천군	은천읍	은천시장	5,603	3,582
	유지	해주시	서애동	서애시장	4,235	4,235
			양사동	양사시장	21,303	21,303
			학현동	학현시장	2,881	2,881
		벽성군	벽성읍	벽성시장	8,028	8,028
		강령군	강령읍	강령시장	5,748	5,748
			부포노동자구	부포구시장	2,212	2,212
		웅진군	웅진읍	웅진시장	6,045	6,045
			남해노동자구 사곶동마을	사곶동시장	2,010	2,010
			웅진노동자구	웅진구시장	3,123	3,123
			련봉리 소강동마을	소강시장	1,706	1,706
		장연군	장연읍	장연시장	5,857	5,857
			락연노동자구	락연구시장	4,267	4,267
		재령군	재령읍	재령시장	15,252	15,252
		배천군	금곡리	금곡시장	956	956
			봉량노동자구	봉량구시장	1,707	1,707
		청단군	청단읍	청단시장	7,411	7,411
		안악군	안악읍	안악시장	16,239	16,239
		연안군	염전노동자구	염전구시장	1,319	1,319
		과일군	월사리 비파꽃마을	비파꽃시장	3,545	3,545
			과일읍	과일시장	7,752	7,752
		은률군	금산포노동자구	금산포구시장	5,216	5,216
		송화군	송화읍	송화시장	3,801	3,801
		태탄군	태탄읍	태탄시장	3,817	3,817
		삼천군	수교리	수교리시장	1,374	1,374
			삼천읍	삼천군시장	7,588	7,588
		용연군	용연읍	용연시장	8,560	8,560
	합계			34	206,445	224,774

5. 황해북도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황해북도	확장	연탄군	연탄읍	연탄시장	4,367	7,524
		곡산군	곡산읍	곡산시장	3,607	4,513
		금천군	금천읍	금천시장	3,670	4,807
	이전확장	중화군	중화읍	중화시장	6,770	12,410
	이전축소	사리원시	선경동	선경시장	2,827	2,325
	미식별	상원군	명당노동자구	명당시장	0	2,040
	신규	사리원시	원주동	원주시장	0	3,171
		평산군	—	역전시장	0	1,930
			평화노동자구	평화시장	0	3,000
	유지	송림시	철산동	철산시장	4,179	4,179
			꽃핀동	꽃핀동시장	3,315	3,315
			새마을동	새마을시장	15,568	15,568
		사리원시	구천1동	구천시장	6,003	6,003
			산업동	산업시장	11,179	11,179
			대성동	대성시장	7,351	7,351
		토산군	토산읍	토산시장	5,564	5,564
		신계군	신계읍	신계역전시장	519	519
		인산군	인산읍	인산시장	2,532	2,532
		평산군	평산읍	평산시장	8,253	8,253
		은파군	은파읍	은파시장	6,534	6,534
			광명노동자구	광명구시장	4,015	4,015
		봉산군	구연리	구연리시장	12,872	12,872
			봉산읍	봉산시장	4,742	4,742
		황주군	황주읍	황주시장	5,984	5,984
		서흥군	서흥읍	서흥시장	5,975	5,975
		신평군	신평읍	신평시장	3,467	3,467
		연산군	연산읍	연산시장	4,942	4,942
			홀동노동자구	홀동구시장	2,673	2,673
		수안군	수안읍	수안시장	3,639	3,639
		상원군	상원읍	상원시장	5,702	5,702
		승호군	승호읍	승호시장	2,737	2,737
			—	화천동시장	1,284	1,284
		장풍군	장풍읍	장풍시장	2,470	2,470
	합계			33	152,740	173,219

6. 함경남도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함경남도	이전확장	장진군	장진읍	장진시장	2,239	3,300
	이전축소	단천시	문화동	문화시장	5,716	5,116
		금야군	금야읍	금야시장	6,583	4,850
		정평군	신상노동자구	신상구시장	4,923	3,432
		함주군	함주읍	함주시장	6,230	5,447
	유지	함흥시	운중1동	운중시장	6,247	6,247
			풍흥동	풍흥시장	2,000	2,000
			내호동	내호시장	2,993	2,993
			흥서동	흥서시장	7,843	7,843
			송상동	송상시장	4,098	4,098
			흰실동	흰실시장	1,314	1,314
			금사동	금사시장	8,275	8,275
			삼일동	삼일시장	9,033	9,033
			평수동	평수시장	16,721	16,721
			사포동	사포시장	12,995	12,995
			풍호동	풍호시장	4,992	4,992
		단천시	량산동	단천시장	12,391	12,391
			항구동	항구시장	5,476	5,476
			광천동	광천시장	2,758	2,758
		신포시	육대1동	육대시장	4,054	4,054
			광복1동	광복시장	13,446	13,446
			신흥동	신흥시장	1,613	1,613
			동호1동	동호시장	6,785	6,785
		금야군	가진노동자구	가진구시장	1,169	1,169
			갈전노동자구	갈전구시장	1,409	1,409
			인흥노동자구	인흥구시장	2,272	2,272
		고원군	고원읍	고원시장	9,310	9,310
			전탄리	전탄시장	1,458	1,458
			부래산노동자구	부래산구시장	661	661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함경남도	유지	이원군	이원읍	이원시장	12,049	12,049
			나흥노동자구	나흥구시장	3,535	3,535
		요덕군	요덕읍	요덕시장	1,785	1,785
		정평군	정평읍	정평시장	8,462	8,462
		영광군	영광읍	영광시장	7,349	7,349
		부전군	부전읍	부전시장	1,212	1,212
		금호지구	강상노동자구	강상시장	2,702	2,702
		북청군	북청읍	북청시장	10,259	10,259
			신창노동자구	신창구시장	4,702	4,702
			신북청노동자구	신북청구시장	2,720	2,720
		낙원군	삼호노동자구	삼호구시장	1,047	1,047
			낙원읍	낙원시장	3,894	3,894
		홍원군	홍원읍	홍원시장	7,372	7,372
		허천군	허천읍	허천시장	1,594	1,594
		덕성군	덕성읍	덕성시장	6,234	6,234
		신흥군	신흥읍	신흥시장	5,250	5,250
		수동구	장동동	장동시장	2,147	2,147
			수동읍	수동시장	4,264	4,264
			운곡동	운곡시장	1,637	1,637
합계				48	253,218	249,672

7. 함경북도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함경북도	이전확장	청진시	수남구역 청남동	수남시장	23,487	30,887
	축소	경성군	경성읍	경성시장	6,724	6,084
		무산군	무산읍	무산시장	8,593	5,000
	이전축소	어랑군	어대진노동자구	어대진시장	2,551	2,417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남양시장	644	520
		연사군	연사읍	연사시장	4,287	2,500
	신규	청진시	나남구역	봉천시장	0	320
	미식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시장	0	100
			청암구역	낙산시장	0	560
		어랑군	어랑읍	농민시장	0	300
	폐쇄	김책시	업억동	업억시장	1,766	0
		무산군	삼봉노동자구	삼봉시장	937	0
			철송노동자구	철송시장	612	0
			주초노동자구	주초시장	594	0
	유지	청진시	청암구역 해방동	해방시장	1,080	1,080
			청암구역 낙양동	낙양시장	2,407	2,407
			청암구역 청암2동	청암시장	1,545	1,545
			청암구역 연진동	연진시장	1,507	1,507
			청암구역 관해동	관해시장	1,106	1,106
			포항구역 수원동	수원시장	12,074	12,074
			포항구역 남향동	남향시장	6,489	6,489
			포항구역 산업동	산업시장	2,649	2,649
			신암구역 관해동	청년공원시장	10,310	10,310
			신암구역 신진동	신 신진시장	1,522	1,522
			송평구역 송평동	송평시장	5,837	5,837
			송평구역 강덕1동	강덕시장	1,570	1,570
			송평구역 수성동	수성시장	747	747
			송평구역 은정1동	은정시장	1,581	1,581
			송평구역 제철동	제철시장	4,153	4,153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함경북도	유지	청진시	나남구역 낙원1동	낙원시장	5,031	5,031
			나남구역 이북1동	나북시장	6,596	6,596
			나남구역 이곡동	이곡시장	5,688	5,688
			부윤구역	—	0	0
		김책시	제강1동	제강시장	6,144	6,144
			수원동	수원시장	10,646	10,646
		회령시	성천동	회령시장	12,864	12,864
			유선동	유선시장	2,053	2,053
		명간군	화성읍	화성시장	3,535	3,535
		어랑군	어랑읍	어랑시장	6,799	6,799
		경원군	고건원노동자구	고건원시장	3,568	3,568
			새별읍	새별시장	7,043	7,043
		부령군	부령읍	부령시장	818	818
			고무산노동자구	고무산시장	1,220	1,220
		명천군	명천읍	명천시장	5,696	5,696
		경성군	승암노동자구	승암시장	2,670	2,670
			경성읍	경성역전시장	676	676
		길주군	영북구	길주시장	13,024	13,024
		온성군	종성노동자구	종성시장	1,092	1,092
			온성읍	온성시장	4,709	4,709
		경흥군	경흥읍	경흥시장	7,402	7,402
		화대군	화대읍	화대시장	5,412	5,412
합계				46	217,458	215,951

8. 강원도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강원도	이전확장	법동군	법동읍	법동시장	465	500
		창도군	창도읍	창도시장	3,265	4,182
	축소	원산시	율동	율동시장	13,581	10,581
	이전축소	판교군	판교읍	판교시장	1,712	850
	미식별	문천시	고암동	고암시장	0	1,200
	유지	원산시	신흥동	신흥시장	9,794	9,794
			갈마동	갈마시장	15,052	15,052
			세길동	세길시장	1,680	1,680
		문천시	삼오동	문천시장	6,664	6,664
			성문동	성문시장	—	255
			옥평동	옥평시장	620	620
		김화군	김화읍	김화시장	2,678	2,678
		판교군	지하리	지하시장	1,469	1,469
		고성군	고성읍	고성시장	3,206	3,206
			두포리	두포시장	411	411
		통천군	통천읍	통천시장	4,543	4,543
		금강군	금강읍	금강시장	1,734	1,734
		평강군	북계리	북계시장	2,511	2,511
			평강읍	평강시장	5,604	5,604
		철원군	철원읍	철원시장	2,574	2,574
		세포군	세포읍	세포시장	3,565	3,565
		회양군	회양읍	회양시장	2,596	2,596
		고산군	고산읍	고산시장	4,326	4,326
			광명리	광명시장	1,777	1,777
		안변군	안변읍	안변시장	3,090	3,090
			미현리	미현시장	1,216	1,216
		이천군	이천읍	이천시장	2,588	2,588
		천내군	천내읍	천내시장	4,351	4,351
			신산노동자구	신산구시장	422	422
			화라노동자구	화라구시장	323	323
	합계				30	101,817

9. 자강도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m ²)	
					2016	2022
자강도	신규	강계시	독산동	독산시장	0	10,484
	확장	우시군	우시읍	우시시장	4,411	6,542
	이전확장	강계시	외룡동 → 남천동	(구 외룡시장) 남천동시장	10,177	10,360
		고풍군	고풍읍	고풍시장	1,317	2,000
		시중군	시중읍	시중군시장	1,500	2,100
		용림군	용림읍	용림시장	459	893
	미확인	화평군	화평읍	화평시장	0	680
		동신군	—	동신시장	0	3,500
	유지	만포시	봉화동	만포시장	5,645	5,645
			구오동	구오시장	1,081	1,081
			문악동	문악시장	507	507
		강계시	연풍동	연풍시장	2,642	2,642
		희천시	풍산동	풍산시장	836	836
			서문동	희천시장	8,731	8,731
			갈곶동	갈곶시장	2,477	2,477
		송원군	송원읍	송원시장	1,493	1,493
		성간군	성간읍	성간시장	2,731	2,731
			중성간노동자구	중성간시장	1,667	1,667
		초산군	초산읍	초산시장	2,656	2,656
		전천군	전천읍	전천시장	4,066	4,066
			학무노동자구	학무구시장	2,206	2,206
		낭림군	낭림읍	낭림시장	1,349	1,349
		자성군	자성읍	자성시장	1,838	1,838
		중강군	중강읍	중강시장	1,492	1,492
			호하노동자구	호하시장	1,158	1,158
		장강군	장강읍	장강시장	1,842	1,842
		위원군	신연리	신연리시장	1,292	1,292
	합계			27	63,573	82,268

10. 양강도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양강도	이전	김정숙군	김정숙읍	김정숙시장	1,420	1,420
	이전확장	갑산군	갑산읍	갑산시장	2,549	3,400
	이전축소	운흥군	운흥읍	운흥시장	1,079	1,000
	유지	혜산시	연봉동	연봉시장	1,713	1,713
			연풍동	연풍시장	1,055	1,055
			위연동	위연시장	1,458	1,458
			마산1동	마산시장	1,164	1,164
			해신동	해산시장	6,901	6,901
		김형권군	김형권읍	김형권시장	1,499	1,499
		대흥단군	대흥단읍	대흥단시장	2,593	2,593
		김형직군	김형직읍	김형직시장	1,237	1,237
		백암군	백암읍	백암시장	2,118	2,118
			유평노동자구	유평시장	625	625
			백암노동자구	백암구시장	976	976
		보천군	보천읍	보천시장	571	571
		삼수군	삼수읍	삼수시장	1,182	1,182
		삼지연시	—	삼지연시장	1,770	1,770
		풍서군	풍서읍	풍서시장	1,589	1,589
		합계		18	31,499	32,271

11. 남포특별시

도	변경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남포 특별시	이전확장		천리마구역 천진동	천진동시장	13,235	16,695
			강서구역 덕흥동	덕흥동시장	2,345	3,171
			항구구역 중대두동	중대두동시장	15,842	17,004
	유지		와우도구역 남흥동	남흥시장	5,353	5,353
			와우도구역 체육촌동	체육촌시장	11,437	11,437
			와우도구역 갑문1동	갑문1동시장	1,506	1,506
			항구구역 하비석동	하비석동시장	2,138	2,138
			항구구역 상비석동	상비석동시장	2,219	2,219
			대안구역 대안동	대안시장	5,398	5,398
			강서구역 산업동	산업동시장	13,149	13,149
			강서구역 락원동	락원동시장	2,246	2,246
			강서구역 서기동	서기동시장	1,921	1,921
			천리마구역 원정동	원정동시장	3,795	3,795
			천리마구역 달마동	달마동시장	3,417	3,417
		용강군	용강읍 용강읍	용강시장	4,479	4,479
		온천군	온천읍	온천시장	8,681	8,681
			증악노동자구	증악구시장	485	485
			보림노동자구	보림구시장	723	723
			귀성노동자구	귀성구시장	1,711	1,711
			원읍노동자구	원읍구시장	2,181	2,181
			마영노동자구	마영구시장	800	800
	보류		항구구역 류사동	류사시장 ^{105/}	—	2,563
합계				21	103,061	108,509

^{105/} 남포시 항구구역 신남포지역인 류사동 소재 경작지(밭)에 2,563㎡ 규모의 전통형 시장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나, 2022년 12월 출판 직전에 식별된 것으로 추후 지속적 관측이 필요하여 총 개수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목록에만 추가함. 류사시장의 주변 지역은 아파트단지와 철도, 물류유통 기업들이 개발되고 평화자동차공장과 600m 거리에 위치하는 등 주거와 산업 활동 모두 활발한 곳으로 지역 주민들의 시장 수요 증가요인에 영향을 받아 새롭게 시장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12. 나선특별시

도	변경 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나선특별시	미확인	나선지구	지경동	지경시장	0	1,700
	폐쇄	선봉지구	중현동	중현시장	1,495	0
			하현동	선봉시장	5,695	0
		나선지구	창평동	창평시장	2,781	2,781
			신흥동	신흥시장	16,869	16,869
합계				3	26,840	21,350

13. 개성특별시

도	변경 유형	시군	시장위치	시장명	시장면적(㎡)	
					2016	2022
개성특별시	확장		보선동	보선동시장	10,383	12,417
	이전		—	개풍시장	3,205	3,205
	유지		—	판문군시장	1,757	1,757
			고려동	고려동시장	1,201	1,201
			남문동	남문동시장	5,145	5,145
합계				5	21,691	23,725

참고문헌

1. 단행본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1.

2. 논문

정승호, “2021년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의 추세와 특징.”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월호.

3. 기타 자료

아시아프레스 <<https://www.asiapress.org/>>.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index/index.do>>.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DAILY NK <<https://www.dailynk.com/>>.

Google Earth <<https://earth.google.com/>>.

『로동신문』.

『오마이뉴스』.

『CBS노컷뉴스』.

『Daily NK』.

『RFA』.

『VOA』.

DAILY NK 현지 조사 자료(위탁기관: 통일연구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홍제환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문선혜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들	홍석훈 외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2020-06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2020-08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2020-11 평화공간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 · 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 · Opening'	Park, Young-Ja · Jeong, Eun Mee · 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 · Yee, Ji Sun · 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 · 홍제환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 · 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합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의식조사 2022	박주화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북한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KINU Insight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1 (2021)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1, No. 1 (2022)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1, No. 2 (2022)	

기타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 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의
의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